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큰돈을 크게 서비스는 정성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30에 최고 1억원까지 대출에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7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3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송 춘 희

사람이 살다보면 세번의 대운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대운은 커녕 죽을뻔한 고비를 두번이나 넘겼다. 확실히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수있는 것은 순전히 부처님 덕분이다.

10년전 미국에 살면서 미국친구들과 유럽여행을 갔다가 프랑스를 통해 돌아오기로 된 마지막 날이었다. 낯설은 프랑스 한 호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다행히 여권과 주머니 속의 3백불은 남아있어 호텔측의 분실확인서를 받아 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했다. 이미 친구들은 탑승했고 맨 뒤에 섰던 나만 영주권이 없기때문에 출국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정해봐도 별수 없이 비행기는 떠났고 나는 미국 대사관으로 달려갔다. 수속기간이 1개월이 걸린다. 돈도 3백불이 전재산이라 3일도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어찌할 아무런 도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왜이렇게 됐지하고 되짚다보니 불현듯 1년전 미국에서 숭산스님이 들려주신 법문이 떠올랐다.

"금생의 고통은 전생의 업이다"며 삶이 고난한 사람은 열심히 참회기도를 해서 그 업장을 녹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특히 나같이 아상에 잡히기 쉬운 사람은 절을 많이 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참회기도로 넘긴 위기

갑자기 수렁에서 빠져나갈 밧줄을 잡은 것처럼 힘이 생겼다. 값싼 모텔에 투숙해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절을 했다. 돈이 없어 먹지도 못하고 물만 마셨다. 날이 밝으면 돈없이 대낮의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열심히 '관세음보살' 주력을 했다. 다시 밤이 되면 그 모텔로 가 절을 했다. 3일째 되는 날 숙박비를 내고나니 돈이 거덜났다. 어쩔수없이 다시 대사관을 찾았다. 겁이나 유리문밖에 서 있는데 여직원이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당신은 참 운이 좋다"는 말과 함께 내 신원확인을 전화로 해 영주권을 재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미국에 당자마자 절에가 3일 참회기도를 부쳤다. 하루 2천배씩 6천배를 마쳤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노래하는 포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참회의 절을 하라고 노래하듯 말한다.

〈가수 · 백련불교장학회장〉

"신앙행위에 과세라니…"

천주교 묘지 세금부과 '파장'…종교계 반발 움직임

불교 납골당 운영에 영향 미칠듯

서울고법이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는 6월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대표이사 김수환 추기경)이 종토세를 부과한 경기 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주교측이 신도들에게서 받은 묘지사용료가 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도의 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유료사용에 해당하는만큼 종토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교재단의 토지에 대해 과세를 면제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종토세 과세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종교계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대해 조계종총무원 재무부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부과는 당연하나 그에 앞서 신앙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납골당이 유료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 스님은 "유료사용이더라도 영리목적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며 "죽은 이의 명복과 천도를 비는 신앙행위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골당에 대한 세금부과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주교측도 공원묘지에 대한 사용료로 신도들에게서 받고 있는 돈은 묘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비이지 묘지운영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2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특수전 사태 국방장관 공식사과

조계종 총무원 방문…법규개정·보완등 다짐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과 관련 김동진 국방부장관이 6월2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국방부 장관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공식 사과했다. 〈관련기사 3면〉

김동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금번 육군특수전학교 종교편향사례와 관련하여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군종발전을 위한 현행법규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번 사건은 반성문을 쓰게하는등 의도적인 인상이 짙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6월 25일 육군특수전학교 종교편향사례 관련 조치계획 회신에서 ▲편파적인 군종활동 불식을 위한 장관 특별지시 하달 ▲각군 참모총장 지휘서신하달 ▲전국 군종장교 대상 집체교육실시 ▲준 법적 효력을 가진 국방부 훈령제정 ▲종교활동 관련 군 인복무규율 개정 ▲관련자 인사조치 계획을 밝혔다.

1寺-1군법당 추진

특수전학교 불교대책위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는 6월 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불교탄압을 감시 접수 조사할 수 있는 상시기구로 개편하는 방안과 특수전학교 개선 진척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대책위를 계속 가동키로 했다. 또 차후 군불교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예산확보와 1사(寺) 1군법당 자매결연운동을 벌이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 과 문

금번 육군 특수전학교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하여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군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특정종교의 대한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이러한 종교편향 사례가 일부인의 종교적 관점과 독단에서 비롯된 행위로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원칙" 원칙에 심히 위배되며, 이는 우리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과오범죄에 따른 엄중 문책하고 철저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군 종 발전을 위해 현행 법규의 제 · 개정과 보완 그리고 금번 사건의 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 참모님께 주지시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전국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육성에 더욱 매진코자 하오니 많이들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997. 6. 26
국방부장관 김동진

「한구좌 1천원」 그늘진 곳에 신문 법보시

우연히 접하게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성으로 만드는 신행지 현대불교신문을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에 보냅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경찰·교도소등에 보급
자동이체·온라인 통해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25-0007-820(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 (영업부)
(02)722-4162 (편집국)

현대불교신문사

"태화쇼핑 살리자"
교계 탄원 잇달아

부산불교실업인회 김정태회장 소유의 (주)태화쇼핑 부도사태와 관련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각계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와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 등은 6월20일 3백여명의 서명으로 향토기업살리기를 호소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탄원서를 부산지법에 냈다.

'알뜰시장' 우천 관계로 7월 6일 봉은사서 열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맑고향기좋은모임 · 중단협소비자위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새싹불자에게 양서 2만권 나눠드립니다 16면
社告 불교테마여행 3면 여름탐험학교 17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97 문화유산의 해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

사 설

국방장관의 세번째 사과

지난 3월부터 육군특수전학교에서 일어난 훼불사건은 광신적 행위였음이 속속 밝혀졌다. 일요법회가 없는 날이나 있는 날이나 불자후보생들은 무조건 교회로 인솔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어떤 때에는 하사관 후보생들을 일부 당직자들이 교회로 오라고 명령했다. 법당 주변에 분뇨차로 인분을 대량 살포하는 야만적 행위도 있었다. 수계식까지도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성한 신앙의 자유를 전면 박탈하기도 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장로대통령 정권말기에까지 자꾸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더욱이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수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종교적 불교탄압이 자행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돌이켜보면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기독교 편향정책으로 물의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청화대 훼불사건·예배사건을 시발로 부활절 검정고시 일자연기, 공무원 시험일 변경, 불교를 비방하는 기독교를 찬양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는 교육내용이 담긴 검인정교과서 제작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17사단 군법당 불상훼손사건과 국방부 대통령예배사건은 군당국에서 자행된 대표적 불교탄압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의례적으로 특정종교 편향정책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정부당국은 '약속'했다. 국방장관의 사과를 통해 나왔던 이러한 '약속'은 자주 파괴되어 현 정권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이번에도 국방장관의 사과가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자들은 현 정권이 이러한 훼불행위·불교탄압을 중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불교계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고 납득할만한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불교탄압과 특정종교 편향정책은 뿌리가 뽑혀야 한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종교정책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종교편향 사례를 철저히 밝혀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특정종교를 신앙하는 정권의 책임자나 군간부들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종교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분명한 범법행위이며 비도덕적 행위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셋째, 현 정권이 불교계로부터 심한 불신을 받고 있음으로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깊은 참회와 함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종교편향정책으로 종교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분열·국론분열의 씨앗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과제를 수행함과 아울러 불교계에서도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군법사단은 군불자들의 교화와 포교에 좀더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포교의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검토하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이에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과 함께 군종제도의 근본적 개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범불교적 대책이 종단이 중심이 되고 불교관계 모든 단체들이 연대·협력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상설적으로 불교탄압 감시기구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재정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각종 자문기구의 활성화와 함께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불자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족문화유산인 삼보정재 불교를 수호하는데 정부당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열 린 마 당

조계종 사찰운영위

조계종 사찰운영위원회는 종헌 종법상 명문화된 기구로 사찰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소속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정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단 제도개혁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찰운영위원회는 개혁 3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재적사찰 1904곳 가운데 379곳만이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스님-신도 역할분담 장점 최대한 살려야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사찰운영위원회는 종법인 사찰운영위원회법으로 명문화된 기구로 종단제도개혁의 산물이다. 그러나 개혁 3주년이 지났음에도 왜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정착이란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시행해 온 것이다. 한가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준비, 시행, 점검, 평가, 정착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행된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로 행정을 집행해 온 부분이 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구성으로만 끝나서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신도회가 구성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을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에 앞서 사찰신도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이유중에 하나는 제도적인 틀로서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스님들의 깊은 잠재의식이다. 지금까지 사찰 운영에 있어 스님중심의 운영방식이 굳어지면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집행하는 운영방법이 고착되어 있다.

점점 사찰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받고 있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주지스님 1인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사찰의 많은 불사와 신도관리, 교육, 포교, 사회복지활동 등은 전문적인 역량이 투여돼야 할 부분으로 사찰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찰은 제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종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님들의 의식전환을 이루는 한편 우수운영사례를 발굴 보급하는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행 2년 제자리…징계등 종단지도 강화

법안 〈조계종 종회의원〉

개혁종단의 상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찰운영위원회법 신설이다. 이 제도는 승단의 운영에 신도들까지도 동참시켜 사찰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동안 횡횡하던 일부 주지스님들의 전횡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법적 장치이다. 또한 사찰운영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요청에 따른 특단의 조치였다. 이러한 시대변화에서 주지스님 혼자서 모든 사찰행정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주지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 사찰의 예·결산은 물론 모든 행정과 불사를 협의해 능률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종단의 취지는 날이 갈수록 유야무야되고 있어 안타깝다. 개혁종단 초기 각 사찰마다 활기를 띠었던 사찰운영위원회 조직은 점점 주춤해지고 있다. 현재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사찰이 20%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개혁의지의 상실로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은 스님들의 인식부족과 종무기관의 지속적인 지도부재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과제를 여법히 실천해야 할 종단과 중앙종회는 뒷짐을 지고 있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까지도 관심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종회는 종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사찰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이권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단도 마찬가지다. 종헌종법상에는 사찰운영위원회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음에도 한번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사고가제도나 행정상의 징계를 강화해서라도 사찰운영위원회가 뿌리내리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모범운영사례-상주 남장사

종무행정 재가참여로 신뢰
예산심의·불사등 '순조롭게'

사찰재산은 어느 누구의 개인 재산일 수 없다. 비록 당해 사찰의 주지라 하더라도 주지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일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찰이 운영되는 곳이 상주 남장사(주지 성응). 남장사는 사찰의 주체를 지역불자들로 보고 있다. 지역불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랐고 높은 애사심(愛寺心)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장사는 이미 개혁회의 이전부터 현재의 사찰운영위원회와 비슷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총무부, 재무부등을 주축으로 신도들이 직접 사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예산과 결산, 불사등을 비롯 사찰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주지스님과 신도대표들이 논의하고 결정한다.

남장사의 이러한 공개종무행정은 신도들에게 신뢰감을 갖게 했다. 이로인해 모든 불사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도회, 거사림회, 학생회 등의 신행단체 창립이다. 신도들이 직접 창립한만큼 활동도 다른 사찰 못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다. 이밖에도 신도들은 방생법회, 일일찻집 등의 행사를 통해 모아진 보시금을 장학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등 각종 보시행을 펼쳐 사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장사는 이같은 사찰운영조차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물론 사찰운영이 신도들에게 맡겨짐에 따라 서류관리의 번거로움과 지속성 여부등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사찰운영의 능률화와 삼보정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의 활동은 바람직하다는 것. 사찰운영위원회의 활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신심과 공심에서 우러나와 절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운영위 현황과 문제점

조계종 개혁회의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이 사찰운영의 공개화, 공정화였다. 이는 사부대중이 함께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삼보정재를 투명화함으로써 포교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위해 개혁회의는 95년 10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했다. 사찰운영위원회는 예·결산을 비롯 모든 사찰운영을 주지스님과 신도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공영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공포된지 2년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천9백4개의 재적사찰 가운데 사찰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19.9%인 3백79곳에 머물고 있다. 특히 수덕사(68%), 직지사(64%) 화엄사(53.5%) 등 몇몇 교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미만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본사도 있다.

이처럼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구신도회 조직이 늦어졌고 운영마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찰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이 가운데 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신도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찰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인 셈이다.

재적사찰 1904곳중 379곳만 구성
종단 '정재 투명공개' 의지 상실위기
일부 스님 '무용론' 제기 등 인식부족

결국 교구신도회 조직미흡은 교구본사는 물론 각 말사까지 영향을 미쳐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율 저조는 불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신도회를 구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찰의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은 요원할 뿐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못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즉 법적 조항만 마련했을 뿐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둘째는 주지스님들의 인식부족이다. 일부 주지스님들의 입장은 사찰운영위원회가 조직될 경우 기득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직접 관리했던 사찰운영을 일반신도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사찰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예산과 결산, 재산처분, 각종 불사와 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을 사찰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찰운영위원회 구성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본말사주지연수회에서 몇몇 주지스님들이 '사찰운영위원회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규정대로라면 96년 4월까지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행정상 강력한 징계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주지 재임시 사찰운영위원회 구성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행정기관의 형평성 부재로 그나마 구성돼 있는 사찰운영위원회까지도 사장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결국 사찰신도회의 안정과 주지스님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당분간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기자

생활속의 불교 (128)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괴롭히다니 · · ·

"우리는 노예가 되자고 태어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심을 자기인 줄 알고 사랑심을 붙들고 육신과 더불어 아둥바둥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나'말고 진정한 나-주인공이 나의 근본임에도 그 근본을 제쳐두고 거짓 나를 참나로 알고 있는 것이다.

중생들의 기쁨과 슬픔, 분노와 환희등은 모두 중생의 자기사랑의 결과일 뿐이니 어찌 그것을 진정한 자기사랑이라고 하겠는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자기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게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번뇌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니 결국은 자기를 위한다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전도몽상, 뒤집힌 꿈이 아니고 무엇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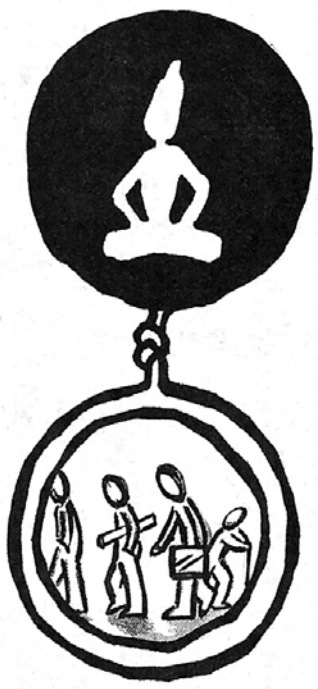
본래 참 나의 성품은 밝고 청정하고 걸림이 없다는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다지도 번뇌와 망념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가.

참나는 본래로 저 푸른 하늘 밝은 태양과 같다는데 나의 일상은 왜 먹장 구름같이 어둡고 우울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자나깨나, 평생을 다 기울여 나의 이기심, 나의 자만심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끝없는 탈바꿈의 바퀴돌이 속에서 아상과 탐진치 삼독심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싹이 터서 자라난다.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다시 심어 키우면 또 열매가 맺힌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심고 키우면 자라난다. 자라난 마음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의식세계에 무수한 기억을 만들어 내고 그 기억들은 다시 또 기억을 쌓아간다. 그런 과정은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시작을 알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어져 갈는지 그 끝을 알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도 그저 그 짓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대상(色)과 눈을 통해, 또는 귀를 통해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상념에 사로잡힌다. 분별과 사량에 의한 욕망이 깃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욕망은 대개의 경우 기쁨·만족·쾌락·사랑·흥분·분노·두려움 등의 감정을 낳는다. 그럼으로써 그것을 붙잡아 두려하거나 혹은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게 된다.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거기에 얽매어서 갇히고 만다.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서 이런 저런 욕심을 일으킨 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가두고 나의 발목을 잡는다.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나를 색의 노예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려거든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 한다. 욕망이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재난의 씨앗에 불과하다. 내 속에 뿌려져 거기서 싹이 트고 나의 이기심을 물로, 나의 자만심을 거름으로 삼아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앗이 되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난다.

따라서 자유인이 되려면 재난의 씨앗을 흐트려 버릴 뿐 그것을 모으려해서는 안된다. 버리고 덜어낼 뿐 쌓으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만이 진정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려거든 내 마음에 깃드는 욕망의 씨앗을 버려야 한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들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불씨 자체를 없애야 하듯이 바라는 마음을 지우고 덜어내야 한다. 그것이 불자다운 바른 수행이다. 바른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만족을 좇고 기쁨을 좇고 집착하고 탐닉하고 애착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의 쌓임은 바로 윤회의 원동력이 된다.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않은 불씨와 같아서 육신이 떨어진 후에도 다른 섶으로 옮겨 붙게 된다. 마침내 과보가 다하여 소멸할 때까지 바퀴돌이는 계속된다. 그러므로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거짓 나의 윤회놀음을 부정하고 본래로 밝음 그 자체인 참나로 귀의해야 한다.

바깥 대상에 붙들려 거기서 자라나는 마음을 안으로 걷어들여 온갖 망념의 뿌리-자만심 이기심을 지우고 덜어내야 한다. 거짓 나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착이 없고 애착이 사라지면 고뇌도 사라진다. 구속과 부자유도 사라진다.

협 찬 : 이 형 선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절실

軍 불교탄압 실태와 대책

17사단훼불, 김대통령국방부예배에 이어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으로 마침내 세번째 국방장관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결과적으로 장관바뀔때마다 불교탄압으로 사과해 온것이다. 이처럼 군부대가 선교장화 된 현실에서 불교 전향및 탄압사건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높게 일고 있다. 근본적인 종교평등을 실현 할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소리다.

국방부가 최근 육군특수전학교 사태와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군 종교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입교전 하교생 71명중 불자가 35명이었던 것이 입교후 19명이나 개종했다. 개종이유는 대부분 인성교육차 교회에 갔다가 세례명세서에 서명해서라고 응답했다. 또 입교후 신입생 환영식으로 교회에서 성가를 부르고 기도했으며, 인성교육하며 기도서약을 생각없이 제출한뒤 세례가 이루어져 당황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종교로 인한 불이익 사례는 일요일 기독교 신자는 교회가는데 불교신자는 작업케 했으며 군목사가 불교신자들에게 공수기본과정교육때 하나라도 잘못하면 퇴교시킨다고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이성적인 불교탄압 관행이 횡횡하는 군부대내의 '불교탄압 개신교 강요' 사태는 일부 광신도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계급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선교화하려는 작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군종목사단이 6월 26일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VISION 2020과 여호와 이레 신자 연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97 군선교전략 세미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명의 장병중 매년 25만명을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하면 2천5백만여명의 기독교 신자가 탄생해 기존신자 1천2백여명을 합하면 전체 인구 75%가 기독교 신자로돼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또 군선교를 위한 기독교장교의 역할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개인생활 각자의 직책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목의 목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볼때 그동안 불교편향사례에 대해 최근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최근에도 종교편향사례는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각부대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군불교 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논산훈련소 하사관학교등 훈련소와 주특기관련 교육부대등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의 경우 신상명세서에 기존세례자는 십자가를 표기하게 하고 세례명이 없으면 이름을 쓰라고 해서 세례받게 한다. 또 전북 익산 하사관학교에서는 인격지도 교육시간에 퇴역장성을 초청하여 8시간 동안 신앙간증을 하는등 종교 편향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하는 군은 다른 사회에 비해 그만큼의 평등과 중립이 보장돼야 함에도 이같은 종교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군의 단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군부대 종교편향에 대해 군승단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활동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고 있다. 군조직상 어려움도 있지만 사전 사후 군포교의 조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단차원의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정보교환 훼손원천봉쇄

조계종 환경분쟁사찰 네트워크 구축키로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사회부장)가 6월 20일 개최한 '사찰환경 연대 연석회의'는 사찰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사찰환경훼손 예방 및 사후 대응책을 강구했다. 환경분쟁 사찰을 중심으로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키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불교환경회의를 열고 98년 1월중 〈불교환경백서〉를 발간할 계획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연석회의의 성과는 환경분쟁을 경험했던 실무자들이 모여 종단과 사찰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사찰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은 대처방법이 늦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즉 1차 사업보고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의 보완 수정조치만 가능할 뿐 사업취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8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지금까지 대전 공원화 계획만 무산됐을뿐 취소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사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1차 사업보고서가 나오기 전 이의신청을 하고 캠페인운동 등을 통해 여론화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처하기로 결의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사찰환경분쟁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분쟁사찰 중심으로 지역불교환경회의를 상설화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키로 결의했다. 즉 사찰과 환경단체가 연대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산림의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조성, 캠페인 운동 등을 펀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사찰환경보존위는 7월 중순 청주 불교환경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환경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불교환경백서〉 발간은 7월말까지 발간추진위를 구성한 후 10월과 11월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98년 1월중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환경분쟁사찰 주지들이 연석회의를 하고있다.

지역환경회의 상설화 '환경백서' 발간 추진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6월 24일 첫 운영회의를 열어 19명의 부회장단을 선임했다. 운영회의에 앞서 월주 총무원장, 송재건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할일 산적한데 아직 틀짜기"

중앙신도회 출범 백일만에 첫 운영회의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가 24일 창립 이후 첫 운영회의를 열고 부회장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또 회장단 및 지도위원 고문 이사의 월회비 납부제를 실시키르 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날 회의로 "시동을 걸고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주 총무원장 취임 이후 2년여의 산고끝에 출범한 중앙신도회가 창립된 지 3개월이나 지나서 처음 열린 운영회의에서 단지 부회장단 인선과 월회비제 도입에 그친 것은 너무 더딘 발걸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딘 이유는 신도회와 총무원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그동안 십수차례의 회의를 열어 부회장단 명단을 확정짓고 오늘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명의 명단(3명은 회의 다음날 추가)을 확정짓기 위해 3개월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신도회는 4월초 50여명의 추천명단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은 신도회 운영기금 납부가능성에, 신도회는 명망성에 무게를 두어 부회장단 확정에 많은 시일이 필요했다.

또 이날 사업계획이 논의되지 못한 것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신도회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측에서 사업계획은 다음에 논의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해 중앙신도회의 '앞날'에 서로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월주스님은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부회장단 인선은 회장과 당

사업계획 미확정 독자성 확보 관심

연직 총재인 총무원장이 협의해 결정토록 돼있다"는 점을 강조, 중앙신도회는 총무원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신도회 주변에서는 신도회의 사단법인화 필요성이 자주 거론됐었다. 또 회칙개정 논의도 그치지 않았다. 총무원의 간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으로 법인화와 회칙개정이 거론됐던 것이다.

정성운 기자

불자피해 부지기수…군 화합 저해

기독교 '전군선교화' 계획 주시해야

비가 내린다. 장때비가 내린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6월 25일, 중부지방 곳곳에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등 피해가 속출했다.

올 장마기간은 예년보다 길고 강우량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하되는 말이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올 여름엔 비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국민 가슴에 근심이 하나 더 얹어졌다. 북한동포 걱정이다.

장마비를 바라보며 시름에 잠길 북한동포들. 가난에 찌든 살림을 그나마 수마가 또 할퀴고 지나가면 어쩌나. TV화면에서 본 멀건 씀바귀죽이 눈에 선하다. 폭우가 쏟아지면 씀바귀도 귀할텐데. 두만강물이 불어나면 '꽃제비' 소년들의 발이 묶일텐데.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 두만강 유역에 다녀온 법륜스님은 말했다.

"절벽같은 가파른 곳까지 화전을 일구어 곡식을 심었지만 큰비가 오면 사태가 나서 곡식들이 그냥 실려 내려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는데다 산비탈의 밭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기엔 너무도 악조건이다. 그러니 산림을 파괴하고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유출한다.

북한의 실상이 이처럼 처참한데 조계종은 모아놓은 성금을 못 전하고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적십자사가 7월말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옥수수 5만톤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배고파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성금을 전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려야 하다니. 남북적십자사는 남한 국민의 온정이 속히 그리고 제대로 북한동포에게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몸에 화살이 박히면 화살을 먼저 뽑겠느냐 아니면 화살이 박힌 원인을 따진 다음에 뽑겠느냐."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의 시련이라면 정부도 민간단체도 함께 극복의 슬기를 모으자.

목어

"북한에도 비가 올텐데"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판전(장경각).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나뭇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7월 테마여행 - 해인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제32호)을 봉안하고 있어 법보종찰로 불리우는 해인사는 802년 순응과 이정 두 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중 하나입니다. 고려말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심으로 몽고를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이 조성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많은 이름없는 각수들이 불경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또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구국과 평화를 염원하여 만든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자들의 영원한 자긍심 그 자체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판전(국보 제52호) 역시 경관보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전무결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절이름 '해인'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원 강원 율원 등을 모두 갖춘 총림 해인사를 찾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라고 깨우침을 주시던 우리시대의 큰스님 '성철스님'의 사자후가 어느덧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아로새겨집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7월 27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 성지순례의 최적기는 10월~3월입니다.
인도 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델리 취항으로
더욱 편리해진 인도 성지순례,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 단체 성지순례 예약 접수 중●

▶ 인도 네팔 7대 성지순례 9일 : 145만 원
▶ 인도 네팔 태국 성지순례 15일 : 180만 원

- 성수기(12월~1월) 요금 및 단체는 별도 문의하십시오. -

인도 네팔 7대 성지순례 9일
서울 - 델리 바라나시 - 사르나트(녹야원) - 보드가야 - 라즈기르(영취산, 죽림정사) - 파트나 - 바이샬리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발람푸르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사위성) - 럭나우 - 델리 - 서울

인도 네팔 태국 성지순례 15일
서울 - 봄베이 - 오랑가바드(엘로라, 아잔타 석굴) - 보팔(산치 대탑) - 델리 - 아그라(타지마할) - 바라나시 - 사르나트(녹야원) - 보드가야 - 라지기르(영취산, 죽림정사) - 파트나 - 바이샬리 - 쿠시나가르(열반당) - 카필라바스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사위성) - 룸비니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작은 티베트 라닥과 북인도 11일
서울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델리 - 스리나가르 - 카르길 - 레 - 델리 - 서울
출발일 : 7월 22일, 8월 9일, 8월 23일
동참금 : ₩1,850,000

중국 실크로드 10일
서울 - 북경 - 서안 - 난주 - 가욕관 - 돈황(천불동) - 투르판 - 우룸치 - 북경 - 서울
출발일 : 7월 11일, 7월 25일, 8월 1일, 8월 8일
동참금 : ₩1,750,000

중국 티베트 네팔 10일
서울 - 상해 - 성도 - 라사 - 장체 - 시가체 - 시가 - 장무 - 카트만두 - 방콕 - 서울
출발일 :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동참금 : ₩2,350,000

미얀마 태국 7일
서울 - 양곤 - 파간 - 만달레이 - 양곤 - 방콕 - 아유타야 - 방콕 - 서울
출발일 : 8월 13일, 8월 27일, 9월 10일, 9월 24일
동참금 : ₩1,350,000

스리랑카 6일
서울 - 콜롬보 - 폴론나루아 - 시기리야 - 담불라 - 캔디(불치사) - 콜롬보 - 서울
출발일 : 8월 21일, 9월 18일, 10월 16일
동참금 : ₩1,080,000

혜초여행사 전화 : 02) 733-3900 팩스 : (02)733-3780
(110-140)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안국동 로타리 조계사 옆)

부처님과 함께 하는 청소년 국토 사랑 대탐험

여름, 불교 탐험학교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자연 친화적 레포츠와 참선 교육을 병행하여 심신이 조화된 최고의 상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 불자를 육성하고자 여름 불교 탐험학교를 운영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우리 국토의 빼어남을 온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 행사 일정(2박 3일)
1차 : 7월 21일 ~ 23일
2차 : 7월 26일 ~ 28일
3차 : 8월 4일 ~ 6일

◆ 참가 대상
각 차수별로 40명씩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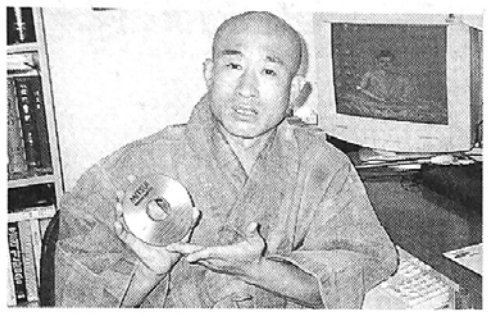
◆ 참가비 : 13만 원
(숙식, 교통, 강습, 티셔츠, 보험료 등 일체 포함)
※ 현대불교 독자는 11만 원

◆ 가족 캠프는 별도 문의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 한국탐험학교

●후원 : 조계종 포교원, 문화체육부, 월정사, BBS, BTN, 목동청소년회관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한국탐험학교
전화 : 738-0997(대표) 팩스 : 736-2890

일정	시간	활동 내용
발심의 날 (트레킹)	10:00	2초선 참실역 롯데월드 호텔 앞 집결, 인원 점검후 출발
	10:00~13:30	이동(월정사), 조 편성 확인(좌석 지정) 자기 소개
	13:30~14:30	월정사 도착 후 중식
	14:30~15:00	입교식(오리엔테이션)
	15:00~15:30	산행 준비: 올바른 트레킹 방법, 행선 교육
	15:30~17:30	산행(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 월정사)
	18:00~19:30	석식 및 자유시간
	19:30~21:00	참선 교실
	22:00	취침(월정사 또는 상원사)
정진의 날 (래프팅)	06:00~07:00	기상, 입선, 세면
	07:00~08:00	조식
	08:00~09:00	불교 문화 교실 (불자 예절, 법문)
	09:00~13:00	정선 동강 도착 후, 래프팅 교육, 래프팅 출발
	13:00~14:30	중식(도시락) 후, 휴식
	14:30~16:30	래프팅(재출발)
	16:30~18:00	야영법 강의 및 야영 준비
	18:00~20:00	취사, 부모님께 편지 쓰기
	20:00~21:00	야간 산촌길 트레킹(랜턴 준비) 후, 취침(캠핑)
회향의 날 (동굴 탐험)	06:00~07:00	기상, 입선, 세면
	07:00~08:00	조식
	08:00~09:00	108배, 수료식
	09:00~13:00	동굴 탐험(영월 지역의 원시 동굴)
	13:00~14:00	중식
	14:00~15:00	'청령포'(단종의 유배지)답사 후, 상경
	19:00	서울 도착 후, 해산



"강원교재 종합DB 12월 출시"

불교학 자료 CD롬 개발 용 학 스님

"통도사와 범어사 중강으로 있을때 학습자료의 부족을 절감했습니다. 폭넓게 가르치려면 한문본이나 영문본을 일일이 뒤지고 번역해야 했지요. 많은 자료를 한 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불교학 전산화를 발원했습니다."

최근 불교학 관련자료 모음 CD롬을 개발한 용학스님(나우누리 승가학회(GOSANGA)대표시삽)은 승가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전산화작업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나우누리 승가학회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스님들의 학술 교류모임.

용학스님 등 승가학회가 개발한 CD롬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연구도 가능케한다. 특히 최근 나온 제2집은 1집에 비해 디렉토리 구분이 완벽하다.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티벳 등 10여개국 것을 모았습니다. 또한 동국대 대학원, 승가대학원, 영산율원, 해인사 대장경연구소, 불전국역연구소 등의 도움이 컸다"는 스님은 그러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곳도 있어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운문사 강원에서 컴퓨터를 강의하는 이영아씨와 공동으로 새 파일을 개발하는 과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또 그만큼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시킬 예정이라며 "오는 12월까지 강원교재를 종합해서 DB화하는 작업을 마칠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핵심 소의경전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본 한글본 한문본 등을 모두 실어서 원문과 비교연구를 가능케하는 작업도 구상중이다.

최근 3개월동안 하루 2시간여밖에 못잘 정도로 강행군했다는 스님은 작업을 끝내고 나니 당분간은 컴퓨터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더라며 웃는다.

대구=이윤호 기자



전몰호국 영령 천도법회



현해 월정사 주지는 6월 25일 6·25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세계 불청회 일행과 간담



태응 불교TV 사장 스님은 6월 23일 세계 불교청년 우의 회(WFBY) 사타니 사무총장, 스리랑카 국립 불교청년회 반둘라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이상번 회장 등의 예방을 받고 불교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하버드大 교환교수로

현각 동국대 선학연구소장 스님은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로 1년간 연구활동을 하기위해 6월 24일 출국했다.

옥포 용연사 주지 맡아



원학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스님은 6월 24일 옥포 용연사 주지로 부임했다.

서울 항승위원장 피선



법장 무진법장사 주지는 6월 15일 서울지역 향승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美 불교대학현황 시찰

밀원 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은 미국내 아시아불교계에서 설립한 부대학원 현황과 교과관리 과정 조사차 6월 29일 출국했다.

홍일식총장 초청 강연

수열 한라불교신문 발행인 스님은 6월 20일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홍일식 고려대 총장을 초청,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구름뒤편에…' 출판 기념회



정여 보현선원장 스님은 6월 26일 양정 백조한식 뷔페에서 〈구름뒤편에 과란 하늘이〉 출판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 책은 불교방송의 아침 프로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에서 설법한 내용을 간추려 실었다.

북경대 특강 마치고 귀국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중국 북경대에서 '동서양 종교의 철학적 기초'란 주제특강과 북경 강파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차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6월 27일 귀국했다.

연세대 언론대학원 수료

명호근 대불련총동문회장(쌍용화재해상보험 사장)은 6월 23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봉은사 청년회 초청특강



윤청광 방송작가는 서울 봉은사 청년회 초청으로 5일, 12일 오후7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캄' 노스님에 안경 선물



남지심 우리는선우 공동대표는 6월 26일 한국을 방문중인 캄보디아 승왕 테퐁스님에게 돋보기 안경 3백개를 전달했다. 이번 안경전달은 캄보디아 노스님들을 위해 테퐁스님이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수타사·서봉사서 야외법회

전창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13일 강원·홍천 수타사, 서봉사 일대에서 야외법회를 실시한다.

고구려 고분벽화 춤으로

이애주 서울대 교수(무형문화재 승무기능보유자)는 20, 21일 일본 동경 학습원대학 창립 1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재현하는 춤사위를 선보인다.

네팔 현지답사 위해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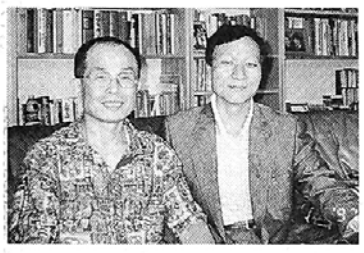
김동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은 '네팔 부디스트 사와센터(Nepal Buddhist Sewa Center)' 건립 현지답사를 위해 1일 출국했다.

대불청 사무국 개원법회

이건국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2일 범일동 사무국에서 회암스님을 법사로 사무국내 법당 부처님 점안법회 및 교계인사 초청 개원법회를 갖는다.

불교지도자 전방 견학

박혜욱 호국백암사 주지법사는 6월 25일 불교지도자 40여명을 초청, 전방견학 및 사찰참배를 실시했다.



◇대담을 나누고있는 조명훈박사(사진 왼쪽)와 연기영 교수.

"자비심이 통일 원동력"

독 광법사 새신도회장 조 명 훈 박사

"독일의 통일을 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통일'이란 언어에서만 가능할 뿐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일의 원동력은 합리성 보다는 '정(情)'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일 함브르크에 있는 유일한 한국 포교당 광법사의 신도회장인 조명훈박사(함브르크대 정치학)는 '한독법률학회' 세미나차 독일을 방문한 연기영교수(동국대·교수불자련 사무총장)와 6월 12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인 그는 분단된 한반도의 해법으로 '정(情)'과 '사랑'을 강조했다.

조박사는 "자비심 뿐 아니라 '연기설'도 통일에 힘이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이 사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불교가 실천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한국불교계가 통일·환경 등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명훈박사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독일인의 정서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동·서독간에 경제·문화 등의 차이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수려한 산과 사찰은 통일 후 한민족의 정서를 화합하고 순화시켜 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라며 통일을 위해 불교의 소중한 자산인 사찰 환경을 잘 보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욱〉

"재활용품 마음에 들어요"



Focus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선재동자들이 '우리 경제 살리기'와 '환경 보호'에 나섰다.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이무열)와 연화어머니회(회장 한상옥)는 6월 26일~27일 자녀들에게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일깨우고 환경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재활용 알뜰매장'을 교내 시청각교육실과 과학실, 1층 복도에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는 필요치 않으나 남에게는 필요한 학용품, 책, 의류, 완구류, 모자, 신발, 컴퓨터, 스케이트 등을 100원~1000원 상당의 물품교환권으로 사고 팔았다. 수익금은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기에, 남은 물품은 요양원과 재활원 등에 기증된다.

김재경 기자

말기 신부전증 환자 수술비없어 발동동

말기신부전증 환자인 조희정(27)씨가 수술비를 마련치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다.

동생 희숙(24)씨가 신장이식을 해주기 위해 아주대병원에 입원했으나 1천4백만원이 들어가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에 따르면 부모인 조병식(66세)씨 부부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 장애와 지병속에서 날품팔이로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명나눔실천회
(02) 734-8050-2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우리는 선우 5,000,000원 △진주불교회관 3,301,000원 △성남정토법당 2,000,000원 △송광암 500,000원 △안동여고 250,000원 △성대민주동문회 85지부 200,000원 △동아대 불교학생회 외 9개단체 1,449,740원 △이성제 1,018,160원 △김규호 1,000,000원 △임경수 500,000원 △정남식 외 5,268,420원 △밥한 공기 나누기 운동 1,235,760원 △한끼 굶기 운동 2,916,000원

〈28일 현재 총 575,075,70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한국불교硏 연수원건립 3·7일 기도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은 6월 일 서울 개포동 연구원 법당에서 불교종합연수원 건립 발원 3·7일 기도회향법회를 가졌다.

정병조이사장은 "21일 동안 연수원 건립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달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며 "불사를 권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원기도는 6월 1일 입제식에 이어 매일 새벽5시부터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법문, 정근 등의 순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구원은 금년말까지 서울 근교에 부지를 확정한 후 3년 계획으로 연수원, 법당, 영탑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

게시판

♣ 알림

자원봉사자 열린학교=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21일~23일 고교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열린학교를 개설한다. (02)852-0525

청소년 캠프=동화사부설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는 19일부터 1박2일간 경주 하일라콘도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용기백배 캠프'를 개최한다. 참가비는 2만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15일 접수마감. (053)427-1907

일일출가정진=부산 육주사(주지 현영)는 매주 토~일요일 일일출가정진을 실시한다. 좌선, 주력수행, 간경수행, 참회수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중학생 이상 참가 가능. (051)971-0042

♣ 모집

파출원 교육생=대전 법동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7~11일 제6기 파출원교육을 실시, 참가자를 모집한다. (042)633-1141

♣ 법회

수계대법회=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와 대구광역시신도회(회장 최동원)는 16일 오후2시 대구 삼덕동 관음사에서 합동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053)253-2886

♣ 이전

(사)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은 최근 〈한국의 불화〉 편찬실을 마포구 마포동 195-10 백산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전화(02)703-6830, 팩스 (02)715-6831

♣ 부음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의 모친 최점례씨가 84세를 일기로 6월 26일 오후3시 타계했다. 고인은 28일 강남성모병원에서 발인돼 군산 미룡동 선산에 안치됐다.

대한불교 총화종 금강계단 국제보살 수계 산림 대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단에서는 창종 31주년을 맞이하여 불심을 돈독히 하고 소외된 종심을 하나로 모아 대승보살계를 수지하는 공덕으로 탐욕과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한 보살행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를 정화하여 불국정토건설에 정진하고자 금강계단 국제보살 수계 법요식을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1년 6월 일

三和尙
傳戒阿闍梨 : 冶翁 相潤
羯磨阿闍梨 : 圓悟 東光
敎授阿闍梨 : 玄翁 南亭

證師
痴翁 華潭 慧雲 尹赫 慧晏 曉鍾
隱巖 晩隱 法潭 靑海 東仁 淨松
右引禮師 : 深潭 萬悟
右引禮師 : 眞翁 一峰

外國證師
印 度 : Dr. KaKa Palliye. Anuruddha(印度佛敎大學叢書겸 大覺會總裁
日 本 : 池蓮 瑩輝(日本眞言宗 大僧正 겸 日韓 佛敎協議會顧問)
스리랑카 : Udupihille seelawansa(스리랑카 佛敎聯合會 會長)
Ginnaliye Ayupala Tero(스리랑카 佛敎聯合會 事務總長)

봉행위원장 : 전남정
봉행위원 : 박용운, 최혜산, 서혜명, 주인현, 유월암, 장대범, 김법은, 김대평, 박금산, 권각신, 남법전, 송송광, 정대경, 박도원, 장혜운, 양만은, 박청해, 이정송, 김혜진, 손우웅
집행위원장 : 김화담
집행위원 : 이만오, 장일봉, 박대현, 황성문, 백동오, 최해정, 유석화, 이금오 조고담, 김혜암, 남원우, 이고담, 이범희, 맹성오, 신정오, 박지산
추진위원장 : 정혜안
추진위원 : 오남표, 기복성, 이형복 김만월, 김문곡, 김만각, 최만재, 박달막, 안정순
후 원 : 학교법인 문화학원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교계언론사

■ 일 시 : 불기 2541(1997)년 7월 15일(음 6.11)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연락처 : 법회장 02)240-8701~3 주최측(총무원) 02)742-8895

대한불교총화종 금강계단장(총무원장) 전남정 합장

금 강 산 건 봉 사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수호 봉정 결성 대법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스리랑카에만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스리랑카 캔디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치아사리는 부처님의 윗어금니 제 4번째이며, 금강산 건봉사 보궁과 사리함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7과는 부처님의 위아래 어금니입니다.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항상 친견하여 그 가피와 법력을 얻고자 하는 우리 불자들은 이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진신을 잘 수호하고 봉정하여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강산 건봉사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수호 봉정 결성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정축년(97년) 7월 12일(土) ~ 13일(日)(1박2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금강산 건봉사 Tel. 0392-682-4946)
● 서울연락처 :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302호
한국불교 해외전법회(Tel. 741-0495~6)

정축년 6 월 24 일

금강산 건봉사 부처님 진신 치아
사리 수호 봉정 결성 대법회 후원회 합장

탐방 | 유니텔 불교동호회

회원 1천명 '사이버 법당'

건축·요리사등 전문직활용 보살행
PC통신서 정보교류…소모임 활발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산87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보육원). 6월15일 송암동산의 초·중·고등학생 40명은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PC통신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김희정·이하 유불동) 회원 30명이 찾아와 친형처럼 놀아주고 얘기도 나눠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불동 회원들은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고 유용한 프로그램도 깔아주는등 봉사활동을 펼치면서도 원생들과의 다정한 대화를 잊지 않았다. 특히 가구점을 운영하는 박종운회원은 사재로 10개의 방에 놓여있는 이불장과 사물함을 붙박이로 새로 만들어주기로 해 원생들의 보금자리가 더욱 깨끗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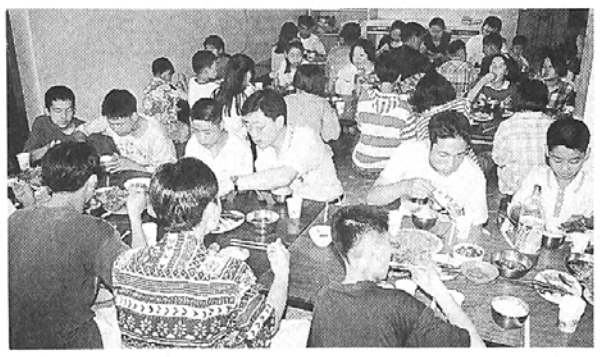
유불동은 지난해 5월23일 개설된 PC통신 유니텔의 사이버공간 '부처님나라'에서 만난 불자들이 만든 친목모임이다. 96년 7월6일 유니텔 고객센터에서 범현스님(김제 국신사)과 김희정회장 등 14명이 첫 모임을 가진지 1년만에 회원 1천명을 돌파했다. 회원들의 절반은 직원ID를 가진 삼성그룹 계열사 사원들이지만 나머지는 중소기업 사장, 의사, 건축사, 요리사, 컴퓨터프로그래머,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불교동호회가 학생위주로 구성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유불동은 PC통신상에서 수시로 불교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다양한 소모임 즉, 봉사활동·불교공부·성지순례모임 등으로 크게 나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라호텔 외식부 요리사 장적덕씨의 원력으로 지난 4월13일 구성된 봉사모임은 매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 회원 각자의 특기를 살려 자장면·탕수육 제공, 가전제품·컴퓨터·가구 수리 등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4일 발족한 불교공부모임은 월 2회 연화사 묘장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열고 있으며, 경전강좌, 선 강좌를 개설해 지속적인 불교공부를 돕고 있다. 또 순례모임은 지난 5월3일 경주 남산에서 첫 모임을 가진 후 매달 불교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있다.

유불동은 이밖에도 연1회의 정기모임, 지역모임, 전통차모임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행과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유니텔불교동호회는 매달 셋째주 일요일 보육원 송암동산을 방문해 원생들과 정겨운 하루를 보낸다. 사진은 6월15일 원생들과 함께 한 '불고기파티' 장면.



보명정사 법회

7개 불교국 대사 '예불'

선학원 보명정사(주지 상원)는 19일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스리랑카 세레비나트나 대사, 미얀마 유폰 미인트 대사를 비롯 태국 인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7개국 대사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회에는 비푸라사라 세계승가회 사무총장, 원융종 총무원장 보인스님, 가수 김태곤씨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비구니 사찰인 보명정사는 15년전 스리랑카 최초의 사찰인 이스루무니에서 부처님 사리 1과를 모셔와 매년 음력 5월 15일에 기념법회를 열어왔다.

한편 주지 상원스님은 지난해 스리랑카 최초로 사미니 10명을 배출시키기도 했다. 96년 12월8일 녹야원에서 서웅스님을 계사로 이들에게 사미니계를 수여하고 인도 승가대학 입학을 주선한 상원스님은 현재 학비전액을 지원하는등 스리랑카 불교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MBC불교연구회가 잇달아 창립되고 있다. 서울 대구에 이어 부산MBC불교연구회가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창립준비위원인 부산MBC 총무국 김종환차장은 6월 25일 "현재 각국별로 회람을 돌려 가입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발기인을 확보하는대로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BC불교硏 잇단 창립
서울·대구이어 부산준비

서울MBC불교硏 장영효 총무는 "부산지역이 불교세가 센 만큼 회원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창립법회는 3개 불교회가 합동으로 봉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MBC불교연구회는 서울 110명, 대구 50명의 회원이 보이지 않는 영상포교를 펼치고 있다.

이번 부산MBC불교硏 발족에 따라 지역방송국 불교모임이 연이어 창립될 전망이다.

"고사리손으로 모은 10만5천원"

보명사유치원 북한어린이돕기 바자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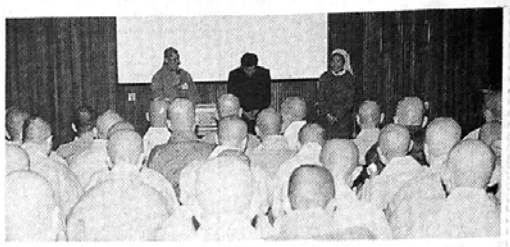
새싹불자들이 북한어린이돕기에 나서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보명사 보명유치원(원장 응현스님)은 27일 북한어린이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시장놀이(알뜰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장놀이에는 장난감, 의류, 신발, 문구류, 책 등 어린이용품이 1천원에 팔렸다.

"북한 친구들은 하루 한끼도 먹지 못해 굶어죽고 있어요"라는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조진우(7·자비반) 어린이는 "천원이면 북한 친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나요"라며 고사리 손으로 꼬깃꼬깃하게 접은 1천원을 내밀었다.

자비반 정정임선생님은 "보시행을 일러주기 위해 시장놀이를 통한 북한 어린이돕기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명사유치원은 시장놀이를 통해 모아진 북한어린이돕기 성금 10만5천원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28일 전달했다.





조계종 직할사암 주지연수회

97년도 조계종 직할사암 주지 연수교육이 6월 26~27일 이틀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됐다. 모두 73명의 직할사암 주지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교육은 현장실습도 실시됐다. 또 '사찰의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주제로 특강, 사찰 포교 프로그램 운용 및 종무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특히 천주교 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를 방문, 불교복지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25돌 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회장 엄영건)는 6월24일 부산 통도사포교원 2층법당에서 창립 25주년 총회와 기념법회를 성오스님 정관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성오스님은 "모든 불교활동이나 모임은 궁극적으로 본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하고 거사림회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더욱 실천궁행하는 불자가 되자"고 법문했다.



통도사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기행'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 국제포교부는 6월21일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을 마련, 외국인 20명에게 통도사의 가람배치 원리를 풍수지리와 음양이론으로 설명하는 등 전통불교문화를 소개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수안스님을 방문, 선화의 진수를 경험하고 화보집을 증정받기도 했다. 이 문화기행은 매주 토요일마다 사찰순례, 발우공양 등을 통해 우리 불교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국제포교의 장이 될 전망.



대불련등 '6·25 민족화해의날' 선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6월25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회장 강승인), 전국가톨릭대학생협의회(회장 고동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회장 권순일)과 공동으로 '6·25 민족화해의 날' 선포대회를 가졌다. 이날 선포대회에서는 "민족화해의 날을 선언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북녘동포돕기운동과 민족화해·통일을 위한 실천운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 모임에선

전국불자교정인련 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5,6일 대전 광수사(주지 세운)에서 1박2일간 수련법회를 갖는다. 서울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지부에 34개 지회를 조직, 1800명의 교도관 회원을 확보한 연합회는 이번 창립 3주년 기념 수련회를 통해 효율적인 재소자 불자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02)605-3535

광주불교산악회 산상법회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이재삼)는 13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합동 산상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법회에는 손현수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회장과 서울동부불교산악회, 부산·마산·양산·고성불교산악회 회원 4백여명이 함께 참석, 청정국토 가꾸기를 발원한다. 오전 9시30분 무등산 광륵사 입구에서 집합. (062)525-9494

'맑고향기…' 서울모임 수련

맑고향기룹게 서울모임(본부장 윤청광)은 8월 7일~10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2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절대 침묵과 참선정진, 고승 법문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수련회에는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할 예정. 수련회비는 8만원이며 참석자는 7월5일까지 신청. (02)741-4696

생명나눔회 충남지부 창립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 충남지부(지부장 조문호 서광유치원원장)는 7월1일 서산시민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충남지부 창립은 대구·경북에 이은 두번째. 이날 법회에는 도신스님, 장미화·이남이씨의 공연에 이어 석주 원담 증광스님의 기금마련 작품전도 열렸다.

제주운불련 순례코스 개발

제주불교운전기사회(회장 김익종)는 최근 불자들을 위한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순례코스는 존자암 불탑사 법화사 관음사 천왕사 불사리탑 광명사 약천사 등 유명사찰과 고찰터. 불자들에게는 요금의 15%를 할인해 준다. (064)51-0108

서울구치소 성지순례

서울구치소불심회(회원 임장수)는 6월 29일 경기 신록사·용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교도관 120명이 동참, 산사를 참배하고 재소자 교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불기협 선원사지 답사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 문화유적답사분과는 6일 강화 선원사지로 제1차 답사를 떠난다. 회원들은 선원사 유물관을 관람하고 폐사지 유물 발굴·조사를 위한 실수(實修)도 갖는다. 오전 9시 조계사에서 출발. (02)725-7014

千佛同 여름수련회

천리안불교동호회(대표시삽 박수로)는 19,20일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정사(주지 법안)에서 여름수련회를 갖는다. 108배, 사찰예절교육, 좌선, 주지스님 법문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수련회의 특징은 백제불교를 되짚어 보는 것. 왕궁리, 미륵사지, 연동리석불좌상 등의 답사를 통해 옛백제지역에 널리 퍼진 미륵신앙에 대해 토론도 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7 학년도 동산불교 대학 신입생 모 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법화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성본스님(동국대교수), 한정섭(상락향원장), 박종(인성개발원장),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압도스님(전포교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전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3. 모집 방법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1997년 6월15일~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 일시 : 1997년 8월2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732-1206~8, FAX : 732-1207)
(〒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겔러리4층)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 대전 : 보문서점(257-0161)
◎ 광주 : 불일서점(232-7542)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97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야간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 국 어 과	2년	·주간 ·야간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7월 18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 당일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511-2026~8
본교 수행도량 해인사 : 953-2782~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2026 팩스 : 511-1080

법회안내

감로사(051)809-0926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3천배 회향기도 매년 2월10일~14일(음) 오전10시30분
백중기도 매년 6월1일~7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혜총스님

방배동 광명선원(02)584-1108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문사수(중·고)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5시
거사림(남자신도)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7시30분


◇주지 초격스님

천중사(02)914-3558
신중기도 및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참회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철야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8시
가족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중앙대 대불련 동문법회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계룡산 자광사(042)822-9219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화엄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성지순례 매월15일(음) 오전6시
교양대학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거사림법회 매주 첫째·셋째 수요일 오후7시
철야기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오후7시
화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속초 원각사(0392)33-3895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고불학생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대불학생회 매주 목요일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월요일 저녁7시
담마회 매월14·24일 오후6시
금강회 매월10일(양) 저녁7시
거사림회 매월 둘째주수요일 저녁7시
군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참스승 善道로 이끌어 공경에 보답

최근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접수 기록장이 사회에 충격을 준데 이어, 소녀가장인 제자에게 보내 온 거액의 후원금을 가로챈 모 중학교 교사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아우성 속에서 교육방송 뇌물사건 등 연일 교육관련 비리가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사표가 될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을 통해 참 스승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측은히 여기며 가르쳐야 한다. 다섯가지란 학문을 배우게 하며, 지극한 기예(技藝)를 가르치며, 배움에 민첩케 하며, 선도(善道)를 가지고 인도하며, 현명한 친구를 따르게 함이다. 〈선생자경〉

▨제자에게 다음 같은 다섯가지 일이 있을 때는 꾸짖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첫째는 신심이 없음이요, 둘째는 게으름이요, 셋째는 거친 말이요, 넷째는 부끄러움이 없음이요, 다섯째는 악지식(惡知識)과 가까이 지냄이다. 다만 다섯가지 일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라도 다 꾸짖어 가르쳐야 한다. 〈유부근본비나야율〉

▨스승은 공양과 공경을 받고서 다음의 다섯가지 일로 보답하는데, 속히 가르쳐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고, 다 가르쳐서 모자람이 없게 하며, 제자가 자신을 능가함에 질투하지 않으며, 엄한 스승과 착한 벗을 소개해 주며, 임종에 이르러 재물을 주는 것이다. 〈우바새계경〉

▨내가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다. 나는 다만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고, 그들의 행을 보고 '마침내 너는 번뇌가 없어지고 열반에 도달하였다'라고 인정할 따름이다. 〈중아함 산수목건련경〉

▨스승은 다섯가지 일로 제자를 돌보아야 한다. 첫째는 불법에 의지해 조어(調御)함이요, 둘째는 그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침이요, 셋째는 그 질문하는 바를 따라 망념을 잘 풀어줌이요, 넷째는 그 선지식임을 보여줌이요, 다섯째는 자기의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아끼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곧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보살계를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피안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곧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니 모든 번뇌의 근심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대방광불화엄경〉

▨다섯가지의 꾸짖는 법이 있으니 함께 말하지 않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가려서 가르쳐 주지 않음, 그가 바치는 것을 받지 않음, 착한 이를 칭찬하지 않음, 의지가 되어주지 않음이니라.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선지식의 힘은 범행(範行; 청정한 행위)이 전부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내가 말한 모든 법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잘 보호하여 부지런히 닦아 익혀 잊지 않도록 하라. 〈대반열반경〉

▨큰 스승을 공양하고자 하면 부모님께 공양하라. 부모가 바로 위대한 스승이니라. 〈별역잡아함경〉

무진장스님 불교입문 강의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조계종 국청회(회장 김일성)는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성도 그리고 열반까지 부처님의 생애와 사성제·팔정도·연기설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불교입문강좌를 마련했다. 초심자들을 위한 이번 강좌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리며 9월26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열린다. 강의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이 진행. 수강료 월 3만원. (02)730-1250

비구니스님과 가족수련

중앙승가대학교 비구니수행관(관장 본각스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로 제3회 여름가족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유형문화재 마애석불 관음보살상이 봉안된 유서 깊은 도량 보타사에서 실시되는 이번 가족수련법회는 수행관의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

수련기간 중에는 종범스님(도서관장), 종석스님(불교학과장), 본각스님(보타사 주지)의 특강도 마련한다. 12일 오후6시에 입재해 13일 오후9시에 회향하는 이번 가족 수련법회에 동참할 불자가족은 수행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02)923-4067


◇중앙승가대 비구니수행관은 12일부터 1박2일간 여름가족수련법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수련법회 장면.

신행수첩

티벳고승 도닥스님 초청

대구 여래한방병원(원장 김시연)은 5일~7일 티벳고승 도닥 라마스님 초청법회를 연다.

이번 법회에서 티벳 한의학의 권위자인 도닥 라마스님은 불자들의 육체적인 병을 진단·치료하고 정신적인 평안을 얻게 할 예정이다.
(053)655-3027

황소부대장병들 "법당서 예불 올렸으면…"

"최소 2백여명이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모시고, 군생활에 충실하며 불법을 실천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육군 황소부대 이준희 지도법사를 비롯한 장병불자들은 수계식이나 법회를 봉행하려 해도 30명 남짓 예불을 올릴수 있는 협소한 공간 때문에 돌아가는 불자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불사에 동참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수 없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라도 성의껏 동참하면 업장소멸은 물론 무한한 공덕을 받는다고 부처님은 가르쳤다.

청정심을 길러 제대후에도 계속 정진하는 재가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 장병들에게 많은 불자들이 보시 정신을 발휘 동참, 회향하는 인연을 지어보자.
(0361)241-6110

선암사 어린이 숲속학교

부산 선암사(주지 혜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명상교실, 연극교실, 창작법회, 주말농장, 진흙밟기, 별자리 이야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숲속학교를 연다. (051)803-7573

자원봉사 지도자양성 강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산하 교양대학에서는 4, 5일 조계사 강의실에서 불교 자원봉사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기초 강좌를 연다.

불교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일화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자원봉사 모집·훈련·관리 △자원봉사 관리 사례 발표 등의 내용을 이재택(좋은 아버지 되기 모임) 이성록(대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씨가 각각 강의한다. (02)723-5101

송광사복지관 수상캠프

불교중앙교원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은 22일부터 23일까지 전남 곡성 유풍 관광농원에서 97 여름 수상캠프 '첨벙첨벙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저소득층 자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야간 담력훈련' '별밤 축제' '첨벙첨벙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극기훈련을 통해 어린이 인성 개발과 인내심 함양을 위한 취지로 마련. (062)941-8248

나의 수행일기


신 인 항

"마음에 병 없어야 진짜 건강"

가족합심 관음정근 3년만에 간경화 치료

내 나이 35세였던 1977년 8월 15일 새벽, 경북대병원 간호사실에서 무심코 들여다본 나의 병상일지(챠트)에서 며칠 전 실시한 간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영문으로 "간세포가 부풀어 있으며, 섬유질화 되어가고 있다"고. 심상치않은 느낌이어서 생화학실에 문의하니 그게 "간경화의 초기현상"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그해 봄, 나의 부친께서 3일간의 끊임없는 각혈과 하혈로 병상을 피로 물들이며 숨을 거두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님의 생명을 앗아간 그 간경화를 물려받게 되다니!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의 해결방법은 자살이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주치의는 나를 찾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요지는 "인간의 삶과 죽음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못고치는 것도 신의 뜻이다. 오로지 신에게 구원을 기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 이튿날 아침 병상에서 염주를 들고 "병이 들었음은 마음이 병을 만들었음이며, 마음에 병이 없으면 병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음미하고 있을 때 원목이 들어와서 나를 찾았다. 그리고 염주를 들고 있는 나를 보더니 잘못 찾아왔다면서 도로 나가는 것이었다. 주치의가 내게 보냈을 것이다. 여러가지 생각끝에 자살을 포기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간의 혈고 병든 곳을 자비로운 손길로 뜯어내고, 새 살을 돋아나게 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훈련을 하였다.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바른자세로 오로지 내 간을 재생시키시는 관세음보살님을 그려보며 정근을 하였다. 쉽지 않았다.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외우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느새 내가 죽는 모습, 공사판에서 잡부일을 하는 찌든 내 아내,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졸라대는 남루한 어린 자식들 모습이 자리를 잡는 것이었다. 이 험한 모습들을 지우고 다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일을 되풀이하다보니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아내는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모셔놓고 매일 조석으로 헤일 수 없이 절을 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구미 금오산 정상에 있는 약사암을 찾아 밤새워 절하면서 나의 구원을 빌었다.

투병 3년 가까이 된 겨울날, 눈이 유난히도 많이 내려 한치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길에 발길 닿는대로 갔더니 절이었고, 밤새도록 예불 올리고 새벽녘 잠시 눈을 붙였을 때, 크고 거룩한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네 남편은 이제 다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제 다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더란다. 놀라 일어나니 법당 부처님이 산처럼 크게 보이며, 온몸에 전율이 오고 힘이 솟더란다.

이 무렵 나는 살이 찌기 시작했다. 나의 간질환을 최초로 확인한 이중기박사(당시 대구 국군통합병원 내과부장·현재 파티마병원 근무)를 찾았다. 이박사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승리요. 나는 회생불가라 생각했었오"라고 말했고, 나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덤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체험한 고행은 나를 각성시켜 불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느끼는 삶과 죽음에 대한 명상. 그로 인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덕분에 살아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날마다 정진을 쉬지 않고 있다.

매주 교내 충정호국사에서 법회와 예불, 참선정진을 하고 휴가 때는 빠짐없이 전국의 명산대찰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대령〉



선불교의 전체 모습을 조감할 수 있는 100가지의 항목을 선정하여, 선사(禪師)·선종사·선의 각 종파·문헌·주요 공안·사상·문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조명한다.

신국판/전2권/
각 8,000원

一指 지음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선의 기원과 선종의 역사, 공안·화두·총림·깨달음·청규·법맥·방과 할·좌선의 방법·선어록·오도송·간화선과 묵조선 등 선의 중요개념, 임제종·조동종을 비롯한 각 종파, 송-명대의 선·현대 중국의 선·일본의 선·서양의 선·한국의 선·현대의 선 등 선의 중요한 흐름, 달마를 비롯해 혜능·백장·마조·임제 등 중국선의 거장으로부터 일본의 여러 선사들은 물론 우리의 성철 선사에 이르기까지 선의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대원정사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편집부 : (02)752-7047, 영업부 : (02)757-6717


100문 100답
불교입문편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누구나 알기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원정사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일반불교인은 물론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일깨워주는 가장 뛰어난 입문서.
·값 4,000원
-15만부 돌파


100문 100답
불교강좌편
100문 100답 불교입문편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불교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교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한 책. 현대적 안목으로 불교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전문적 입문서.
·값 7,000원
-5만부 돌파

학인모집안내

21세기 불교 최고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7월 1일 ~ 8월 15일(후기)
2.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
3. 전공과목 : ① 무량의경 ② 묘법연화경 ③ 관, 보현 보살 행법경 ④ 기타, 교양특강
4. 보집구분 : ① 출 강 반 (부산) : 수·금요일 등교 ② 통 신 반 (전국) : 넷째 일요일 등교
5. 교육기간 : 2년 (4학기) 출강, 통신반 동일
6.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오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교양대(강원) 개원시 지원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광 영 (공덕)
(우)701-600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문의전화 대구강의실 : (053)952-8711
부산강의실 : (051)633-6224
교 수 직 통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안내서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단위조직 구독 신청

단위조직명	연락처
부 산 지 사	051-634-5114
광 주 지 사	062-375-9986
대 구 지 사	053-768-8008
목 포 지 국	0631-281-2534
속 초 지 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제 주 지 사	064-55-9800
강 릉 지 사	0391-651-9317
인 천 지 사	032-461-3461
춘 천 지 사	0361-241-0633
고 양 지 국	0344-912-2323
영 주 지 국	0572-34-3429
대 전 지 사	042-625-1080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 주 지 국	0416-55-0020
고 성 지 국	0556-72-0078
안 산 지 사	0345-408-0961
진 주 지 사	0591-747-0106

불자 세상보기

돈정치 추방에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실련 경불련 여성민우회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들로 구성된 '돈정치 추방 시민연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시민연대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또는 기부하면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제한 및 당선무효,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금지, 정당지정·비지정 기탁금제 폐지, 정치

정치자금법등 개정청원
경실련등 44개 시민단체

자금 기부자의 공개 등 벌칙강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당원명부의 공개 및 당비 납부 의무강화, 당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 공직후보 추천, 교원의 정당가입자격 완화 등.

선거부정방지법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허용, 정당·개인연설회 폐지, 투표장 1백미터에서 출구여론조사 허용, 전국구제도 폐지하고 정당투표지 도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보장 등.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준사법권 부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거감독관 제도의 도입.

유엔환경특별총회 '푸른지구 지키기'

국가 이기주의 팽배

金대통령 '남북협력 DMZ 보존' 제의

세계 185개국 정상 및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유엔환경특별총회(6월 24~27일)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총회 첫날 '세계화시대의 환경협력'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유지와 환경생명의 모범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남북한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DMZ 생태계보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김대통령은 또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출과 관련, "지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오염의 월경성(越境性)을 크게 경계한다"며 우리 정부의 반대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번 유엔환경특별총회는 92년 리우환경특별회의에서 선언한 '의제21'의 실천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행동강령 채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지구환경보존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푸른 지구 가꾸기'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에서는 자국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통령이 제의한 핵폐기물 국외반출 반대에 대해서 미국 일본 등은 처리시설을 갖춘 나라로 옮겨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개발한 환경기술과 제품을 비싸게 사다 쓰는 현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리우회의 이후에도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되었다. 삼림훼손은 매년 남미의 온두라스만한 면적인 1천1백30만ha가 사라졌다. 같은 기간 5만종의 동식물이 멸종됐다.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배출증가로 95년 세계 평균기온이 섭씨 15.39도로 최고기록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김대통령의 연설은 비무장지대의 그린벨트화, 핵폐기물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내의 환경문제이다. 다이옥신 오존 미세먼지 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내의 환경문제를 무시한다면 환경외교는 고사하고 환경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정성운 기자



◇세계 185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해 열린 유엔 환경특별총회에서 김영삼대통령이 DMZ 생태계보존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제의했다.

불교의 눈

"서로 화합해야 위기 극복"

경전 곳곳에서는 환경보호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을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회향품〉

화합을 당부하는 가르침은 국가간의 의견차이가 극심한 오늘을 향한 가르침이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며,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제16〉

지계 — 금주 — 파계

자자체-상공인 회사 공동설립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상공인들과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5월 24일 현재 공동설립한 무역회사는 경남무역 경북통상 제주교역 전남무역 전북종합무역 등 5개. 강원도와 충남도는 회사설립을 검토중이다.

항공의용소방대 구재활동

●…시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119활동을 벌이는 항공의용소방대가 27일 출범했다. 초경량항공기 동호인 모임인 '대우항공' 소속 동호인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는 12명이 나선 것. 이들은 인천시 옹진군 관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송, 해상오염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인다.

선친추모 가족 시문집 펴내

●…가족들이 선친을 기리는 추모시문집 〈은몽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이계석부의장 삼형제와 가족들. 이 책에는 이씨의 선친이 남긴 한시 7백수와 기행문, 후손들의 추모글, 삽화 등이 실려 있다. 이 부의장은 "선친의 자식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북돕기 성금 전달

●…한국노총은 28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포크 페스티벌 '희망 97'을 열고 공연수익금 전액을 북동포돕기 성금으로 전달키로 했다. 출연한 연예인들도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3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식량을 보내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잠수함침투 현장 무료진료

●…아산재단 강릉병원과 농협중앙회는 23일 6·25 47주년을 맞아 지난해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의 현장인 강릉시 안인진리 해안마을에서 무료진료활동을 펼쳤다. 안인진리 주민 1백여명과 인근 군부대 장병 60여명이 무료진료를 받았다.

서울대 아이디어 창업지원

●…서울대가 대학생들의 창업지원에 나섰다. 서울대는 25일 '신기술 창업 네트워크'를 대학 최초로 설립했다. 대학생들이 창업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최고 3억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와 대학에서 발벗고 돕는다니 기대가 크다"며 환영하고 있다.

구의원 주차장 불법낙찰

●…구의원, 구청공무원, 주차장업자 등 16명이 결탁해 강남구청 관내 노상주차장을 불법으로 낙찰받아 운영해오다 24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강남구청 관내 31개 노상주차장 가운데 27개소를 사전담합 수법으로 낙찰받았으며, 구청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댓가로 3천6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염산처리 파래없는 김 '주의'

●…파래없고 새까맣고 푸석푸석한 김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김에 잡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공업용 염산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다. 서울지검은 23일 김의 성분분석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전 수산가공과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김에 파래가 섞여 있는 김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일가족 음란CD 복제 판매

●…일가족 4명이 음란 CD롬을 대량복제해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25일 김모씨(47.여)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들과 언니 조카를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시가 3천9백만원 상당의 음란 CD롬 등을 무단복제한 뒤 컴퓨터통신망에 광고를 내고 우편으로 중고생들에게 판매해왔다.

육군중사 5억대 횡령 도주

●…육군중사가 5억5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도주했다. 육군은 24일 민간인에게 돌려줄 사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중앙경리단 이모중사를 수배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사 수임료 횡포심하다

●…법률지식을 모르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들에게도 횡포를 당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법무사서비스업무와 관련한 불만사례 가운데 수임료 과다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관련 업무수임시 수임료 기준금액보다 평균 2백87%나 높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탕주의가 저지른 살인극

●…한탕주의가 또 끔직한 살인극을 불렀다. 일식집주인을 납치살해, 암매장한 범인 3명이 25일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압구정동에서 고급차를 몰고다니는 부자를 납치해 한탕하자고 모의했다"고 말했다.

불교 성지 - '직접 체험'



세연여행사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한국사찰 녹야원서 요가·명상 수행
인도스님 초청 불교역사 특별강연

인도 현지에서 인도인의 정신과 혼을 배우고 세계속의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성지순례 테마상품이 나왔다. 최근 세연여행사가 선보인 '인도·네팔 불교성지 순례 및 수련대회'는 목적성 배낭여행보다는 정형화되고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는 실속형이며 여행자가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행상품인 것이다.

불교의 성지순례를 통해 불교인에게는 불교의 근본 도량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고 비불교인에게는 인도와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체험하도록 하는 '제1회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및 수련'상품은 단순히 인도의 불교성지를 둘러보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룸비니, 처음으로 설법을 행했다는 사르나트, 45년간 각지를 돌며 설법을 한후 80세에 입적한 곳 쿠시나가르등 불교의 유명 성지를 둘러보는 것은 물론 인도내 최초의 한국사원 녹야원에서 인도의 전통 명상법인 위빠사나의 입문, 요가 실습체험등 실제 수행을 하게된다.

11박12일 일정의 이번 행사는 7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는데 1차 7월 22일, 2차 8월 5일, 3차 8월 26일, 4차 9월 13일 각각 출발하며 수련행사가 치러지는 녹야원은 석가모니의 초전법륜지로 인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불교 성지인 바라나시에 위치한 최초의 한국사원으로 인도인들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한국과 인도를 연결시켜주는 창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연구원과 한방 무료 침술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참석자들에게 불교 교리의 이해와 더불어 인도와 세계 불교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 세연여행사 이효주차장 02-738-5781, 738-1303)

● 수련대회 일정표 ●

일자	행 선 지	일 정
1	서울/델리	뉴델리 도착
2	델리/바라나시	입제식 및 초전법륜탑 참배 위빠사나의 입문
3	바라나시	인도 불교의 역사(인도 불교 철학 교수) 인도 민속 고전무용단 공연 인도인과의 대화 겐지스강 가트순례 인도 불교의 현황
4	바라나시	요가강좌 및 실습 티벳 불교 입문 인도 고전 음악 연주회
5	바라나시/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대탑 참배 및 108배
6	보드가야	예불 및 참선(성도의 배경과 의의) 전정각산 순례
7	보드가야/파트나	법화경의 성지 라지기르 영취산, 죽림정사 순례
8	파트나/쿠시나가르	유마경의 성지 바이살리, 부처님열반지, 다비터, 최후설법지 순례
9	쿠시나가르/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 순례
10	룸비니/스라바스티	카필라바스투, 기원정사, 앙굴라마라 동굴 순례
11	스라바스티/델리	델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문화 유적 순례
12	델리/서울	서울도착

시론

촌지 기록부 '유감'

교재채택료 비리로 교육방송 고위관계자들이 혼줄이 난 데 이어 교사 촌지문제가 터져나왔다. 우선 고생하는 교사들이 무고하게 휩쓸려 욕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 촌지가 주로 도시 중산층 지역의 문제임을 밝혀두자. 예컨대 농촌지역이나 빈민층 거주지역에서 촌지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교사로 찍힌 '참교사'

5공화국 6공화국 시절에 이른바 문제교사 식별법이라는 지침이 교육청에서 학교장들에게 하달된 적이 있었다. 그 의식화 교사 식별법의 첫항목이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였다. 촌지를 거부하는 교사는 일단 사상이 불온한 의식화 교사로 간주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 해프닝은 교직사회에서 교육관료들의 의식 속에서 촌지가 얼마나 당연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교사는 당연히 촌지를 요구하고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교사는 문제교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직사회,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크게 달라져 있지 않다. 그래서 촌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문제교사들은 서울 강남의 학교로 전근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촌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고립되고, 별난 족속이라는 듯 바라보는 교장 교감의 시선을 감수해야 하며, 촌지를 주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못받겠다느니 받으라느니 귀찮은 실갱이를 벌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를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는데 익숙해진 아이들과 싸워야 한다.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다.



김 진 경
〈시인·교육평론가〉

왜 촌지가 이렇게 일반화된 것일까? 첫째는 웬만한 부패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심화된 우리 사회 부패구조의 반영일 것이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패 비리가 일상화되다 보니 10만원 정도의 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의식의 마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촌지는 그 액수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그것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자체가 파괴된다. 그렇기 때문에 촌지 문제는 부패비리 일반으로서보다는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역시 크게는 교사 학부모의 자성을 통해서 푸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교가 대학입시에 매여 입시산업화한 데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 학교의 입시산업화는 교육관료사회의 상층부터 아래까지 일종의 이권커넥션을 만들어낸다. 촌지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촌지를 챙기는 기업형 촌지 수수는 주로 집안에 교육관료가 있거나 진급하기 위해 위에 줄을 대고 있는 교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교육관료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권커넥션의 관행들 그러한 관행의 여파로 나타나는 기업형 촌지수수는 엄단되어야 할 것이다.

촌지를 억지로 떠안기는 학부모에게 이후 촌지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돈으로 반 아이들에게 책을 한권씩 사주는 것이다. 촌지가 자신의 아이에게만 알게 모르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촌지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고려나 교육적 고려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적 자성 또한 긴요하다.

학부모들의 교육적 자성

세번째로는 교사의 경제적 처우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혼자 버는 경우는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다. 대도시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80년대에는 교사들의 채택료 안받기, 촌지 안받기, 보충 자율학습 안하기 운동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다. 지금은 촌지나 채택료를 안받는 이른바 문제교사들도 그러한 운동을 벌일 수가 없다. 겸연쩍어 하면서 수동적으로 촌지나 채택료를 받는 동료교사에게 무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봉급만으로 생활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몇달전 국회 교육위 소속의 모 국회의원에게 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촌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봉급도 올려주고 노동조합도 인정해 주어야 하잖아?" 하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촌지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불교달력 전문 생산 인쇄소에서 행사용 부채와 벽걸이 족자를 권해 드립니다."

부채
- 500개 이상 주문 하시면 사찰이름, 주소 및 원하시는 문안을 넣어 드립니다.
- 2,000개 이상 주문시 사진이나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넣어 인쇄해 드리고 출장 촬영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족자
- 원단 : 청·백공단, 적색융단
- 크기 : 90cm × 30cm
- 인쇄 : 금박 및 적색잉크 (경면주사 약간 첨가)
- 내용 : 반야심경, 보왕삼매론, 마음을 다스리는 글 등 20여종

※ 주소 및 기념하시고 싶은 내용을 인쇄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강진정판사 :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전화 (02)269-9755,275-9472 FAX (02)268-2391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⑫

대통의 성불

*어떤 증이 흥양(興陽) 화상에게 물었다.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은 십겁(十劫)의 오랜 세월을 도량에서 참선하고서도 불법(佛法)이 나타나지 않아 성불을 못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리 오랫동안 참선했는데 어째서 성불하지 못했을까요." 흥양이 대답했다. "네가 성불을 못했기 때문이다."

*나 혜개가 말한다. "늙은 오랑캐의 지(知)만 인정하지, 회(會)는 용납하지 않는다. 범부도 지(知)이면 성인(聖人)과 다름없고, 성인도 회(會)라면 범부로 떨어진다.

*송하여 가로되, "몸을 가다듬는 것이 마음을 깨침만 하겠는가. 마음이 선명하면 몸에 근심이 없는 것을. 몸과 마음이 함께 선명하다면, 신선(神仙)이 무엇하러 봉후(封侯)를 찾겠는가.



冀陽讓和尙, 因僧問, 大通智勝佛, 十劫坐道場, 佛法不現前, 不得成佛道時, 如何. 讓曰, 其問甚諦當. 僧云, 既是坐道場, 爲甚麼不得成佛道. 讓曰, 爲伊不成佛. 無學曰, 只許老胡知, 不許老胡會. 凡夫若知卽是聖人, 聖人若會卽是凡夫. 頌曰, 了身何似了心體, 了得心兮身不愁. 若也身心俱了了, 神仙何必更封侯.

대통지승은 아득한 옛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여래(如來)가 되었다. 아들들도 아버지의 감화로 깨달음을 얻어 각각의 국토(國土)에서 법(法)을 설하고 있다. 그 16명 가운데 동방의 아촉불과 서방의 아미타불, 그리고 사바세계의 구원자로 오신 막내 석가모니가 있다. 〈법화경(法華經)〉 화성유품(化城喩品)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통지승이 10겁을 가부좌하여 몸과 마음을 부동(不動)시켜도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도리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보리수 아래의 사자좌를 열고, 천지를 덮는 하늘꽃, 향기로운 바람, 하늘의 북과 음악을 공양하기를 10겁, 마침내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고 열반에 들었다.

학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통지승이 어째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가부좌하고서도 불법을 이루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흥양화상의 대답은 흥미롭다. "듣고보니 그렇구나." 흥양은 학인의 질문을 통해 모르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까. 그런 것같지는 않다. 흥양이 자신의 무지를 확인하거나 무심함을 자책하는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인의 뜬금없는 이의제기, '종을 항아리라고 우기는' 그 몰지각을 은미하게 질책하고 있다. 흥양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한 학인은 여전히 눈을 멀뚱거리며 질문을 반복한다. "어째서 그리 오랫동안 참선하고서도 성불을 못하셨을까요." 답답한 흥양이 참다 못하고 이렇게 일러준다. "爲伊不成佛."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길은 두 갈래이다.

1) "너 때문에 성불을 하지 않았다."

2) "네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 해석은 대통지승의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강조한다. 중생을 고통과 슬픔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예비된 복락의 나라를 유보한 보살과 여래의 숭고한 발원. 차마 성불하지 못하고 사바에 남아있는 그 눈물겨운 비원(悲願).

그런데 이 해석은 아무래도 덤덤하고 밋밋하다. 일반론적 교리를 확인하는데 그쳐, 상식의 허를 찌르고, 실상을 곧바로 일러주는 충격의 기미가 약하다. 나는 두 번째 해석에 기운다.

성불은 애시당초 성취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은 의면적 관찰이나 상대적 의식으로는 다가설 수 없다. 그야말로 은산철벽(銀山鐵壁), 모기가 뚫을 수 없는 철판 소가죽(鐵牛)의 세계. 달마가 9년을 마주하고 있던 벽(壁)이 바로 이곳을 가리킨다. 그래서 혜개는 말한다. "늙은 오랑캐의 지(知)만 인정하지, 회(會)는 용납하지 않는다." 회(會)는 상대적 인식, 너와 나를 갈라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물든 경계. 이에 비해 지(知)는 나를 개입시키지 않고 대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觀) 자각(三昧)의 지속적 파지를 가리킨다.

흥양은 말한다. 모든 혼란은 네가 지(知)를 떠나 회(會)를 일으킴으로써 야기되었다. 성불 여부를 따지는 너의 망상과 분별이 대통지승의 불사의(不思議)한 삼매(三昧)를 교란시키고 있다. 네가 망념(妄念)을 쉬면 법계(法界)는 한맛의 평등(平等)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화두는 맨처음의 조주무자(無字)와 꼭 닮았다.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주는, "네가 딱하게도 불성이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기 때문"(爲他有業識性在)이라고 뒤통수를 쳤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마지막 구절의 문장구조가 爲伊不成佛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심쩍은 얼굴로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을 위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임제는 대통지승의 일을 묻는 학인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불법(佛法)은 본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不生不滅) 것이라, 현전(現前)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불도(佛道) 또한 이미 성취되어 있는 비에 또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네가 성불 못하고 무슨 부처타령"

조주 무자 비슷 "불성이란 허깨비에 홀렸구나"

法數로 배우는 불교

〈22〉

오개(五蓋)



◇범주스님 선화

탐욕·진애·수면·도거·의법 깨달음 막는 다섯가지 장애

어느 여름날, 마을 뒤편에 있는 산속 절 입구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다. 뙤약볕은 내리쬐고 땅에서는 열기가 후끈대니 농부도 소도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좀 쉬면 좋으련만 밭을 한뼘이라도 빨리 갈겠다는 욕심에 힘은 더욱 들었다.

절에는 스님들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정연히 앉아 매미 울음속에서 좌선을 하는 중이었다. 농부는 스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공연히 심술이 일어났다. 소 잔등을 힘껏 때리며 "에이 어느 놈은 복이 없어 이런 더위에 소새끼하고 씨름이나 하고 어느 놈들은 팔자가 좋아 방구석에 앉아 졸기나 하니 분통이 터지는구나"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농부의 이러한 푸념을 스님들이 못들을리 만무했다. 절의 주지스님이 농부를 찾아왔다.

주지 스님은 "그렇게 힘이 드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보지 않으려는가? 내가 자네의 밭을 갈아줄테니 자네는 저 방에 들어가 스님들처럼 하고 있게"라고 말했다. 농부는 신이 났다. 당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밭 가는 쟁기를 스님에게 주고는 선방에 들어가 스님들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런데 웬걸, 조금 있으니까 졸음이 쏟아져 오더니 허리가 뒤틀리고 발이 저리기 시작했다. 힘이들어 다리를 살짝 뻗으려니까 어깨위로 죽비가 날아왔다.

정신이 번쩍난 농부는 자세를 바로하고 다시 견뎌보려 했지만 이만저만한 고통이 아니었다. 농부는 속으로 "아 내가 공연히 멋모르고 들어왔구나. 내 마음대로 밭이나 갈걸"하고 후회를 했다. 그리고 "주지스님은 밭을 잘 갈고 있을까? 도대체 이 스님들은 무엇때문에 이 짓돌을 하고 앉아있단. 이런다고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하고 의심을 했다. 농부는 정말 괴로웠다. 좀이 쑤시고 사지가 마비되는 듯 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겨우 두어 시간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숨소리조차 크게 쉬지 못하니 답답하여 울화가 치밀었다. 이윽고 견디다 못한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감각도 없는 다리로 신발을 신고는 냅다 밭으로 도망쳐 왔다.

이꼴을 본 주지스님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는가, 좀더 앉아 있다 오지 않고. 밭은 내가 이렇게 많이 갈아 놓았네. 소에게 물도 먹여주고 풀도 뜯겨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일이 잘 되더군"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농부는 스님의 이런 말을 듣는지 안듣는지 얼른 쟁기를 가로채더니 다시 밭을 갈기 사작했다. 그리고 얼마나 혼이 났던지 소를 향해 꾸짖는 것이었다. "이놈아, 말 잘들어. 그렇지 않으면 저 지독한 선방에 집어 쳐넣을 테다"

우스개 소리같은 이 얘기속에는 좌선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좋은 교훈이 들어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다섯가지 장애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을 오개(五蓋) 혹은 오장(五障)이라고 하는데 욕심내는 탐욕(貪慾), 성내고 노여워하는 진애(瞋恚), 잠자고 싶은 수면(睡眠), 근심하고 흔들리는 도거(掉擧), 법에 대해 의심하는 의법(疑法)이다.

농부의 밭을 빨리 갈겠다는 욕심, 스님들을 보고 성을 내던 일, 졸던 행위, 괴로워 근심하던 마음, 스님들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의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중생의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가려 지혜의 빛을 잃게 하는 좋지 못한 번뇌의 작용들이다. 좌선은 이러한 것들을 조복받고 끊어서 내면의 광명을 얻어 보겠다고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⑫⓪

불교와 수학

⑮

불교와 무한 ④

김 용 운

"수학의 대상 유한" 기독교적 사유 불교선 '전체=부분' 무한론 인정



사람은 유한의 대상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고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처음 수학의 대상은 우한 세계에 머물고 있다.

유한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때까지 '무한(無限)'의 개념은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것, 설사 정연한 이법(理法)이 지배하고 있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인간은 오직 유한에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질서에 순종하면 된다고 믿어 온 것이다. 그러나 무한의 모습이 수시로 유한의 틈에서 엿보인다. 무한도 유한처럼 합리적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지성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무한'이 합리적인 사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개념(무한이란 무엇인가?)의 파악이 가능하고, 둘째 무한과 무한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야 한다. 무한이 수학(인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기'에 있어서 그들 사이에서 같은 무한, 작은 무한, 큰 무한 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유한 세계의 같음으로부터 생각하자. 두 개의 집합이 같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1대 1의 대응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과 10개와 접시 10개 사이에는 분명히 1대 1의 대응이 생긴다. 야구 시합에서 A팀과 B팀 사이에 같은 아홉 명의 선수가 출전할 때만 그 게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칸토르(G. Cantor)는 1883년 인류 사상 처음으로 무한이 수학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했다. 1, 2, 3, …이라는 가장 단순한 자연수계에도 무한개의 수가 있다. 그 속에는 2, 4, 6,… 이라는 짝수만으로 성립되는 수계(數系)가 있는데, 그것 역시 무한개의 요소가 있다. 그뿐인가. 3, 6, 9, … 등의 3의 배수계, 4의 배수계 … 무한개의 무한집합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한 자연수계 1, 2, 3, … 과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짝수계 또는 3의 배수계 사이에도 1대 1의 대응이 생긴다는 것이다.

n↔2n이란 n과 2n이 대응된다는 것이다. 결국 n과 100n의 대응이 되며 그 논리는 n에 n억(億)을 대응시킬 수도 있다.

n↔2n(n은 2n에 대응한다)

n↔3n(n은 3n에 대응한다)

⋮

이와 같이 생각하면, 자연수 전체는 짝수 전체와 1대 1의 대응이 되고, 3의 배수 전체와 대응되고 있다. 짝수 전체의 집합, 3배수 전체의 집합은 분명히 자연수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곧 '부분과 전체'의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절대로 유한세계에는 없는 일이다.

유한만을 수학의 대상으로 삼아온 사람에게는 '전체와 부분이 같다'란 곧 지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천동설을 듣게 하는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다. 칸토르는 이 사실을 발견하자, '나는 분명 보았다(증명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었다'고 절규한다. 백림대학의 저명한 수학자 크로네커(L. Kuroneoker, 1823~1891)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신은 정수만 창조하셨다'하여 수학의 대상은 곧 유한이어야 된다고 소리쳤다.

이 난에서 전에도 유태, 기독교의 세계관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는 만화적임을 설명한 적이 있다. 현대수학이 개막되는 문턱에서도 무한의 문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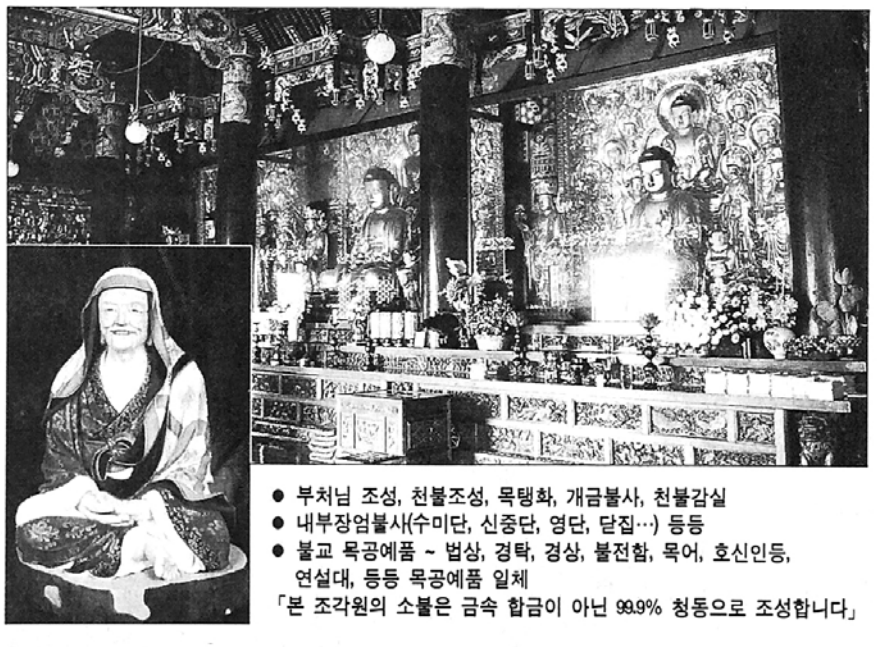
그후 수학자는 '무한이란 부분과 같을 수 있는 것(부분과 전체가 1대 1 대응한다)'이라고 정의한다. 무한의 수학적 정의이다.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에서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왔다. 이 사실은 곧 불교의 사유 대상은 처음부터 무한에서 시작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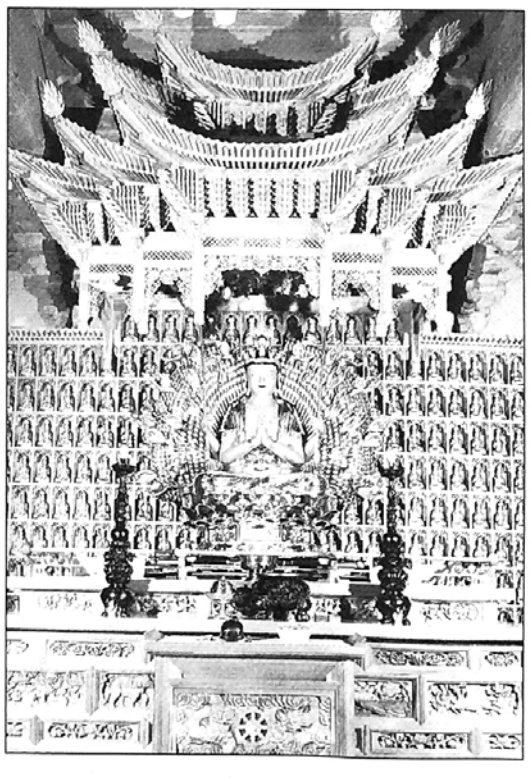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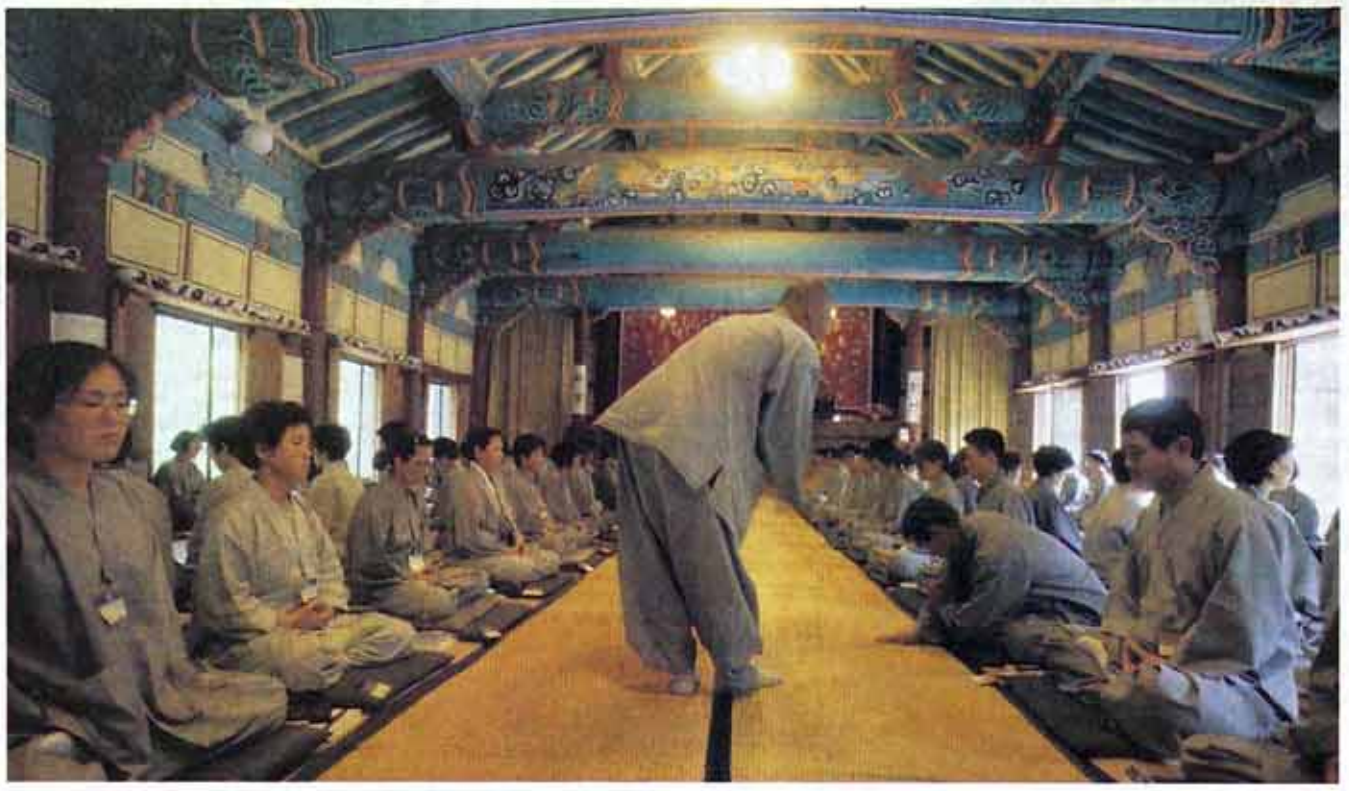
대표 이진형 합장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인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4박5일 용맹정진을 마치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위해 5계를 받는다.



◇'이 뭣고' 좌선시간에는 스님들이 간혹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수련인들의 어깨를 '딱딱' 치는 죽비소리와 호흡소리만 들릴 뿐이다.

좌선…발우공양…울력…묵언…예불…

"자기속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사 4박5일 단기출가

찰 새벽 3시 일과 시작

수 쉴틈없는 수행일정

련 또다른 세계 열리고

회 생활활력 충전 '귀가'

욕심 씻고 번뇌 녹이려 108배등 치열한 정진 몸은 파김치지만 마음은 '空'

여름휴가 新풍속도
절마다 신청쇄도 '좁은문'

여름 산사에는 노을이 빨리 찾아온다.

해거름의 산그늘 아래 지친 육체를 누이면 마음이 평화롭고 겸손해진다. 문인가. 모든 것이 잠든 새벽, 미명의 숲길을 혼자 걸으며 청솔잎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속세의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온갖 욕심이 씻은 듯 없어진다.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는 '4박5일 단기출가' 사찰수련회가 열려 불자는 물론 일반인 및 타종교인들까지 발길을 끌고 있다.

사찰수련회는 혼탁한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산사의 품속에서 참선과 묵언정진, 108배로 심신을 단련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단기출가를 통해 단순히 '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수련회 접수때면 사찰 종무소는 신청인들의 전화와 방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짧은 출가, 긴 깨달음' 이제는 TV나 신문 광고 문안처럼 익숙해져 버린 사찰 단기출가.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현대인들에게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수련회는 참가자들에게는 부부의 연(緣)을 맺는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해 더욱 이색적이다.

산사수련회가 가장 전통깊은 사찰은 전남 순천 송광사. 지난 80년 법정스님이 수련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올해로 27회째인 송광사수련회는 일찌감치 마감하고, 6월27일 1차 수련회에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백명 모집에 1천4백여명이 몰려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한번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동안 신청을 못하도록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여서 올해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행운아'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1일 접수마감된 해인사와 대둔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산사에서의 수련은 짧은 기간이지만 불가의 엄격한 법도와 출가사문의 칼날같은 정진을 경험하게 된다. 일단, 종무소에서 등록을 하고나면 모든 소지품을 맡긴 뒤 지급받아 입은 잿빛 수련복 외에는 빈몸이 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물건 몇가지를 사러 수련복 차림으로 일주문을 벗어날라치면 "그 몸에 필요한게 무에 그리 많은가요?"라는 스님의 따끔한 질책이 떨어지고, 그 질책은 때론 수련기간 동안 화두처럼 물음이 되고 대답이 되기도 한다.

새벽 3시. 법고가 울리고 목어(木魚)소리가 낭랑한 가운데 운판(雲板)의 울음소리가 새벽하늘을 깨우면 기상과 함께 108배에 들어간다. 이어 청아한 목탁소리에 맞춰 예불문을 외면 저절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살피게 된다.

수련프로그램은 사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송광사의 경우 4박5일의 수련기간 중 일관되게 주어지는 과제는 묵언과 좌선이다. 절대 침묵을 지키는 것과 '이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이 무엇일고(이 뭣고)'라는 화두를 잡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묵언은 부부끼리도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에 둘러싸여 말로써 소통하며 관계맺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묵언은 새로운 체험이자 다른 세계로의 접근이다. 지도법사 스님은 "입으로 말하는 법보다 눈빛으로 말하는 법이 더욱 간절하다"고 설명한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밥그릇 4개로 이뤄지는 발우공양도 특이한 경험이다. 밥 국 반찬 천수물을 각각 받아 놓은 발우를 앞에 두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만한 일을 했는지 반성해 본다. 반찬이나 밥은 절대 남겨서는 안되며 그릇 닦은 물까지 숭늉으로 마셔야 한다.

쉴틈없이 좌선과 강의, 예불의 강행군으로 이어지는 수련회를 경험한 이들 중에는 오히려 육체적 고통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다. 육체적으로 더없는 힘든 수행이 현대사회의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일까.

2박3일 또는 4박5일의 짧은 출가는 수계식을 끝으로 긴 깨달음의 여운으로 남아 회향된다.

매년 해인사 봉도사 송광사를 번갈아 가며 사찰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여름휴가를 대신한다는 송호찬씨(40, 공인회계사)는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재충전의 계기가 됐다"면서 "수련회에서의 감동을 일상생활에까지 연장시켜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글=도필선 사진=고영배 기자

◇단기출가 사찰수련회

사찰명	기간	횟수	접수마감	연락처
봉도사	7/18~8/12	6차	7월5일	(0523)84-8380
쌍계사	7/ 7~8/25	7차	매회 10일전	0561)746-9912
봉선사	7/28~7/31	1차	7월27일	0346)555-5974
월정사	7/21~8/ 5	3차	매회 3일전	0374)32-6664
백양사	7/21~7/25	1차	7월10일	0685)92-7502
까치마을회	7/25~7/31	2차	7월15일	02)838-3385
송광사	6/29~8/17	8차	완료	0661)755-0407
해인사	6/27~8/16	7차	완료	0599)31-1001
대둔사	7/ 7~7/25	3차	완료	0634)34-5502



◇참가자들이 포행수련을 하고 있다.



◇법구경 · 백암록 · 현대인의 신행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시간은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가톨릭신자의 참석소감



장광수 〈장광수치과의원 원장〉

"저는 불자도 아니었고 절의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종교의 선한 교리에 일반적인 호감과 관심을 가진 시정인(市井人)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에서의 기억은 제 평생에 잊지못할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새벽 세시면 어김없이 울리던 송광사의 북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루까 장광수씨(장광수치과의원 원장, 43). 루까는 장씨의 세례명이다. 그는 "천주교인으로서 사찰수련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서 모든 것이 생소했고 인상깊었다"고 말한다.

"산사수련후 안목 넓어졌어요"

장원장은 지난해 산행회 동료들의 권유로 송광사 3차 수련회에 참여했다.

"같이 산을 타는 동료들 중에 한 분이 매일 챗바퀴 돌 듯 살아가는 제가 안타까웠는지 사찰수련회를 권하셨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명상이나 하면서 쉴 생각으로 그 제안을 부담없이 받아 들였죠."

그러나 장원장은 송광사 종무소에서 수련기간동안 그곳의 규칙을 모두 엄수하겠다는 일종의 다짐서에 서명하면서 후회했다고 한다. 잘때까지 끼고 자던 시계를 벗어놓아야 했고, 말을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 계속되는 좌선과 강의는 온몸이 뒤틀릴 정도였다며 수련회 4박5일 중 3일 동안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한다.

"수련회를 마치고서야 참선시간이 버리는 것에 대한 고통을 철저히 안겨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동안에는 그저 결가부좌의 자세에서부터 폐배의식에 사로잡혀 헛된 잡념에 시달려야 했고, 화두를 생각하기 전에 정신은 아픈 다리 쪽으로 쏠려 육신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해 고통스러울 뿐이었죠."

"수련회에 참가한 뒤로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변할 뿐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원장은 "눈만 뜨면 바깥 일에 몰두해야 하는 현대생활에서 우리 마음 속을 찬찬히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찰수련회를 평가했다. 또 "수련회 기간동안 지위 · 학력 · 부의 고하(高下)를 막론한 회색빛 수련복, 시중을 들어주던 자원봉사자들의 사심없는 얼굴, 흰칠하신 용모의 스님들이 가사장삼을 펄쳐 입고 법도 있고 당당하게 걷으시던 모습과 영롱한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자격이 되는 2년 뒤(송광사는 한번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동안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송광사 수련회에 다시한번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덧어보였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방일품(放逸品) ③

若前放逸 약전방일
後能自禁 후능자금
是炤世間 시소세간
念定其宜 염정기의

만일 먼저 방일했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금할 수 있으면
이는 세상을 잘 비추는 것
선정의 마음은 마땅히 그러하다

過失爲惡 과실위악
追福以善 추복이선
是炤世間 시소세간
念善其宜 염선기의

잘못한 일을 악인줄 알아
뒤좇아 선으로써 덮어 버리면
이것도 세간을 잘 비추는 것
선을 생각함은 마땅히 그러하다

少壯捨家 소장사가
盛修佛教 성수불교
是炤世間 시소세간
如月雲消 여월운소

젊은 날에 집을 버리고
부처의 가르침 넉넉히 닦으면

棄猗行止 기의행지
不復染樂 불부염락
欲斷無憂 욕단무우

흐리고 어두운 법 끊어버리고
오직 맑고 밝은 법을 배워서
생사 연못 건너서 되돌아 오지 않으니
행하고 그침에 기댐도 버리고
다시는 쾌락에 물들지 않나니
욕망은 끊어져 걱정이 없으리라

심의품(心意品) ①

意使作狗 의사작구
難護難禁 난호난금
慧正其本 혜정기본
其明乃大 기명내대

의식으로 개를 지어 부리면
지키기 어렵고 가두기도 어렵다
지혜로 의식의 근본을 바루어야
밝음은 비로소 커진다

輕躁難持 경조난지
唯欲是從 유욕시중
制意爲善 제의위선
自調則寧 자조측녕

생각이 경망하고 조급하면 지키기 어렵다.
오로지 욕심만을 좇게 되니
의식을 제어하여 바르게 되도록
스스로 조절하면 곧 편안해 진다

意微難見 의미난견
隨欲而行 수욕이행
慧常自護 혜상자호
能守卽安 능수즉안

의식의 미묘함은 보기 어렵다
욕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니
지혜로운 이 언제나 스스로 지킨다
잘 지키면 그대로 편안하다

獨行遠逝 독행원서
覆藏無形 복장무형
損意近道 손의근도
魔繫乃解 마계내해

의식을 혼자서 멋대로 쏘다녀도
가리고 감춰진듯 형상이 없다
생각을 비우고 비워 도에 근접하면
나쁜 마음의 속박도 풀리게 된다

龍眼

"생각 비우고 비워 도에 가까이 가면
나쁜 마음의 속박 풀려 그대로 편안"

이것도 세간을 잘 비추는 것
마치 구름 걷혀 달이 나타나듯이

人前爲惡 인전위악
後止不犯 후지불범
是炤世間 시소세간
如月雲消 여월운소

사람이 먼저 악을 행했어도
나중에 그쳐 범하지 않으면
이것도 세간을 잘 비추는 것
마치 구름 걷혀 달이 나타나듯이

生不施惱 생불시뇌
死而不慼 사이불척
是見道悍 시견도한
應中勿憂 응중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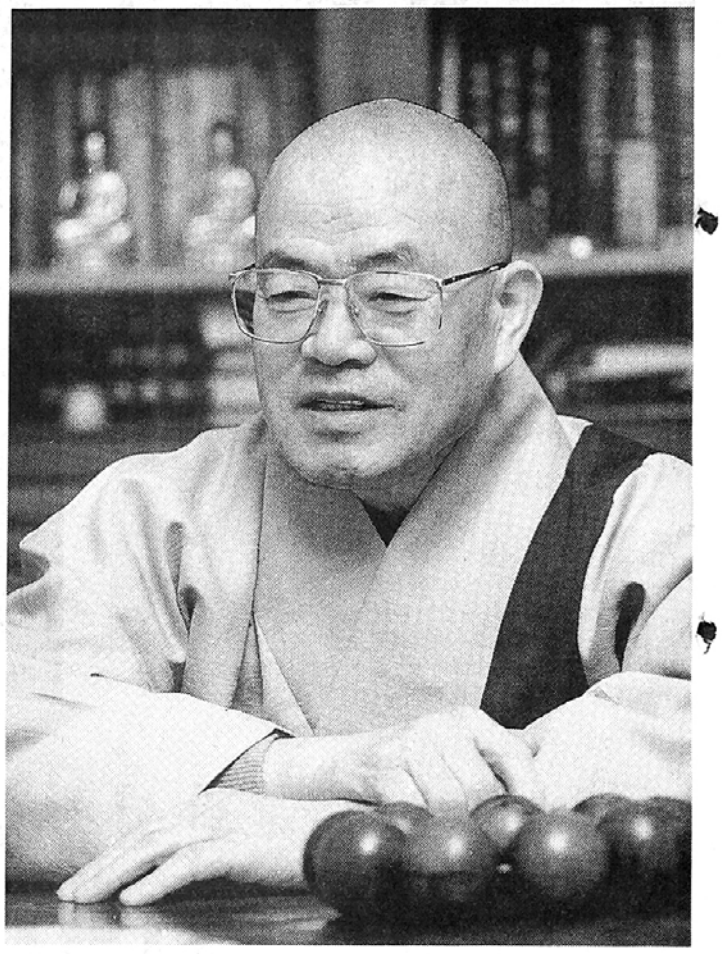
살아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않고
죽어서는 꺼릴게 없다면
이는 도의 굳셈을 본것이라
중도에 맞으니 걱정하지 말라

斷濁黑法 단탁흑법
學惟清白 학유청백
度淵不返 도연불반

큰 스님 수행한담

"사리사욕 버리는 공부

고 산 스 님 〈쌍계사 조실〉



약력
- 34년 경남 울산 生
- 48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게 받음
- 61~69년 청암사 · 범어사 강사
- 69~75년 법륜사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
- 75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78년 제5대 중앙종회의원
- 79년 경남도정 자문위원(現)
- 84년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428번지에서 자란 나는 13살때 부친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의 구하(九河:1872~1965)스님을 친견하러 갔어요. 출가할 뜻을 말했으나 구하스님은 '좀더 크거든 오너라' 하셨어요. 1개월후 이번에는 범어사로 출가하고자 동산(東山:1890~1965)스님을 친견했어요. 그때 동산스님은 '진작 오지 왜 인제 왔냐' 하셨지요. 당시에는 입산하면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범어사에서 약 6개월간 행자생활을 했어요. 이듬해 해방되던 해 고향친구들을 만나 '세속 공부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에 넘어가 3·4개월 정도 부산에서 기술을 배우기위해 시계방 양복점 책방 조선소 등지에서 안해본 일이 없었어요. 물론 적성이 맞지 않았던지 다시 절로 되돌아왔지요.

은사이신 동산스님은 조석예불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여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예불에 참석하는 정성을 보이셨어요. 또 대중공양과 마당청소도 거르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하셨지요. 특히 예불 때는 괄상전 나한전 산신각, 심지어는 조왕단에까지 일일이 참배하셨습니다.

동산스님은 백장청규의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놀고 먹는 것은 대중은 물론 자신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당시 3년간의 행자교육은 엄청나게 혹독한 수행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출가를 잘 허락하지도 않아요. 마치 개를 집에 안 들이려 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대하죠. 그래도 발심자가 그 수모를 참고 입산을 하게 되면 감내하기 힘든 시험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양주에서부터 채공(菜供), 나무하기, 밭갈기 등 모든 울력을 하면서 기본교리를 익혀야 해요. 상좌들은 혓바닥 보다 날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할 줄 모르는 것이 없는 만능인이 되어야 사미계를 득(得)할 수 있었으니까요.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장담그기, 예불·염불하고 불공시식, 윗사람 섬기고 아랫사람 다스리기, 농사짓기, 땔감하기, 예의도덕 익히기 등에 고두 능통해 대중의 사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수련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양간에서는 일류 요리사, 논·밭에서는 신농씨(神農氏; 농업의 시조), 나무질할 때는 일류 목수와 나뭇꾼, 염불할때는 예식종장(禮式宗長)이 되어야 했어요. 이렇게 단련이 될 때 최고의 선사·법사·율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춰진다는 생각에서죠.

당시에는 스님들이 정말 치열하게 정진했지만 요즘엔 사정이 달라요. 내게도 70여명의 상좌가 있었지만 절반이 중도에서 포기했어요. 일도 안하고 배우려고도 안한다는 거지요. 빨래, 바느질, 청소 등 기본적인 일은 귀찮아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 해요.

사회가 어지러우니 수행자들도 물이 든 거예요. 세간에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이 우글 거리듯 절간에도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정치인 공무원 서민에 이르기까지 타이틀만 세우려하는 '빛 좋은 개살구'식의 풍조가 생긴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마음자세로 무슨일을 하든 한 우물만 파세요 수행도 이와같이 해야합니다

아무튼 나는 20세부터 4·5년간 걸망을 짊어지고 전국을 떠돌며 참선만 했어요. 그때 화두는 '이뭣꼬(是甚麼)'였어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문자도 없으며, 앞도 뒤도 없다.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한번은 통도사와 범어사가 합동방생법회를 할 때였습니다. 법회를 마치고 온천장 입구에 집합해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그때 택시 잡기가 어려웠는데 경봉(鏡峰:1892~1982)스님이 먼저 택시를 잡았어요. 그러자 동산스님이 '내가 더 바쁜데!' 하시니 경봉스님께서 '그러면 먼저 타고 가라'고 양보하셨어요.

동산스님께서 먼저 택시에 타고 막 출발하려는데, 경봉스님께서 오른 손을 활짝 펴면서 '도인의 작별은 이것이야!' 하니 동산스님은 주먹을 쥐고 들어보이며, '이거 아느냐?' 하셨어요. 그러자 경봉스님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딴 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도인들의 작별인사가 이러했지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 작별인사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경봉스님의 다섯 손가락(五指)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저 갈대로 간다'는 차별법문이었고, 동산스님의 주먹은 '너와 나의 마음은 하나로서 항상 같이 있다'는 무차별 법문이었던거지요. 또한 경봉스님이 얼굴을 돌린 것도 여기에서는 입을 벌리면 벌써 그르치기 때문에 불야타조야타(佛也打祖也打)인 일착자(一着子)도리인 것입니다.

'도인(道人)이라야 능지도인(能知道人)이요, 성인(聖人)이라야 능지성인(能知聖人)'이란 말이 실감났지요. 이 일이 훗날 화두 정진에 큰 전환점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화두 참구를 하면서도 뚜렷한 증험이 없자, 우리나라의 제1대 강백이셨던 고봉(高峰:1901~1969)스님을 뵙게 되었어요. 고봉스님께서는 선교양종을 터득하신 큰 스님이셨죠. 언제나 새벽 3시에 일어나 경을 연구하고 선정에 들었으며, 학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그 엄격함이 대단하셨지요.

그때 선방 수좌들은 경 공부를 하려는 나를 보고 타락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10여년을 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공부했어요. 두문불출 하루 3시간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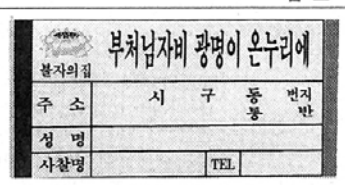
불교 상품을 직접 제작해온 삼보기업에서 불자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획상품을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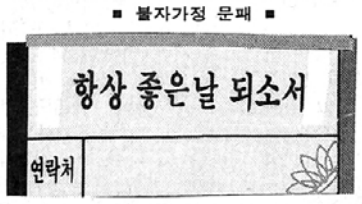
기획상품
- 상 품 명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제품사양 : 크기 - 가로 40cm ×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변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 제품가격 : 35,000원

※ 원하시는 경전문구로 제작가능. 다량주문시 제작원가로 보급.

● 삼 보 기 업 의 기 획 시 리 즈 ●



■ 불자가정 문패 ■



■ 불자차량 안내판 ■

● 크기 : 19cm × 11cm ● 재질 : 연질 포맥스 (씰크인쇄)
● 150매 이상 주문시 1개당 1,500원



스님들께서 신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삼보기업 서울 중구 오장동 69-2 방림 B/D 4층
T)279-2715 F)275-3739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원장입니다.

'이자임결혼연구원'을
「현대정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 改名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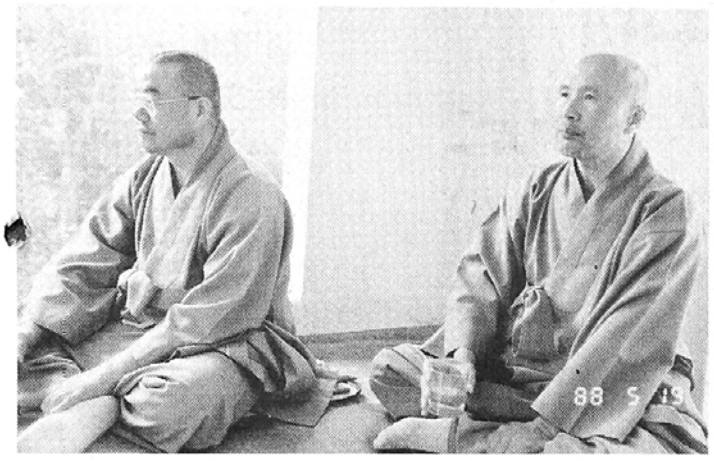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큰 스님 수행한담

참으로 잘사는 인생이죠"

"요즘은 산문밖이고 안이고 노력도 안하면서 결실얻으려는 못된 풍토가 만연해있어요 '一日不作 一日不食' 참뜻 되새겨야"



◇88년 5월 19일 쌍계사 탑전에서 고산스님(왼쪽)이 도반인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과 함께 섬진강을 내려다보며 다담(茶談)을 나누고 있다.

"희생하는 마음 쌓이고 쌓여 사회가 건강"

8만4천법문 바로사는 길 안내하는 뗏목

씩 잠을 자며 경을 공부했지요. 이런 노력덕택에 나중에는 내게 손가락질하던 도반들이 예의를 갖추고 경을 물으러 오곤 했습니다. 더구나 나의 화두 참구도 경학(經學)의 힘을 얻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어요. 당시 〈화엄경〉을 볼 때 음만 먹으면 훤희 보였죠. 고봉스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 더 해라' 하시더군요. 다시 극락선원의 경봉스님께 달려갔더니 역시 '공부 더 해라' 하셔요. 경봉스님 말씀이 '제8 아뢰야식이 맑아지면 온 세상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하더군요. 이른바 식광(識光)의 경계였던 겁니다.

그후 다시 두·세 차례의 경계가 더 다가왔어요. 75년 쌍계사 주지 소임을 맡은지 3년째 되던 해 육조금당에서 한번은 정진을 했는데 문득 한 경계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게송은 이러했습니다.

산하대지비로체(山河大地毘盧體)
초목함령석가행(草木含靈釋迦行)
일월성숙제불안(日月星宿諸佛眼)
쌍계유수고산심(雙磎流水杲山心)

산하대지는 비로자나불의 법신이며
초목과 함령은 석가모니불의 교화작용이요
일월성숙은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쌍계의 흐르는 물은 나의 마음일세

다시 10년이 흘러 쌍계사의 서방장을 재건하고 좌선에 들어있는데 또 무릎을 칠 일이 생겼지요.

심행일장몽(心行一場夢)
식심즉시교(息心卽是覺)
몽교일여중(夢覺一如中)
심광조대천(心光照大千)

마음이 행하는 것은 한바탕 꿈이요
마음을 쉰 것이 곧 잠깬 것이로다
꿈과 생시가 한결같은 가운데
마음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도다

이 게송을 읊고는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사미계를 받자마자 선방에 들어가는 풍조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교학이 어느정도 기본이 되지 않고는 헛고생만 하는 수가 많다는 걸 도르는 겁니다.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것도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전제로 한 말입을 잘 몰라요. 교학을 제대로만 익히면 참선수행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8만4천법문이 바로 사는 길로 안내하는 뗏목이 되고 가장 빠른 지름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지요.

선과 교를 분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요 율시불행(律是佛行)이라.' 즉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律은 부처님의 행이라는 경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수행자는 마음 쓰쓰이, 말 한마디, 계행 하나 하나가 중생의 사표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1976년에는 부천시 원미동에 천막법당을 세웠습니다. 당시 인구수에 비해 교회가 가장 많던 부천시에, 더구나 유명한 신앙촌이 있던 바로 옆에 법당을 마련한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어요. 당시 30명이던 신도가 3만명으로 늘어나는등 오늘날의 석왕사가 터전을 잡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지요.

그후 중앙포교사가 되면서 부터는 유교 도교 예수교 등을 공부했습니다. 타종교인과 비교토론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포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도 신부님과 목사님들과는 자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희생이 모이면 사회가 절로 건강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기 욕심만 챙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대통령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집은 없어도 외제차 타고 으시대면 대접받는 허위의식이 청산돼야 해요. 국민정신부터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과 사리사욕을 내던질 때 수행자든 중생이든 모두 이롭게 돼요. 사리사욕 먼저 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잘사는 참인생입니다.

온고지신(溫古知新)의 정신문화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없어요. 박정희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정신을 개혁해서 나라 발전이 어느정도 가능했던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종교가 앞장서야 해요. 모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유교의 윤리도덕과 예수교의 구생천국(救生天國), 도교의 연심정기(練心綿氣), 불교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이 다른 것이 아니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린 후 이웃과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먼저 우리 불제자들이 모범이 돼야 해요. 수행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아만을 남김없이 비운 후 불법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도들은 우선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염불이든 참선이든, 8만4천법문과 1만가지 방편, 그리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한 우물을 파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던지 한가지 기술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듯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한 스승 밑에서 우직하게 배워야 뭐라도 됩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면 꾸준히 끝간데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인의 자세인 동시에 생활인의 자세입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나쁜 일들은 왜 생깁니까

문 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 자리는 근본자리, 불성, 자성부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공 자리에서 나쁜 일들, 번뇌 따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업 때문이다, 인과응보다, 혹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진화할 필요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②미생물을 이용해 폐수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점차로 폐수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도리를 이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방법이 진화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요?〈오상은 · 광주 과학기술원〉

답 육조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성이 본래로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하신게 있습니다. 자성은 본래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고 늘거나 주는 일도 없이 그대로 여여합니다. 여여한 가운데 만법이 들고 난다하였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성의 근본자리는 다만 힘을 배출해 줄 뿐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으로 돌아가는 발전소처럼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줄 뿐 멀고 가깝다든가, 크고 작다든가하는 구별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동으로 흐르는 전력을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끌어다가 모터를 돌리든지 형광등을 밝히든지 원하는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먹는다는게 하나도 한데로 떨어지는게 없어서 마치 마음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날날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었다가 때가 되면 솔솔 풀려나오는데 그때에 이르러 좋은 일 궂은 일이 연방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선업이다, 악업이다 또는 인과응보다 그러는데 그때에 그것을 공부재료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에 도리를 몰라서 종문서를 잔뜩 짊어지고 왔는데 거기에 또 짊어지려하지를 말고 내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방하착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온 자리에 내려 놓아라, 그래야 먼저 입력된게 지워진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주인공 자리에서 왜 그런게 나오느냐고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력은 자동적으로 배출되는데 그걸 끌어다 쓰는 마음이 여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자에 먹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무위법에서 보면 본래는 한 생각도 불을 자리가 없으니 업이다 인과다 하는 것도 생겨남이 없습니다만 나다, 내로다하면서 유위법에 매달려 살아왔으니까 꿈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발전소와 전등이 따로 따로냐 하면 둘이면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발전소와 전등이 연결되어 있어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때 발전소와 전등을 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발전소는 체(體)요 전등은 용(用)이라고 해도 되지요. 그러니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하면서 또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하신 겁니다.

처사님께서는 주인공이다 불성이다 업이다 하는 것을 자꾸 유위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도 주인공자리에 놓고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②일체 중생은 유정 무정이 다 둘이 아니라 근본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심이요 공체입니다. 공심공체로써 또 공생 공용 공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니 나니 할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모조리 너다 나다 구분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만 열심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온전해질리 있겠습니까? 자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텐데 온통 까발리고 찢고 파헤치고 마구잡이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몸뚱이의 오장육부가 서로 저 잘났다고 저만 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겠지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유위법에만 매달린 50%짜리 밖에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과학이, 아니 본래 도리가 그렇지만 나머지 50%인 무위의 도리를 모른다면 온전한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나는 심성과학이라는 말로 그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도 공심공용 공식 공체의 도리로 풀어가야만 바른 길이 나오지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한계에 부딪히고 말것입니다.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일도 50%짜리 과학으로 처리하면 그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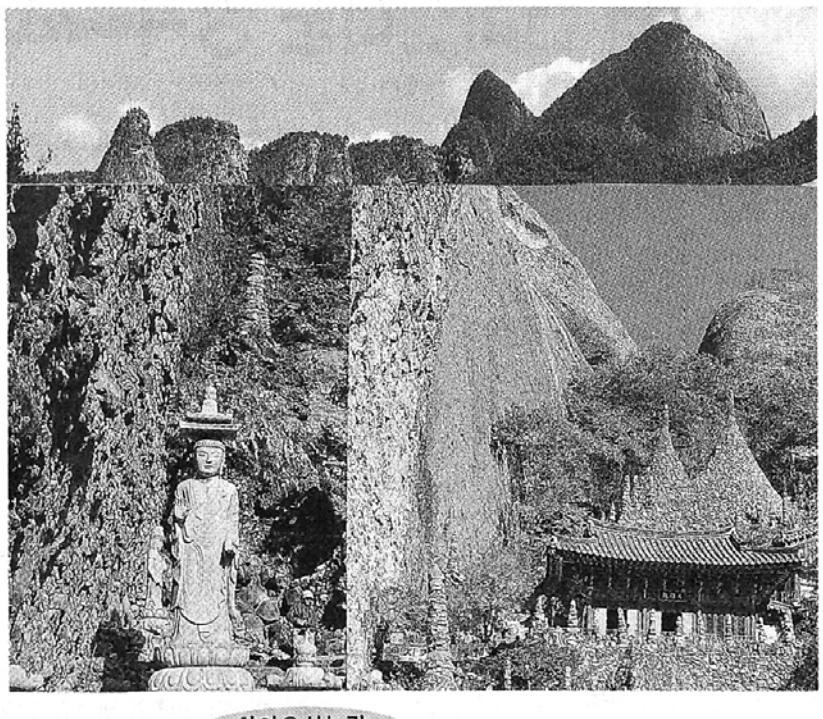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얇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옥순례 ②

추장아들의 불타는 욕정을 지켜본 네 보살 "우리도 전생다생에 틀림없이 저런중생…"



불이보살 일행 네 보살은 과연 그들조차도 오직 숨막힐 뿐인 이곳,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르는 이곳에서 중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들을 알게 되었다.

보살이란 중생을 위한 존재가 아닌가.

그럼에도 그들은 그 중생의 고통 앞에서 어떤 방편도 없는 전달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무전보살은 그가 오른 보살의 지우에서 떠나버리고 싶었고 보살이라는 호칭조차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훔렁 벗어 던져 버리고 싶었다.

다른 세 보살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보살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므로 차츰 어둠 속에서 먼동이 트리라는 가냘픈 희망을 그들의 절망 속에서 키우고 있었다.

고통이란 것도 그 고통의 실체는 허깨비가 아닌가. 즐거움이 그런 것처럼.

그런 고통으로부터 조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흑승지옥에서 토막 살해가 계속되고 펄펄 끓는 흙탕물의 가마솥에 떨어져 죽는 중생들의 참혹한 광경을 지금 당장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

합두보살이 불이보살을 끌었다. 흑승지옥 밖의 네 문 밖에 작은 네개의 지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합두보살이 알아본 것이다.

"부지옥(副地獄)입니다."

"부지옥입니까?"

"그렇답니다. 이 흑승지옥의 네개 부지옥 가운데 등환수고차(等喚受苦處)라는 곳입니다…."

파우보살이 그곳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부지옥이라 해서 결코 고통을 덜 받는 곳이 아니었다. 새빨갛게 달구어진 먹쥘로 묶은 몸이 지직지직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몸을 비수들이 촘촘히 세워져 있는 칼산으로 된 밀바닥에 밀어 떨어뜨리는 형벌을 주는 곳이었다.

그러자 그 밑에서는 쇠송곳니를 가진 개들이 으르렁대며 달겨들어 떨어진 몸을 뜯어먹는 것이었다.

본디 부지옥은 근본지옥마다 네 개씩 달려있는 가책(苛責)의 지옥이었는데 죄악의 종류가 불어나면서 이런 부지옥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었다.

불이보살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으로 보내신 것은 먼저 지옥의 실상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보살의 몸을 저 고통받는 지옥중생의 하나하나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도 저 고통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 어디까지가 지옥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 다음 지옥으로 내려갑시다."

세 보살은 그런 변명에 가까운 말에 어떤 이의도 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먼저 이 엄청난 지옥세계의 일부라도 좀더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본지옥과 부지옥을 통틀어 128개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합두보살이 아까 흑승지옥의 한 부지옥 옥졸로부터 알게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옥세계는 6도(六道) 중생계의 하나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 이루어진 무량세계로서의 우주가 아닌가.

합두보살이 불이보살의 뒤에서 한마디 던졌다.

"보살의 몸이란 고통의 몸입니다. 아아 이 고통!"

실지로 합두보살은 그 여성적인 자상함이나 자비의 섬세함 때문인지 아직 그녀의 결단이 있기 이전인데도 지옥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시작한 것인지 모른다. 파우보살이 그런 합두보살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당장 그 큰 키의 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어떻게 몰라 하였다.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 인간계에 가 있다가 다시 옵시다. 단단히 보살의 발원을 한 다음…."

불이보살이 전생의 그답지 않게 그런 파우보살의 말을 물리쳤다.

"아닙니다. 더 내려갑시다. 세번째 중합(衆合)지옥으로…."

인간계에서 니토(泥土) 백토 적토 황토 청토의 그 아래에 등활 흑승의 각각 2만유순을 지나서야 1만유순의 깊이로 된 중합지옥이 나타난다.

그곳은 살생, 강도, 사음의 죄를 2중 3중으로 지은 중생이 떨어지는 지옥이었다.

여기서는 사음의 남자죄인이 앙칼진 고양이한테 성기를 따먹히거나 여자죄인의 성기 속으로 뱀이 쑥 파고드는 형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이는 사바세계 든황 부근의 유독지대에서 한 부족 추장의 아들이 이웃부족의 아낙네와 처녀들을 사막의 대낮에 납치해다가 마구 강간하는 광경을 떠올렸다. 그때 함께 있던 합두에게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두의 두 눈에 말린 선인장을 빻아서 만든 가루를 훅 뿌려서 한동안 두 눈을 들수 없게 했던 일도 떠올렸다.

바로 그 패악의 추장아들이 바로 이곳 중합지옥에 떨어져 아직도 그 색욕에 눈이 먼 상태로 혓바닥을 드러내놓고 여기 저기 휘둘러 보고 있었다.

불이보살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그 추장 아들이 하는 짓거리를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아주 잘 우거진 나무 위에 아름다운 여자가 올라가 있었다. 바로 그 여자를 추장 아들이 노리고 있었다.

"참으로 이제까지 내가 찾던 미인이 여기에 있군… 그렇게도 수많은 여자를 지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받은 나머지 저런 미인이 있다니."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아무리 지옥의 고통이 그를 삼키더라도 그가 발견한 나무 위의 미인은 그에게는 마지막에나 만날 수 있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그 미인이 올라가 있는 나무에 서슴치 않고 다가갔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의 색욕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무 잎새 하나하나는 얇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있고 나무줄기에도 바늘같은 것을 내밀고 있었다.

그런 잎새와 줄기의 사나움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추장아들은 그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미인에게 나무잎 칼날과 줄기의 바늘들에 피투성이가 되어 올라갔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나를 극락세계의 그 꿈같은 극락으로 데리고 가 줘요… 어서 와 나를…."

지옥중생의 고통을 자기것으로 체험하려는 네 보살의 얼굴엔 우수와 비애가 서렸다

추장아들은 벌써 몸의 살갗만이 아니라 내장까지 찔리고 잘리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미인을 놓칠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그 미인이 있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아아!"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에 있어야할 미인이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가 없어졌다.

"아니! 이럴수가!"

추장아들은 고통과 갑작스러운 허탈로 어쩔줄 몰랐다.

"이럴수가!"

그는 그의 눈을 의심하였다. 눈까지도 나뭇잎 칼날에 다쳐서 피범벅이었다. 허깨비였단 말인가. 그렇겠지. 지옥에도 허깨비가 있을 터이지.

문득 그는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바로 그가 올라왔던 나무 밑에 그 미인은 가 있지 않은가.

"아니!"

"어서 나를 안아주세요. 어서 내려와 나를 안아주세요."

그는 다시 나무 줄기와 잎새가 주는 고통으로 온몸의 안팎이 피투성이가 되어 내려갔다. 미인은 없었다. 그 미인은 어느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이렇게 추장아들의 불타는 욕정은 그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고통 속에 파묻혔다.

그런 광경을 지켜본 네 보살은 한동안 입을 다물어야 하였다. 무전보살이 떨어진 나뭇잎새의 칼날에 손끝을 베어 피가 났다.

"저 녀석만이 색욕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전생다생에는 저런 중생에 지나지 않았음에 틀림없는 줄 압니다."

"……."

"하기야 우리 뿐이 아니라 억겁 만겁 전에는 오늘의 부처님께서도 저런 중생이었다가 한 생 한 생 원을 세워 수행과 보살행을 다한 나머지가 아니겠습니까."

"……."

"억겁 항아사겁 나유타겁 무량대수겁 동안의 시간이 그저 시간이었겠습니까. 온갖 중생계 드나들며 온갖 고락을 다 받으며 그 업장 가운데서 헤어날줄 모르다가 어느 찰나에 번개가 쳐 문득 그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집작한 나머지 부랴부랴 큰 꿈을 꾸어 좀더 나은 중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 중생으로 정진하다가 아라한에도 들고 보살경계에도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

"생각컨데 우리들 하나하나도 본래 면목으로 저 추장아들녀석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고르거늘."

"……."

그들은 그곳을 떠났다. 맨 뒤에서 걷고 있는 파우보살은 한 중생이 항문에 끓는 구릿물을 부어넣는 형벌을 받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 구릿물은 직장 대장 소장 12지장 위장 그리고 식도를 거슬러 올라 입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 중생의 몸은 몸 속에서 끓는 구릿물에 녹아버렸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한번이 아니라 몇 10만번 동안이나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생에 남자끼리의 성애 때문에 받는 업보였다.

파우보살은 세 보살에게 그 광경을 말하지 않고 어서 이런 지옥의 순례를 끝내고 싶어졌다. 보살의 몸일지라도 지옥에서는 지옥의 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이런 지옥에 와서 지옥중생과 함께 있거나 그들을 견지려는 발원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이곳을 그들의 마음 속에 아로 새기기 위해서 찾아온 하나의 순례였던 셈이다.

그들은 훨씬 더 우수에 물들여진 표정이었다. 보살의 얼굴일지라도 환희와 감사의 표정 대신 우수와 비애가 서린 표정으로 바뀌어져야 하였다.

1만유순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렇다할 생각도 없이 거기까지 내려간 것이다. 그것이 보살의 시간과 공간이기도 하였다.

규환(叫喚)지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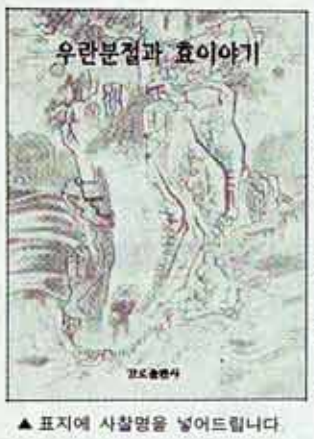
거기에도 지옥의 형리(刑吏)인 소대가리와 말대가리가 있었다. 그들이 한 중생의 입을 쇠로 만든 집게발로 열어 거기에 술 대신 끓는 구리즙을 부어넣고 있었다. 그 구리즙이 밑으로 나오기까지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몸부림 칠수도 없게 형리가 짓누르고 있었다.

"아아 지옥이란 이러하도다!"

그림 · 조향숙

우란분절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 록 내 용

제1부 우란분절 기념 법회
우란분절 법어/우란분절 발원문
제2부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목련의 효행과 우란분절의 시작/우란분절과 백중/거룩한 효심, 뜨거운 실천
제3부 '효',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경전에서 보는 효의 달
제4부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그리움으로 사는 삶…견우와 직녀/자손위한 사랑으로 회향하는 기도…칠성불공
칠성부적으로 이어지는 끊없는 기도/칠원성군 진언과 부작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각 권당 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정가/1,500원

우리말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 정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팩스(02)738-8682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놓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책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신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성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뇨강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발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항사산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정맥, 신진대사 촉진, 비위쇠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度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책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利益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회)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말법시대 묘법 전하고파"

108폭 법화경 병풍제작 이요환씨

매일 8시간씩 1년작업 '회향'
길이 55미터 세계최장 경전병풍

"재가에 있는 불자들은 일념으로 정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법화경병풍도 수행정진의 일환으로 여기고 내가 익힌 서법(書法)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주에 사는 중견서예가 이요환씨(50)가 법화삼부경 총 8만4천여자를 108폭 병풍으로 만들어 화제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처님오신날 법화경 서예병풍을 발원, 1년여에 걸친 작업끝에 최근 완성하고 표구 제작에 들어갔다. 한폭에 680자가 들어간 이 병풍은 〈묘법연화경〉6만9천7백여자와 〈무량의경〉〈관보현경〉까지 법화삼부경 총 8만4천여자를 경면주사를 이용, 해서체 소자(小字)로 썼다.

"매일 아침 새벽, 마치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듯 참선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법화경을 여러번 소리내 읽으며 부처님과 한몸이 되기를 바라며 경건한 자세를 갖춘후 기도하듯 한자한자 썼습니다."

하루 8시간씩 작업했다는 이씨의 〈법화경〉 병풍은 그 글씨가 단아하면서도 수려하다. 법화경 병풍은 괄쳤을 때의 길이는 무려 55m로 세계 최장의 불경병풍이 될 전망이다.

서예 경력 35년으로 그간 초대전 4회, 개인전 10회를 가진 바 있는 이씨의 법명은 '법인(法印)'. 이전에도 금강경 전문 병풍을 1백벌 이상 썼을 만큼 경전을 즐겨 쓰고 있다. 제주 관음사 중수비, 고관사 허응당 보우순교비 등 비문도 그가 썼다. 내년부터 3년예정으로 〈화엄경〉 전문 사경첩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밝힌다.

"요즘과 같이 가치관이 혼돈되고 인간가치가 상실돼가는 말세시대를 사는 중생들을 깨우치고 일체중생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해주고 싶다"는 이요환씨는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도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서예개인전을 열고 세계 최장의 법화경병풍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경주 남산 '마애여래입상' 발견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여래입상이 경주남산에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산 문화유적 분포도를 만들고 있는 신라문화동인회 송재중씨(50·신라중 교사)는 최근 경주시 배동 서남산 선방골 정상부근에서 기둥모양의 자연암석에 선각된 불상(높이 2.08m)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쪽 경주시가를 굽어보도록 배치돼 있는 이 불상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마멸돼 얼굴부위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머리에 육계를 비롯 두광, 신광, 연화대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송씨는 "등산로 바로 옆 바위인데도 바위자체의 그늘로 인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세밀하고 부드러운 옷주름이나 구도로 봐서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환수문화재 볼 기회
은석고미술관 개관 전시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신기한씨(78)는 최근 종로구 연지동 은석빌딩에 은석고미술전시관(90평)을 마련, 7일까지 개관기념전 '해외환수문화재 명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좌상을 비롯 청자 백자 연적 등 미공개 문화재 도자기 1백20점의 고미술품을 선보이고 있다.



◇ '금동보살좌상'

불심시심 〈91〉

마음은 달에 맞아 맑다

文筆兩兼勝 (문필양겸승)	글이나 글씨 모두 뛰어나
做工甚潔精 (주공심결정)	힘쓰는 공부 심히 정결하다
志高香岳秀 (지고향악수)	의지는 높아 향산처럼 빼어나고
心契月波淸 (심계월파청)	마음은 달 물결에 닿아 맑다
道態超人白 (도태초인백)	도의 모습 뭇 사람에게 뛰어나 희고
詩情出類明 (시정출류명)	시의 정서는 사물을 벗어나 밝다
千年蕭寺上 (천년소사상)	천년의 쓸쓸한 절에서
朗詠眞佛聲 (낭영진불성)	낭랑한 읊음, 바로 부처님의 소리

이 시는 월파(月波·1659~?)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태율(兌律)이고 월파는 호이다. 위의 시는 '원혜스님에게 준다(贈圓慧師)'는 시이다. 상대방에게 주는 시이기에 그 내용은 받는 이의 인격에 맞는 서술이겠지만, 시어의 구성으로 보아서는 작자인 월파대사의 평소의 소신인 듯도 하다. 원혜스님의 뛰어난 시문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도태(道態)나 시정(詩情)을 찬미하였지만, 이러한 자세 자체가 작자의 평소 소신이다.

어떤 대상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회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글을 쓰는 이의 일상적 자세일 것이다. 이 시도 이런 점을 연상할 수 있어 원혜스님을 기리면서 은연 중에 자신의 시정이나 도태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진에 힘쓰는 원혜의 지조가 묘향산처럼 뛰어났으며, 그 마음은 달빛에 비친 물결만큼이나 아름답다. 여기에 인용된 달 물결이 바로 스님이 자신의 호로 삼은 월파이니 이것이 바로 대사의 평상적 표현이다. 이 점이 원혜를 기리면서 자신의 평상심을 시어로 삼아 보는 자세였다 하겠다.

다음 구의 도태나 시정의 대구도 재미있다. 자연 진리인 도에는 모습이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모습(態)으로, 자연 진리의 표현인 시에는 성정의 한 갈래인 정서(情)로 표현한 대사의 시어 선택에서도, 그의 시는 진리의 참 모습인 도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태에서 우러난 시이기에 이 시의 읊음이 바로 부처님의 소리이었다. 월파대사의 이 시가 어쩌면 모든 스님들이 시를 사랑하는 이유를 한 말로 대변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자연의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소리이고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스님들의 시임을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체부 지자체

문화유적 재정비작업 '열기'

경주남산살리기등 5개년계획 수립

문화체육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절된 역사와 문화를 잇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제2차 5개년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을 수립, 2002년까지 신라 백제 중원 등 7개 문화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유적 정비 및 보수에 들어간다. 문화권유적 정비사업은 역사상·학술상 또는 지정학상으로 공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권역을 1개의 문화권으로 묶어 동 권역에 있는 주요 유적을 체계적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

많은 불교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신라문화권은 총 3백17억여원을 들여 사찰터 석탑 왕릉 등이 있는 황룡사지와 경주 남산일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황룡사지 정비에는 92억8천만원, 경주남산에는 60억원이 배정됐다.

부여 공주 익산 논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은 정림사지, 미륵사지 석탑, 관촉사 등의 정비에 105억을 배정하는 등 총 463억으로 중요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복원 정비한다. 남한강 주변에 많은 불적을 가지고 있는 중원문화권은 1백48억원을 들여 법천사지·거돈사지(사적 168호) 등 6건의 문화유적을 정비 복원한다.

충북 충주시는 고려초의 석굴사원으로 알려져 있는 미륵리사지(사적 317호)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02년까지 총 56억원을 들여 석실복원과 유물전시관 건립은 물론 조경시설도 갖춰 역사적인 문화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2억4백억원을 들여 3층석탑 주변 석축12m 등 1백m가량의 석축을 정비하고 석실은 해체복원하기로 했다. 또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7천7백여㎡를 매입, 안내판 설치, 유물전시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전남 광양시는 신라말의 고승 도선국사가 입적한 옥룡사지를 발굴, 복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옥룡사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천대 박물관(팀장 조원래교수)이 1, 2차로 나눠 발굴할 옥룡사지는 지난 3월 부도터 발굴조사에서 도선국사와 통진대사의 쌍비쌍탑자리 및 석함내 유골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 발굴은 사지 전역을 대상으로 사찰의 창건 시기와 규모, 용도, 모습 등을 찾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인천광역시도 16억여원을 들여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로 알려진 선원사지(사적 259호)에 대한 재발굴을 실시, 1차발굴의 미비점을 보완해 2002년까지 민족문화의 성지로 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석〉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간 충북 중원 미륵리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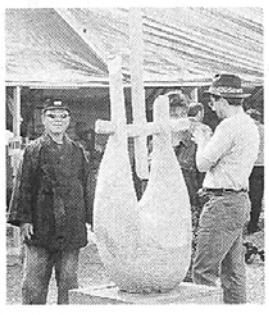
◇제1회 불교사경대회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는 동방연서회 김응현이사장 등 심사위원들.

김경호씨 대상 '영예'
동방연서회 사경대회

(재)동방연서회(이사장 김응현)가 주최해 6월 20일 서울 총정사에서 열린 제1회 불교사경대회에서 김경호씨(연희서실 대표)가 대상을 차지했다.

서예가 김응현 선주선 여원구씨등 서예가와 예선을 거친 일반인 등 총 53명이 참가한 이번 사경대회에서 금상은 이쾌동씨, 은상에 한태석 이정호씨 등 총 14명이 입상했다. 동방연서회는 4~6일 운현궁미술관에서 입상작 전시회와 시상식을 갖는다.

(02)733-0131



◇박찬갑作 '동서의 만남'

국제 목조각심포지엄
박찬갑씨 작품 '호평'

조각가 박찬갑씨가 6월7~15일까지 덴마크 호요시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목조각 심포지엄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영국등 14개국 작가 20명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박씨는 동양 삼재(천지인)사상을 기본으로 한 남과 북, 동과 서의 만남과 화합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창작판소리 '사명대사'를 공연하고 있는 이용배거사(왼쪽).

이용배씨 판소리 '사명대사'
1천여명 관람 '감동합장'

용담 이용배거사(70)의 창작판소리 '사명대사' 발표회가 6월 21일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1천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성료됐다.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의병장 사명스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승과급제, 개오, 의병활동, 열반 등 일대기를 구성진 판소리에 담은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절절한 감동을 안겨주며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를 한층 빛낸 값진 공연이라는 평을 얻었다.

이용배거사는 오는 8월 카나다 불교계의 초청으로 판소리 '사명대사'를 공연한다.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번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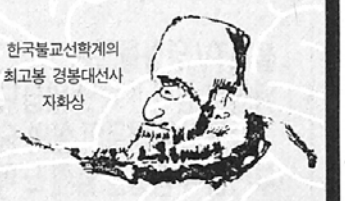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지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옛것의 가치' 재확인

민속학자 故 예용해선생 추모전집 발간

"송광사 벽면 해묵은 불화를 바라보며 아침저녁 대자대비 언제나 고즐한 웃음이 가시지 않은 아름다운 부처님들의 모습을 마음의 벗으로 삼았다.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처님 그리는 정에 모자랐다. 그 모습을 옮겨보고자 붓을 들었다. 백지에다 그리고 또 그렸다"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찾는데 평생을 바친 민속학자 故 예용해선생(1929~1995)은 60년대초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인간문화재' 시리즈 기사에서 금어(金魚·불화를 그리는 승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 유형문화재에 한정된 우리나라 전통문화정책을 인간에 의해 전수되는 전통기능과 예능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했던 예용해선생은 지금은 보편화된 '인간문화재(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정착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 95년 4월 지병으로 타계한 선생의 2주기를 맞아 최근 나온 〈예용해전집〉(대원사 刊)은 독실한 불자이자 탁월한 식견의 민속학자였던 예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글들을 모은 전집으로 문화유산의 해를 한층 뜻깊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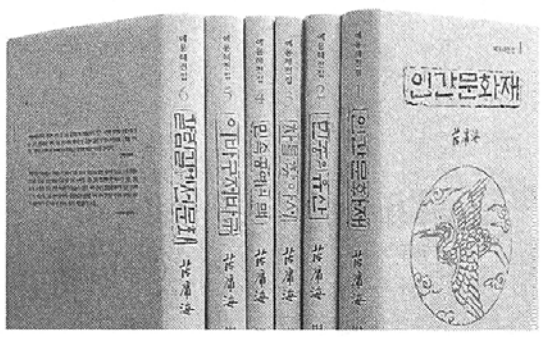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유전 국립민속박물관장, 경기도 가평 지선암의 홍선스님 등 13인으로 구성된 '예용해 전집 간행위원회'가 발족, 선생이 생전에 남긴 문화관련 글들을 모아 이번에 책으로 발간했다.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용해전집〉가운데 제1권 〈인간문화재〉는 단청 어장 가곡 관소리 오광대 나전칠기 백자도공 조각장 등 모두 62분야에 걸친 전통기능인들의 고습을 담고 있다. 지금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꽃담과 장독대, 갓, 비녀 등 우리 생활속에 자리했던 전통공예품들은 제2권 〈민중의 유산〉에서 실었다. 예선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열정은 차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져 제3권 〈차를 찾아서〉에서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 선사의 연보 대비표를 함께 수록해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옛사람의 발자취를 간편히 볼 수 있게 했다. 제4권 〈민속공예의 맥〉은 전국을 답사하며 조사한 우리나라 민속공예의 실태를 담았으며 그동안 예선생이 잡지, 신문 등에 기고한 수필 단상들은 제5권 〈이바구 저바구〉와 제6권 〈갈림길에 선 문화〉로 정리해 놓았다.

이 전집에는 우리전통문화를 사랑하고 그 보존과 전승을 염려하는 예용해선생의 마음을 특유의 필치와 운율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인간문화재·민속공예 등 이해 길잡이
생전에 남긴 문화관련 글 6권에 담아



전 중앙승가대 학장을 지낸 혜성스님(호국지장사 회주)이 화갑기념 불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을 발간했다.

이 문집은 57년 청담스님에게서 득도(得度)한 이후 75년 청담학원을 설립하고, 이후 혜명복지원을 운영하는 등 불교포교에 앞장서 온 스님의 행장을 그대로 담았다.

제1편 출가기에서 스님의 출가 일기를 다루고 있으며 제2편 수행기에서는 〈불교사회복지의 정당성〉 〈도선사와 도선국사〉등 스님의 논문과 〈자비무적〉 〈불전100선〉등 스님의 저술을 한데 모았다.

제3편에서는 80년 10.27법난 일기를, 제4편에서는 언론매체에 투영된 스님의 모습을 각각 실었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설산스님, 도현스님, 심재열법사, 이근우선생 등이 혜성스님과의 인연이야기를 실었다.

혜성스님의 화갑기념법회는 1일 10시 도선사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혜성스님 화갑기념 불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 펴내

반야이취경 강해 | 혜능 편역 | 밀교 기본경전 성립과정과 내용



화제의 책

반야공의 지혜를 밀교적으로 전개시킨 〈반야이취경〉을 팔공산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율학을 연찬하고 있는 혜능스님이 편역했다.

밀교의 기본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반야이취경〉이 어떤 경전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는지, 또한 가르침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경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대락(大樂)'이라는 성적인 쾌락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경지를 인간의 심정에 가탁한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종교체험의 극치를 말한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인간생명의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늘 때 대락은 청정한 보살의 경지라고 이경은 대담하게 설하고 있다. 이 책은 대락사상을 17청정구(淸淨句)로 모으고, 그것을 현실을 긍정하는 반야실상의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공은 대락의 세계라는 것을 역설한다.

"寫經으로 무더위 이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더위로 인해 자칫 몸과 마음이 해이해질 이때 사경(寫經)을 통해 불심도 다지고, 더위를 이겨보면 어떨까. 사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덕을 지니고, 불자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불교수행법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불교서점가에 다수의 사경서들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사경서는 16권.

'반야심경 사경' 등 16권
불서점들 좋은자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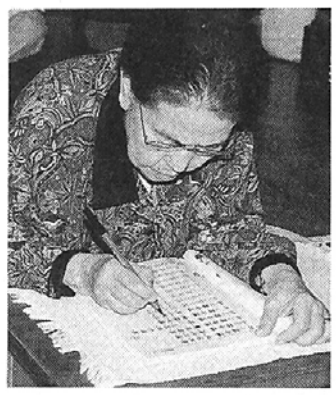
이들 사경서들은 단순한 사경에서 경전 공부까지 겸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는가 하면, 사경을 시작하기전에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발원문, 사경의 공덕과 의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금강반야바라밀다경 사경〉(불광출판부), 〈반야심경 사경〉〈금강경 사경〉(석림서원), 〈한자 펜글씨반야심경〉(운주사), 〈사경본 부모은중경〉(여래) 등은 경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한자원문을 실어놓았다.

〈쓰면서 깨치는 법구경上〉(이바지)과 〈초발심자경문 사경 및 공부〉〈예불문 사경 및 공부〉〈반야심경사경 및 공부〉〈아미타경 사경 및 공부〉〈천수경사경 및 공부〉〈금강경사경 및 공부 上中下〉〈법성게한자공부〉(좋은인연)등은 사경과 함께 불교용어와 경구에 대한 간략한 해설도 곁들여 처음 사경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했다.

또 〈지장십륜경서품 지장보살예찬문〉(사경공덕원)은 한문과 한글을 각각 실었으며, 〈지장보살사불〉(토방)은 지장보살을 밑그림에 따라 그리도록 해놓았다.

이밖에 〈불교천자문〉(우리출판사)은 불교경전에 나오는 불교용어 풀이 및 경전의 중요구절 해석을 통해 한문공부와 불교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사경서다. 〈은〉



출판소식

중국불서 수입 판매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이 중국불교서적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중국불학인명사전〉(중화서국 刊), 〈현장대사소전〉(해봉 刊), 〈중국선종통사〉(가소고적 刊)를 비롯 불교사전, 경전, 불교사, 선관련서 등 64권이 현재 전시 판매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국 불교서적을 수입, 판매할 계획이다.

(02)737-0695

'만해새얼' 여름호 나와

계간 만해사상 실천운동지 〈만해새얼〉 여름호(통권 5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특집 '국토의 숨결을 찾아서'를 비롯, 제1회 만해시인학교 특집 시단으로 오세영, 이가림, 오탁번, 나태주시인등 26인의 시와 에세이를 소개했다.

'시공총서' 50권 돌파

시공사(대표 전재국)가 펴내는 '시공디스커버리총서'가 50권을 돌파했다.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의 '데쿠베르총서'를 옮긴 이 시리즈물은 인류가 일궈 놓은 문화, 예술, 종교, 철학, 과학등 정신산물을 포켓북 크기로 엮은 백과사전식 교양서. 이번에 출간된 책은 〈앙코르-장엄한 성벽도시〉 〈기호의 언어-정교한 상징의 세계〉 〈부두교-왜곡된 아프리카의 정신〉등 41~50권에 해당하는 10권이다.



대만 '禪만화' 국내 인기몰이

선설·육조단경 등 19개 언어로 번역

'이심전심 불립문자(以心傳心 不立文字)'를 만화로 깨치자.

심오한 이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선불교(禪佛敎)의 가르침을 익살스럽게 그려낸 선(禪)만화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사는 지혜가 담긴 대만의 선만화가 채지충씨의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의 한글 번역본이 그것.

유, 불, 선의 고전에서 중국의 기담까지 폭넓은 소재를 택해 만화라는 매체를 이용,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이 시리즈는 91년 호산문화에서 장자 공자를 시작으로 95년까지 32권을 발행, 지금까지 30만권이상이 팔려나간 스테디셀러다.

이가운데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 〈육조단경〉을 비롯 선불교의 일화를 다룬 〈선설(禪說)〉과 〈소림사〉, 〈서유기〉 등 선불교관련서들이 최근의 명상서적붐과 함께 불자들에게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

특히 〈육조단경〉과 〈선설〉은 조당집, 벽암록, 경덕전등록, 무문관 등 중국의 선어록가운데 흥미를 끄는 에피소드를 가려 뽑아서 간결하고 해학적인 웃음속에 선이란 무엇인가를 자못 진지하게 가르쳐 준다.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중에서도 〈육조단경〉과 〈선설〉은 2만부이상이 팔려나가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고 말하는 호산문화 고애란대리는 "채지충씨가 현재 석가모니의 일대기도 만화로 제작하고 있어 완성되는 대로 출판계약을 맺어 번역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채지충고전만화시리즈는 이미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서 19개 언어로 출판돼 전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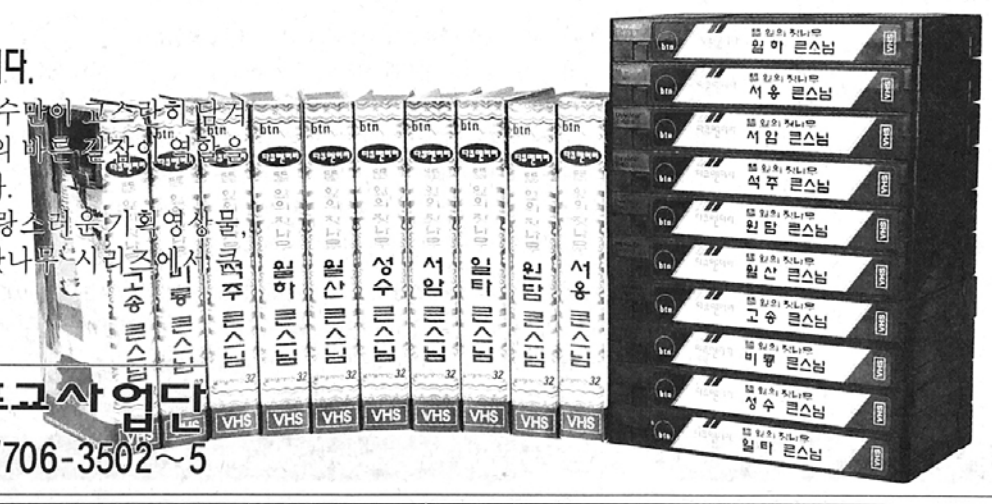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효림
2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필화	한언
3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원	가람기획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6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청광	지식산업사
7	암자로 가는길	정찬주	좋은날
8	두번째 출가	현진	새날
9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둥지
10	명상길라잡이	박석	도솔

구입문의:(02)737-0695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편지를 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정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에코페미니즘 - 불교생명관 상통"

불교환경교육원 심포지엄서 주장

환경·여성운동 '無我' '색즉시공' 지향
자연친화적 가치관 21세기 대안이론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과 불교가 [illegible]났다. 지난 21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illegible]원장 법륜)이 '에코페미니즘과 우리의 [illegible]성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illegible]서 에코페미니즘의 생명존중 사상이 불 [illegible]의 불이(不二), 空사상 등과 연관성이 [illegible]있으므로 불교가 21세기 대안이론으로 [illegible]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주 [illegible]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김정희씨(서강대 강사)는 '동양사상과 생태여성론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에서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은 생명존중 사상"이라며 "개별 인간만을 강조한 서구 자본주의가 인간과 자연, 남자와 여자 간에 지배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등 서구사회의 정신적 표류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에코페미니즘은 모든 존재를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해 환경과 여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경향"이라며 "〈화엄경〉〈금강경〉〈중관론〉 등에 나타난 불이(不二),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일체개고 실유불성(一切皆苦 悉有佛性) 사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가 에코페미니즘과 같은 신 사상·문화운동을 수용하는 등 제반 사회과학과의 비교·연구를 확대할 때 비로소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김정희씨는 구조의 변혁에만 머물러 있는 서구적 에코페미니즘에서 한층 나아가 무아(無我)를 깨닫고 인간의 내적 변혁을 추구하는 동양적 에코페미니즘을 제안했다.

'한국 근대 종교사상에서 나타난 여성과 에코페미니즘'을 발표한 하정남교수(영산대학교)는 "에코페미니즘은 인류가 환경문제를 자각하면서 지구가 인간의 유일한 거주지이며 식물·동물·인간은 하나의 몸이기에 지구가 죽으면 인간의 존재도 사멸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에서 등장했다"며 "따라서 개개의 존재들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원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에코페미니즘은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에코페미니즘 이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인 에코페미니즘은 환경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의 만남이다.

지구 환경의 위기와 여성의 억압구조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공동요인을 찾아 문제를 풀자는 이론이다. 즉 환경·여성문제가 가부장적인 자본주의의 억압과 불평등한 관계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환경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인 남성과 인간을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는 입장에서 이들의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만물의 조화와 화합을 강조한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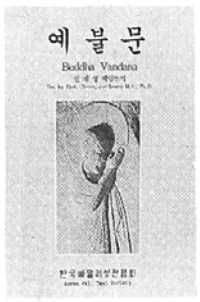
환경과 여성운동의 만남 어울림과 균형 강조 이론

국내엔 여성중심의 환경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90년초 첫선을 보였고, 이론의 참신성과 실천적 가능성으로 국내 환경·여성 운동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삼귀의'를 이렇게 번역한 국내 최초의 팔리어 예불문이 번역 출간됐다.

한국팔리성전협회(회장 전재성)가 출간한 이 책에는 예경, 꽃 공양, 서원 등 부처님 재세 당시의 예불의식 총 21가지가 수록됐다. 전재성회장은 "기존 예불의식과 사뭇 다르지만 한글 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적인 어휘를 선택하는 등 예불의 원뜻과 현대성을 살렸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전국순회강연'을 계기로 이 책을 널리 소개하겠다"고 말한다.





'팔리어 예불문' 첫 번역출간
성전協, 부처님 당시의식 21가지 수록

성전협회는 이외에도 팔리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 문법·독해·사전 등으로 구성된 〈기초 팔리어 문법〉도 함께 출간했다.

한편 6월21일 광주 광륵사(주지 능인)에서 열린 한국팔리성전협회 창립법회에는 스리랑카 쎄나비라 뜨네 대사, 상명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도성스님(태종사) 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1천개의 연등을 밝히고 '1천일기도' 입재식을 가졌다.

"원효설화 변천 살펴보면 시대별 민중의식 알수있다"

오대혁씨 '원효설화 구조와 의미' 발표

원효스님 관련 설화의 변천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 뿐 아니라 당시 민중의 바람과 의식의 변천사까지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오대혁씨(동국대 국어국문학 박사과정)는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에서 "원효설화는 일연스님, 고려·조선의 민중, 중국·일본의 승려계층, 조선후기 사지(寺誌) 기록계층 등 이 설화의 전승과 수용의 주요 계층을 구분해 연구하면 당대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식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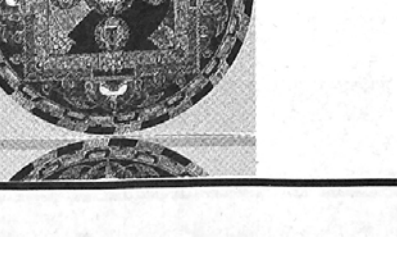
오씨에 따르면 일연스님은 〈삼국유사〉의 '원효불기조'에서 원효설화를 탄생·대중교화·창사·관음설화 등으로 기록했고 고려·조선의 민중은 이 설화를 찬미와 흥미거리로 각색했으며 중국·일본 등에서는 고행·성도설화로 전승했다.

오대혁씨는 "원효설화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설화를 읽고 전승한 수용자의 태도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승려들은 설화를 통해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전승하고 대중의 신심(信心)을 강조했으며 원효설화의 아류가 고려·조선의 민중들에게 널리 퍼졌는데, 이것은 민중들이 삶의 고난을 승화시키기 위해 설화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씨는 "원효설화에서 고려·조선시대의 불교의 성쇠(盛衰)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 뿐만 아니라 당시 민중의 바람과 의식(意識)의 변천사까지도 짚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학연구회(회장 이종찬)의 〈불교문학〉(가을호)에 게재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학·불교미술
세계 유수 불교학 연구소·미술관 순례기회



인터넷 상에서 브리스톨대학(영국) 코넬대학(미국) 리덴대학(네덜란드) 등 해외의 유수 대학의 불학(佛學) 연구소와 홍콩, 일본, 미국 등지에서 상설된 불교 미술관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사이트이다.

랜달 스코트(45, 美)가 개설한 'BSA'는 일본인 요주(Yoju)의 지조(Jizo) 조각품 9점을 비롯해 총 45점의 불교 미술품 그래픽을 제공한다.

리덴대학이 1993년 개설한 '아시아 국제연구소'와 현재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과학재단' 등 불학연구소 25곳의 선적(善積) 데이터와 뉴스레터도 열람할 수 있으며 '아시아 국제연구소'는 불교교리와 관련된 50여개의 텍스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BSA'는 정토진종 상좌부·티벳·중국·일본·한국불교를 비롯 정토진종, 일련종, 선불교 등 종파별 분류를 통해 총 60여개 사이트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어·팔리어·티벳어·한국·일본 등 불학(佛學) 관련 언어의 폰트(글자)도 제공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학문 교류를 돕고 있다.

주소 http://avocado.wustl.edu/~rrscott/#Arts

나와 경전 13
지장경



반 영 규
'자비의 소리' 대표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못하고 더구나 근기까지 낮아서 많은 경전을 읽지도 못했고 또 경을 읽는다 해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마음만은 늘 부처님을 생각(念佛)하고 설하신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독송한 몇몇 경전중에 〈지장보살본원경〉이 특히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다른 보살님들처럼 보관(寶冠)도 쓰지 않고 맨머리에 석장을 들고 계신 소박한 모습의 지장보살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네 이놈, 네 소행이 어찌 그러냐?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 하고 착하게 살렸다!" 하고, 금지옥엽 귀여운 자식이지만 엄하게 타이르는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엄하게 훈계하시지만 미혹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고, 울며불며 지옥에 끌려가 말 못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어쩌다가 못된 짓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자식 옥바라지를 하는 애틋한 모정(母情)처럼 무간지옥까지 찾아다니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원해 주신다. 얼마나 인간적인가. 그래서 더욱 중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죄인들을 아무나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지극하게 구원을 바라는 죄인만 구원을 해 주신다. 무간지옥에서 고통에 못이겨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아비규환) 장본인이 못하면 인연있는 피붙이라도 대신 지장보살님의 구원을 청해야 한다. 목련존자가, 살아 생전에 못된 짓만 하다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대신하여 참회를 하고 당시의 선지식들에게 정성껏 대중공양을 올리고 어머니를 구원했듯이. 또 〈지장경〉에 나오는 광목녀(廣目女)가 각화정자재왕여래께 지극하게 기도한 끝에,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원했듯이.

물질만이 지상의 보배인 양 착각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탐욕을 부리느라 술한 죄를 짓고 사는 현세 말법시대의 우리들이야말로 무간지옥행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멍청하게 앉아서 무간지옥을 갈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한, 아니 전력을 다해서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원(願)을 세워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 그럴려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이 제격이다.

〈지장경〉에, 지장보살을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좋은 과보를 누리게 되며 혹시 악도(惡道)에 떨어졌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수명이 늘고 죄가 사라지며, 삼칠일 동안 "지장보살, 지장보살, …" 하고 외면 지옥까지라도 찾아가시어 꺼내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처음 마음을 끝끝내 지켜가면 마침내는 금빛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시며 "너는 장차 부처를 이루리라"고 수기를 내리신다고 했다. 참으로 고맙고도 고맙지 않은가. 온갖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대지(大地)처럼 후덕하고 고마운 보살이라 해서 지장보살 이라 일컫는다고 한다. 지장보살은 현세에서도 이익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저 세상(冥府)까지도 구제해 주시는 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미륵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때까지 모든 육도 중생들을 구원하고 고통에서 건져낼 것을 부처님께 위촉받고 또 스스로도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다 구원하고 모두가 성불한 연후에 스스로 성불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것이다.

이 경은 비교적 길고 번다해서 독송해도 그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화엄경 약찬게처럼 간결하게 요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요점을 간추려 운(韻)을 붙여 독송하기 좋게 엮어보았다. '불밭에 피는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 도서출판 화은각에서 펴 냈다. 고맙게도 김희경씨가 곡을 붙여 지난해 공연을 해 큰 호응을 받았고 CD로도 나와 있다. 어느 스님께서는 목탁에 맞춰 독송을 해 보았더니 신심이 나더라고 격려를 해주신 일도 있다.

요사이처럼 온갖 고통과 재앙, 악행이 난무하는 말세에 〈지장경〉으로 공덕을 짓고 크고 작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장경〉독송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대이다.

"탐욕부리다 술한 죄 짓는 말법시대
'나무 지장보살 …' 참회독송 업장소멸"

티벳의 세계적 고승 난치병 진료 초청법회

부처님이 탄생하신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산의 티벳 깊은 곳에서 모진 고생의 수도로 신령한 약초를 찾아 내고 난치병을 고치는 영험한 초능력을 얻어 얼굴만 보고 병을 진단하는 77세의 도닥 라마스님은 티벳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로 티벳성자이고 왕인 까르마파를 가르친 16대 및 17대 왕사를 치료한 주치의사이며 역시 현재 티벳 최고 성자이고 왕인 「다라이라마」의 왕사를 치료하는 주치의사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이번에 여래원에서 **도닥라마스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희귀한 약초로 만든 영약으로 불자들이 육체적 난치병을 고치고 정신적 평안을 얻고 한가지 소원을 성취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하늘에서 온 우주의 그림인 만다라 탱화를 친견하여 축복을 받으며 재액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친필 티벳부적을 지닐 수 있는 인연을 맺고저 법회를 개최 하오니 평생에 한번쯤 있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닥 라마」스님을 수행하는 상계 라마스님과 노노라마스님은 유명한 만다라를 조성하는 작가입니다.



▣ 법 회 일 시 : 1997년 양력 7월 5일부터 7일까지(3일간)
▣ 전 화 접 수 : 대구(053)655-3027 · 2227(7월 3일까지 선착순 1일 100명 마감)
▣ 법 회 주 최 : 여래원한방(대구시 달서구 본동 1138번지)

새싹불자에게 양서 2만권 나눠드립니다

여름불교학교 동참 어린이 대상… 7월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 책방 '여시아문' 주최

내일을 이끌 새싹불자는 소중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새싹불자를 키우는 전국의 스님과 지도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책방 여시아문과 공동으로 교계 출판사의 후원을 받아 사찰 및 각 단체에서 벌이는 어린이 여름방학 특별행사를 독려하고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및 수련대회 등 여름방학 행사에 참가하는 전국의 불자 어린이들에게 책1권씩을 무료 증정하고자 합니다. 비록 작지만 어린이들에게 흐뭇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증할 도서는 모두 아동물이며 불교전문 출판사 불지사와 아동전문 출판사 동쪽나라 한민사 등에서 출판한 44종의 양서 2만권입니다.

새싹불자들에게 책을 읽힙시다.

불자들은 타종교인보다 독서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원인 가운데 큰 것으로 참선과 기도, 염불 등 수행의 방편이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불교장래를 밝지 않게 하는 불행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독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걱정하는 소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책이 가까이 있으면 책을 읽게되기가 더 쉽습니다.

여름방학은 어린이들이 책을 접하기 좋은 때입니다. 특히 학업이나 과외활동으로부터 벗어난 독서체험은 어린이들 앞날에 귀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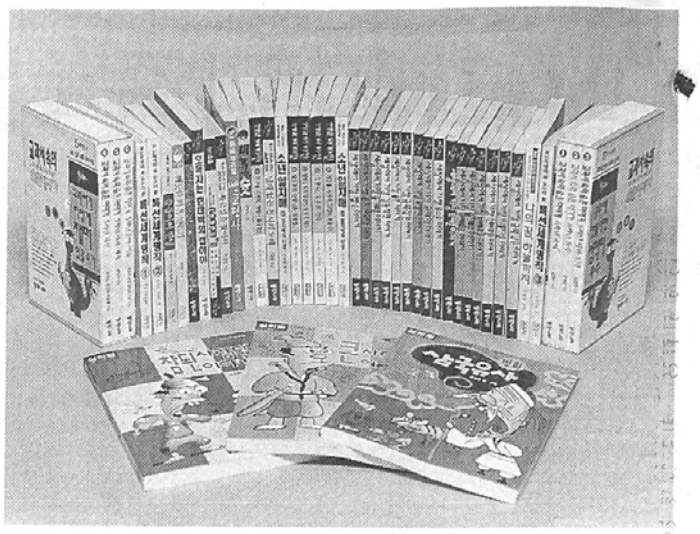
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벌이는 이번 행사에 전국의 주지스님 및 단체장 그리고 지도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신청안내

- **대상**: 여름불교학교 · 어린이법회 새싹불자
- **부수**: 참가예상 인원 1명당 1권씩
- **신청서류**: 여름불교학교 계획서(주지스님 또는 단체장 확인요망)
  ※우편 또는 곽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37-0696)
- **접수**: 1997년 7월14일~7월28일(선착순)
- **배본**: 1997년 7월19일~7월31일
- **수령방법**: 직접 본사에 오시거나, 받는이 지불로 택배해 드립니다.
- **주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기증 도서목록

도 서 명	저 자	도 서 명	저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황순원 외 지음	파이팅 손오공 (하)	이정문 글 · 그림
세상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야기	고은 엮음	만화 삼국유사	윤승운 글 · 그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김정빈 엮음	큰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글 · 그림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	김형균 엮음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글 · 그림
세상에서 가장 알고싶은 이야기	박상률 엮음	선생님은 외계인 1 · 2 · 3 · 4	브루스 코빌 지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이야기	김형균 엮음	별을 보는 아이	이동진 지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방정환 외 지음	황금말을 찾아서	서성원 지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	모파상 외 지음	날개 없는 천사의 노래	김인만 지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위영란 엮음	작은 사랑 이야기	엘리나 퍼즌 지음
세상에서 가장 별난 이야기	양태석 엮음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지음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정회성 엮음	행복이 담긴 통화	엘리나 퍼즌 지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김성화 엮음	키키는 13살	가도노 에이코 지음
세상에서 가장 금쪽같은 이야기	장입조 엮음	나는 로봇이야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	명지연 엮음	페쟈의 통나무집	아나불리 김 지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정채봉 외 엮음	외로운 승부사들	기영노 지음
교과서 속의 숨은 이야기 5학년 (국어 외 5권)	김정빈 외 엮음	덩크슛	기영노 지음
		나는 꼬마요리사	장애현 지음
교과서 속의 숨은 이야기 6학년 (국어 외 6권)	김정빈 외 엮음	오독자는 한대박의 캡이야	권수진 지음
		뗑코형사	양태현 엮음
아인슈타인도 배워야 할 상식특급	동쪽나라 엮음	콜비콜비	이기원 글 · 남지우 그림
소크라테스도 배워야 할 상식특급	동쪽나라 엮음	꼭지의 일기	이향원 글 · 그림
에디슨도 배워야 할 상식특급	동쪽나라 엮음	차령이 노래	고은 지음
파이팅 손오공 (상)	이정문 글 · 그림	'97 신춘문예 당선 동화집	김지은 외 지음



여름수련대회 참가기 모집

여름방학 사찰에서 열리는 어린이 · 청소년 여름불교학교가 이제는 자리매김했습니다. 웬만한 사찰에서는 짧게라도 여건에 맞춰 특성있는 여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어린이 · 청소년들은 신앙적 성숙은 물론 사회성 · 인격함양에도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에서는 불자어린이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 참가기를 모집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에의 참가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스스로 정리해 본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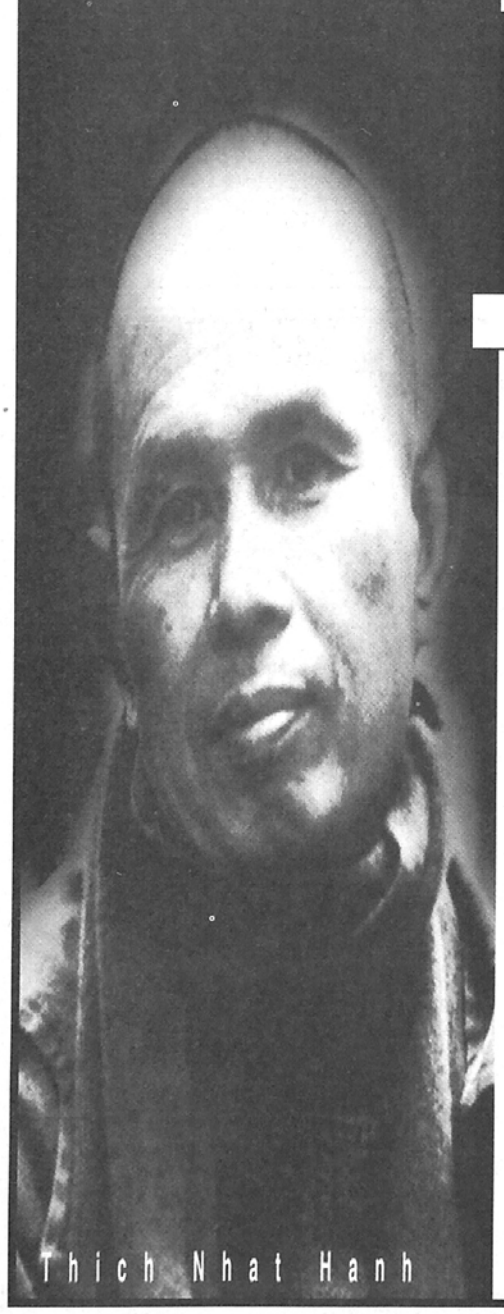
어린이 · 청소년 누구나
원고지 5매… 8월15일까지

하겠습니다.

불자어린이 ·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채택된 작품은 본지에 게재하고 선물도 드립니다.

≪참가요령≫
- ◇대상: 어린이 · 청소년 불자 누구나
- ◇불량: 200자 원고지 5매 안팎
- ◇마감: 1997년 8월15일
- ◇접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전화 02-722-4162)

금쪽같은책 세계적인 지성과의 만남을 향해 한민사에서는 〈금쪽같은 책〉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허물어라! 종교 간의 벽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다.
읽을수록 무럭무럭 피어나는 감동의 신앙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심금을 울린, 바로 그 책!

살아 계신 붓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Living Buddha, Living Christ

틱낫한 지음 / 오강남 옮김 / 신국판 / 값 7,000원

인류 역사에 핀 가장 아름다운 두 송이 꽃, 붓다와 그리스도의 가르침!

당신이 진정 행복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훌륭한 불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정 행복한 불제자라면 당신은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붓다와 그리스도의 삶, 그들이 남긴 가르침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위대한 두 종교가 인류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성자 틱낫한 스님은 이러한 종교 간의 제 문제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감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틱낫한 스님은 우리에게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땅 위의 평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달라이 라마 (His Holiness the Dalai Lama)**
- 틱낫한 스님은 인종으로나 국적으로 나에게 가까운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 가까운 나의 형제다. 그와 나는 사물을 꼭 같은 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토마스 머튼 (Thomas Merton)**
- 그는 성인이다. 평화에 대한 그의 생각들이 적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 간의 화해와 세계의 우애와 인류애를 향해 나아가는 기념비를 이룰 것이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 나는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스님은 신구약 성서를 소상히 공부하고, 폴 틸리히, 토마스 머튼 등 신구교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여 이론을 꿰뚫고 있다. **강원용 목사**
- 틱낫한 스님은 심로 지난 30년 이상을 평화에의 간절한 헌신으로 보내 온 동시대의 진정한 구도와 보살의 동체이다. **고은 시인**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3층 한민사 전화 / 263-1945 팩스 / 263-1946

금쪽같은책

No Destination

사티쉬 쿠마르

Satish Kumar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일깨우는
평화와 비폭력을 향한 감동적인 삶!

정신혁명과 녹색운동의 성자로 불리는 사티쉬 쿠마르의 자전적 수행기!

일찍이 아홉 살 소년 시절에 자이나교 승려로서 치열한 수행생활을 경험했고, 열여덟 살 청년 시절에는 간디의 비폭력과 평화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사람….

열강의 핵무기 폐지를 위해 무일푼으로 인도에서 러시아,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까지, 오직 걸어서 18개월 간 3만 리의 평화 순례를 감행했던 사람….

동지이자 스승인 E. F. 슈마허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인 녹색사상 연구 · 교육기관인 '슈마허 대학'을 설립 · 운영한 교육가.

마하트마 간디의 인간애와 버트란드 러셀의 지성과 마틴 루터 킹의 용기를 한 몸에 구현하고 있는 현대인의 스승, 사티쉬 쿠마르!

"한 편의 대서사시와도 같은 경이로운 삶의 기록…"(인디펜던트)

"그 온화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사티쉬 쿠마르는 우리 시대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웨스턴 모닝 뉴스)



사티쉬 쿠마르 지음 / 서계인 옮김 / 신국판 / 값 7,000원

"문화재보호 우리손으로…"

대불청 제16차 전국청년대회

창립 77돌 기념 1천여명 화합마당
북녘돕기등 청년불교도결의문 채택

"누가 우리에게 정법의 길을 가라 하지 않아도 진리에 대한 신념있는 한 우린 여기 모이리. 이제 여기 불법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보이기 위해 너와 나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린 여기 모이리."

6월21일 오후 6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 서울지구 노래단 소리바라기가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해'라는 곡으로 제 16차 전국불교청년대회(준비위원장 최은선) 개막을 예고하는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각지 1천여명의 회원들이 속속 참가하기 시작했다.

'환경과 민족문화 수호를 향한 청년불자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불청대회는 창립 77주년을 맞아 청년불자들의 단결과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불꽃과 폭죽으로 장식된 전야제는 이날 발족한 민족문화재지킴이 배상훈단장과 청년호법단 남도회단장의 결연한 의지가 발표되면서 절정을 이뤘다.

세계불교도청년회(WFBY) 사무총장 사따니 키티아디사이씨(태국)는 "불청대회는 그야말로 청년불자들이 단합하고, 친선과 우정을 다지는 열린 장으로, 전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는데 불청대회가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연신 맺히는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눌러 닦아냈다.

매끄러운 진행과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주최측의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서 돋보인 불청대회는 본대회가 열린 22일, 밤새 도착한 회원들이 합류해 열기를 더했다. 지



◇제16차 불청대회에서는 청년호법단·민족문화지킴이를 발족시키는 등 청년불교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전 일본불교청년회장 부부, 스리랑카 청년회장, WFBY 사무총장 등 각국 청년단체대표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선스님(백양사 주지),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을 비롯 전 일본불교청년회장 에이깐 미주타니 부부, 스리랑카 청년회장 반둘라 아베나 나에베,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교계내외 주요인사들이 연단을 가득 메운 가운데 낭독된 강독은 대불청의 올곧은 기상을 대변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인간해방의 가르침, 만해스님의 보살행을 이어받아 단결로 민족문화와 불법 수호, 북녘동포돕기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97 청년불교도 결의문'을 채택한 불청인들은 대회장을 빠져나와 종묘공원과 창경궁으로 민족문화지킴이 활동과 북녘동포돕기 모금활동에 나섰다.

대구지구 전종해(31)씨는 "불교가 청년들의 뜨거운 피 속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내가 곧 청년불교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1박2일동안 미래불교를 책임지는 도반임을 확인한 불청인들은 제17차 전북 불청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도필선 기자

인터뷰 불청대상 김춘길씨



"불교운동은 실천행 우선"

"청년불교운동을 위해 더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불교운동을 위해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16차 불교청년대회에서 불청대상의 영예를 안은 김춘길(38. 前 경기지구회장)씨.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4년간 경기지구 회장을 맡아 보며 시·군단위 차원의 청년조직을 결합하고, 청년불자의 자세와 대한불교청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지시키는 노력 등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던 경기지구를 활성화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또 분담금 납부 실적과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재정관리에 모범을 보였다.

'실천행을 우선으로 하는 불교운동과 신행활동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는 김씨는 "파사현정을 기치아래 불교운동에 나서야 하는게 불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전통문화"

여름방학맞아 건축·민속강좌등 다채

초·중·고교의 현직교사를 위한 전통문화강좌가 여름방학에 맞춰 다채롭게 열린다. 이 강좌는 교사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청소년층에 전통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국립중앙박물관 ▲기간: 8/18~8/23 오전 10:00~오후 6:00 ⇒ △선사문화의 흐름 △문화재의 관리 △전시실 학습 및 문화유적지 답사 △도자이론강의 및 실습 △전통염색의 이론 및 실습 (02)398-5081

한국문화보호재단 ▲기간: 7/21~7/31 오전9:30~오후5:00 ⇒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천혜봉(성균관대 명예교수) △불국사와 석굴암=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장) △고고학의 고대사=최몽룡(서울대 교수) △과학문화재와 민속과학=박성래(한국외국어대 교수) △문화유적 현장답사=정영호(교원대 교수) △한국의 전통조경=정재훈(재단발굴조사사업단장) △한국의 전통건축=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의 전통음악=이승렬(前국립국악원장) △한국의 전통춤=정병호(중앙대 명예교수) △민속과 전통문화=주강현(경희대 교수) △한국가례(관혼상제)=김득중(한국전례연구원장) (02)266-6938

신라문화원 ▲매월 둘째주 화요일 ⇒ △문화유적답사 ▲기간: 9/4~11/13 매주 목요일 오후7:00~9:00 ⇒ △경주남산=윤경렬(향토사학자) △신라불상=강우방(국립경주박물관 관장) △신라의 탑=장충식(동국대 교수) △신라의 불교사상(원효와 의상스님)=김상현(동국대 교수) (0561)746-1950

'만화 백유경' 쉽니다.

108배 行禪등반 급류타기 동굴탐사…

청소년 국토사랑 대탐험

현대불교신문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길러주고 우리 국토의 빼어남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국토사랑 대탐험' 행사를 펼칩니다. 한국탐험학교의 전문가 지도로 자연 친화적 레포츠와 참선교육을 병행해, 자연과 자아의 원초적 동질성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108배 행선(行禪)등반 급류타기 원시동굴탐험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진취성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권유와 동참바랍니다.

- ■ 일 정(2박3일)
  - ◇1차: 7월 21일~23일
  - ◇2차: 7월 26일~28일
  - ◇3차: 8월 4일~6일
- ■ 참가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고등학생
- ※ 각 차수별로 40명씩 모집
- ■ 장 소: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정선 영월 미탄 천연동굴 용평
- ■ 참 가 비: 13만원 (숙식 교통 강습 티셔츠 보험료 등 기타일체 포함)
- ※ 단, 현대불교 구독자 및 가족은 11만원으로 할인(16%)해 드립니다.
- ■ 접 수: 현대불교신문·한국탐험학교 (02)738-0997
- ■ 후 원: 조계종포교원 목동청소년회관 불교방송 불교TV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국탐험학교

새상품

롤러썰매 썬더건 도로·거실서도 즐겨



'겨울철 얼음위가 아니라도 썰매를 탈수 있다'

(주)케이디(사장 임강준)는 사계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탈수 있는 어린이용 롤러 썰매 썬더건을 새상품으로 내놓았다.

썬더건은 시멘트·아스팔트 포장도로, 실내거실 등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외발제품이 4만6천2백원, 양발은 5만8천3백원이다. (02)854-2077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전문시술원 張三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 신경통 비법 개인지도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아)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ISTI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 위 치 : 수유리
● 보증금 : 3천만원(월 66만원)
● 평 수 : 45평
● 주방, 마이크시설 완비
연락처 : 02)990-6780
※ 9:30-17:00 전화요

사찰안내
부산근교 명당에 자리잡은 암자
▶ 부 지 : 935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매 가 : 1억 8천
연락처 015)5935-6738 051)558-0042

- 복터도량(대지 760평, 건평 120평) -
조용하며 맑은공기, 편리한 교통(서울 2시간 20분, 제천·영월 각20분), 신축-석탑등 2년 6개월, 크고 견고한 대웅전·산신각, 요사채·보일러시설 완비(객실10개), 현대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대형석불, 석탑등 '최적의 기도처'
연락처 0373)374-7417

●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 양도가 2천5백
- 시설비 별도상담
- 교통편리(여주읍에서 10분거리,서울에서 1시간거리)
※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연락처 0337)82-4420

▶ 위 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대 지 : 100여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4개
▶ 보증금 : 500만원(권리금 2천5백만원,월80만원)
▶ 버스종점에서 150m 정도, 교통편리, 경관수려
연락처 02)998-1027 015)8349-3813



바로보인 깨닫음의 정수를 바로 보이다
대원 문재현 역저
T.597-2460

기타정보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5-124-6334
02-511-4632(조법사)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탈종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사찰명 : 칠보사 주 지 : 김보명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1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공고함.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사찰명 : 청암사 주 지 : 김도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2199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공고함.

한국불교 태고종 귀하
사찰명 : 국사암 주 지 : 안명옥
소재지 :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67번지
상기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7. 6. 27.

포교당 안내
▶ 위 치 : 평택 대로변(서울에서 1시간이내, 시장·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57평
▶ 보증금 : 5,00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65-6686 0522)87-2276

▶ 위 치 : 안양시내(전철 5분거리)
▶ 평 수 : 3층 건물 3층, 실평수 50평
▶ 법당, 방2 사무실, 주방, 창고
▶ 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 50만원
▶ 서설비 : 2,100만원
연락처 : 0343)42-0108 015)8447-1147

부전스님 구합니다
02)954-1474
도봉산 천축사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자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닥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닥경상
• 서울(학림사) 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良玉 합장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지(검은깨)와 장식초회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춘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갈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흰주름살이 해도 휘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감로심장회
삶을 나누는 사회
●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수 술 현 황 ●
97년 4월 현재 심장 수술자 140명
백내장 10명
안면기형 2명
장기기증 2명-11명 기증 받음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원회비 송금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박물관 상량식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6월 30일 성보박물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96년 12월 착공한 성보박물관은 건평 1백68평에 전면 9칸 측면 5칸으로 된 '가자'형 단층건물로 98년 12월 완공예정이며 은해사 본말사에 소장중인 1천여점의 문화재를 보관 전시된다.

금산사 사찰순회 법회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가 전법의 해를 맞아 7월 중순부터 관내 7개 지역에서 사찰순회 포교법회를 봉행한다.

금산사는 6월 24일 사암승가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각 말사에 일정 및 세부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순회포교지침을 시달했다.

사찰순회법회 지침에 따르면 전주 불교회관을 시작으로 군산 은적사, 김제 흥국사, 남원 선원사 등 7개지역에서 포교법회를 실시하게 된다.

관음사 봉려스님 59주기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2일 대웅전에서 관음사 중흥조 안봉려스님 59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재에는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태고종

종무원장 남파스님 취임

전북교구지방종무원은 6월28일 전북종무원사에서 인곡 총무원장스님 등 종단간부들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종무원장 남파스님 취임식을 거행했다.

한편 전북교구지방종회의장에 도성스님(진안 보흥사), 종무원 부원장에 혜명스님(마이산 탑사), 종회부의장에는 혜일스님(전주 보문사)이 각각 취임했다.

통일기원 수륙영산법회

대구경북교구종무원(원장 일우)는 6월 27일 오전11시 영주시 평은유원지에서 남북통일기원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번 수륙영산대법회에는 종단 간부를 비롯 대구경북지역 불자 1천여명이 동참했다.

성수대교 희생자 천혼재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와 한국여성불자봉사회(총재 주양자)가 공동 주최한 성수대교안전운행 기원 및 희생자 천혼대재가 인곡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8일 성수대교 강북 진입로 입구에서 봉행됐다.

3일 성수대교 개통을 앞두고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벽파스님(태고종 불교문화예술원장)의 기원문, 주양자 총재의 대회사 낭독에 이어 영산재 보존회의 천혼대재가 펼쳐졌다.

천태종

해장사 해외성지순례

진해 해장사(주지 진덕)는 6월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신도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만의 불광사, 용산사, 장항사와 홍콩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구인사서 하계승려교육

총무원(원장 운덕)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총본산 구인사서 제34회 하계승려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3백여 말사스님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승려교육에서는 종회의장 덕산스님의 본산과 말사의 주련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 진광사 법당기공식

강원 평창군 진광사(주지 갈성)는 6월 28일 신도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갈성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원도에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 종비생 연수교육

통리원(원장 성초)이 주최한 진기 51년도 종비생 연수가 6월23일부터 총인원서 시작돼 7월13일까지 3주간 열린다.

위덕대 종비생 8명을 대상으로 종비생의 자질향상과 고도의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신심'을 주제로 티벳, 일본어 등 교양강좌와 교리강좌, 교학수행, 목아박물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북경에 韓人목탁소리

외국인 최초 불교활동 '공식법회' 열어
월주스님 참석 '한인불자회' 지원약속

외국인들의 신앙활동이 금지돼 온 중국에서 공식적인 법회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등 한인불자들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불교협회의 초청으로 6월 17일 중국을 방문한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인불자회 법회에 참석, 매달 1천불씩 1년간 1만2천불을 지원키로 해 앞으로 중국포교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한인불자들의 법회가 시작된 것은 95년부터. 외국인들의 신앙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한인불자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몰래 법회를 개최하는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인불자회 회원들은 9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국인 식당에서 봉행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96년 9월 북경 광제사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불교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한인불자회는 매주 1회 가족법회를 비롯 교리공부, 수련회, 답사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북경 한인불자회의 활발한 신행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어려움이 많다. 법회장은 마련했지만 불자회를 유지할 연락사무소가 없고 재정이 열악해 신행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는 유학생 8천여명과 주재원 가족 5백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불자는 3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째 북경대학에서 유학중인 월암스님은 "한인불자들은 타국땅에서의 어려움을 불심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2억 중국인의 마음속에 한국불교를 심는다는 자부심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관음종 본산 묘각사 석조관음상 점안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6월 26일 충본산 묘각사에서 석조관음성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대천스님과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해 보문종 혜일 총무원장, 일본 진언종 대표 후카자와스님, 박윤홈 대원회 이사장 김용직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불자인구 1억여명
개방사찰 1만4천여곳

중국의 12억 인구 가운데 불자는 약 1억명이며 13만여명의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 산하 종교사무국은 6월 16일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방문한 한국종단협의회 대표단에게 이같이 밝혔다.

중국 종교사무국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사찰수는 1만4천여곳이 있다"며 "상해를 비롯한 개방도시에는 불교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슬람교가 1천8백만명, 기독교 1천만명, 가톨릭 4백여만명의 종교인구가 있다고 종교사무국측을 밝혔다.

석가족마을에 한국사찰 세운다

룸비니 '보광선원' 99년 완공… 수행승 기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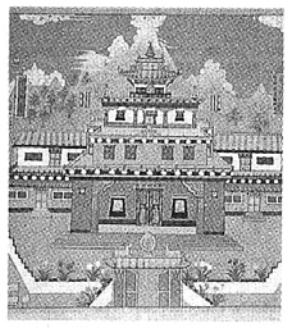
부처님 탄생지 네팔 룸비니 관문지역에 위치한 석가족 마을 포카라에 한국사찰이 선다.

3천여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5백평 4층건물로 조계종 보광선원(주지 영경·부산 보광선원 주지)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초착공에 들어가 99년 완공예정인 보광선원은 한국과 티벳은 물론 세계 각국의 수행승들의 기도처가 될 뿐만 아니라 석가족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의 고향이 될 전망이다. 또한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의 90%이상이 찾는 곳인만큼 네팔을 찾는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민간외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이곳에는 지난해 11월 개원한 2층규모의 요사채에 네팔 최고의 명문 카투만두대학 법학과 출신의 엘리트들이 주지 영경스님의 문하에서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석가족 마을에 부처님의 혜명(慧明)을 다시 밝히겠다"는 원력으로 4년여의 답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불사를 일으키고 있는 영경스님은 4년전 송광사선원서 결제중 선몽을 받고 희말라야로 답사를 떠나 도량을 세울 땅을 찾았던것. 영경스님은 보광선원의 핵심인 삼천불전 기공식을 위해 지난 6월 26일 네팔로 출국했다.

이로써 네팔에는 대성석가사(주지 법신)와 함께 두개의 한국사찰이 들어서게 됐다.



◇네팔 보광선원 조감도

"승가대 학제보완 절실"

학과 증설·교수임용 기준마련해야

한국대학경영硏 진단

중앙승가대학이 한국대학경영연구소(소장 황석하)에 의뢰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학교 경영진단 및 평가결과 학교운영 전반을 불교수행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되, 4년제 정규대학의 성격에 맞도록 학문성, 일반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평가보고서가 나온 뒤 학교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 분석 및 타대학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계획을 98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고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교수영역에서는 △교수확보 및 채용의 객관적 기준 마련 △시간강사 의존율을 낮추고 전임교수의 수업부담 상향조정과 이에 따른 전임교수의 겸직(사찰운영 등)제한 등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2개학과로는 불교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60명 정원의 현 2개 학과를 30명 정원의 4개학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청주佛放 한때 대피소동

市 '건물붕괴위험' 통지… 진단결과 '안전'

불교청주방송(지사장 각현스님)은 개국 두달여만인 6월 23일 입주해 있는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청주시의 대피명령으로 긴급안전진단을 벌이는등 한때 해프닝이 벌어졌다.

6월23일 대피명령을 받은 불교청주방송은 함께 입주해 있는 한전 측이 이틀만인 6월25일 붕괴위험이 없다는 건물안전진단결과를 밝히자, 이를 청주시에 통보하고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불교청주방송이 입주해 있는 충청매일사옥의 붕괴설은 이 건물 옆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깊이 25m로 파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뉴월드코아 공사현장 때문에 나돌기 시작했다. 충청매일사옥은 지하2층이고 옆에 들어설 백화점 건물은 지하 5층이라 장마가 지속되면 지반침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 불교청주방송 지사장 각현스님은 "임시로 주요장비만이라도 옮겨 놓을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며 "대피명령은 청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내 서점겸 찻집
백양사 다연원 열어

백양사(주지 지선)는 6월 20일 전통사찰의 숨결을 느끼고 포교공간의 확보를 위한 서점겸 전통찻집 다연원을 개원했다. 〈사진〉

다연원은 5칸 맞배지붕의 목조 한식건물로 쌍계루 연못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관광객과 내방객들이 사찰의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실내에는 추사 김정희의 만암휘호, 서옹스님의 선필, 지선스님의 달마도, 중국 16나한 참선도 수석 50여점등이 전시돼 있으며 지역특산차와 불교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마음 절실해야 붙이 붙어

나무을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할때 제대로 열이 나기도 전에 문지르기을 그만 둔다면 어떻게 불을 얻을수 있겠는가. 적실한 데서 불이 나오는 것이니 불이 붙을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 · 자연당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 · 선관삼매수련 · 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 法師의 생필(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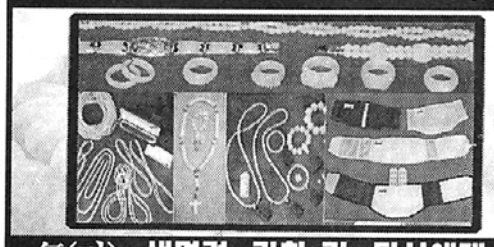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事業실패 불행한사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난치병, 疾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神秘의 般若心經을 수지독송 하면은 부처님의 神通한 영험이 있습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 모시본에 속지 마세요.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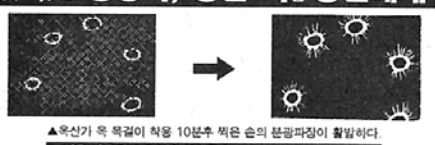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과정 수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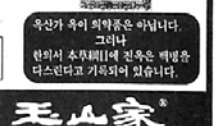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찜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학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추무배니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황룡사지에 유물전시관 선다

문체부 내년 설계착수… 예산 48억 3층 규모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 있었던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에 유물전시관이 건립된다. 문화체육부는 6월 19일 2차 5개년 문화권유적정비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내년에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역시 내년도 예산에 유물전시관건립 예산 48억원을 편성해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 이 계획에 따르면 유물전시관은 경주시 구황동에 건립되며 연면적 1천3백4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유물전시관이 완공되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불상, 사리장엄구, 치미 등 찬란했던 신라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유물들이 일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황룡사지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은 경주시가 지난해 황룡사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하는 등 국민들의 황룡사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황룡사 복원계획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재 황룡사지 권역 사유지 매입을 90%정도 완료한 문화재관리국은 황룡사지권역에 대한 토지완전매입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건립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문화체육부는 88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해온 백제 신라 가야 중원 및 영산강 유역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2002년까지의 2차 5개년 문화권 유적 정비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정림사지, 선원사지 등 폐사지를 포함한 문화유적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6·25 영령 천도 육군 승진부대 호국금강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동호)는 6월25일 경기 포천 호국금강사에서 '제14회 6·25 전몰 장병 및 희생 영령 합동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봉선사주지 밀운, 도선사주지 동광스님, 정영진 승진부대장, 송재건 중앙신도회장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포천=김주일기자〉

교계 北돕기 움직임

1차분 5만톤 초과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7월내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남북합의서 이행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7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한 1차분 식량 5만톤이 사회 민간단체의 참여로 초과됐기 때문이다.

식량지원 신청을 위해 6월 23일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했던 불교추진위 유지원 사무국장은 "다음 2차전달 시기에 가장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식량지원 촉구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6월23일 '두만강변 현지 상황조사 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부차원의 대량식량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훈춘과 도문 등 연변조선족자치주 두만강유역을 답사하고 돌아온 법륜스님은 "함경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 등은 주민의 10~30%가 기아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1백만톤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식량난 세미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은 6월26일 팔레스 호텔에서 북한동포돕기 전국 모금단체 초청 '북한 식량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의 식량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의 장기대책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에서는 대북지원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NGO(비정부기구)와 국내NGO간의 상호협력방안 모색에 대해 중점 논의됐다.

강화 종교인협 발족

강화지역 사암연합회 회장 계성스님(코끼리유치원 원장)을 비롯 천주교, 감리교, 성공회 등 종교대표들은 6월 25일 성공회 강화읍교회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강화지역 종교인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강화지역 종교인협의회는 창립대회를 마친 후 강화시내를 돌며 북녘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계성스님을 회장으로 강화종교인협이 발족됐다.

불자들 온정 이어져

▲6월14~15일 경주에서 개최된 전국어린이지도자대회에 참가한 7백여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은 62만4천2백80원의 성금을 모았다.

▲부천 석왕사 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원 60여명은 매주 법회 보시금 31만6천5백원을 6월19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실상사 화엄학림(입승지장스님)소속 스님 12명은 7백52만원의 성금을 모아 6월20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관악산 연주암(주지 자승)은 대중스님들의 보시금과 과천신도회와 송파구신도회와 함께 실시한 떡 판매, 일일찻집 등을 통해 모아진 성금 5백만원을 6월26일 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법안정사 부부 불자회(회장 국정환)는 북녘동포돕기 부부법회를 5일 저녁 7시 법안정사 대법당에서 봉행키로 했다.

〈김정은 기자〉

중앙신도회 부회장 19명 선임

임원 월회비제 도입…재정자립 모색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24일 서울정동 신도회회의실에서 제1차 운영회의를 열고 김노언 신흥사신도회장(호텔 낙산비치 회장) 등 19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회장단 및 주요임원의 월회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는 송재건회장을 비롯15개 교구신도회장, 총무원과 협의를 거쳐 이미 부회장에 선임된 7명 등 모두 23명의 운영위원이 참석, 부회장 및 이사 선임,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신도회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종단측에서는 월주 총무원장, 성타 포교원장, 총무부장 혜창스님이 참석했다.

신도회 재정자립 방안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과 부회장 고문 지도위원 이사 감사 등이 일정액의 월회비 납부를 통해 재정을 마련키로 했다. 월회비액수는 회장 1천만원, 부회장 50만원 등으로 7월부터 납부키로 했다. 신도회는 이에따라 연간 4억6천5백여만원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와 이사 선임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으며, 19인의 부회장 이외에 덕망있는 인사를 부회장에 계속 영입할 예정이다.

부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노언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명호근(쌍용화재보험 대표이사) 안동일(변호사) 진민자(청여원 이사장) 홍명희(정한화학 부회장) 〈이상 상임부회장〉 김인숙(국민대 교수) 김한곤(고합그룹 상임고문) 백영기(도선사 신도회장) 변광순(여성불교회 회장) 신기악(세풍제지 대표이사) 이연세(석왕사 신도회장) 이재훈(변호사, 청조법무법인 대표) 정인악(남양사 대표) 주영운(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최종대(대한한약협회 부회장) 홍성호(경기도의회 의장) 황석동(부산 대명여고 이사장) 홍옥진(조계사 신도회장).

故김영환장군 공덕비 조성

해인사 경내에

6·25전쟁 당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켰던 故 김영환 장군의 공덕비가 10월경 해인사 세계문화유산지정 기념비옆에 조성된다.

조계종은 김장군의 호법정신을 기리는 공덕비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故 김영환장군은 6·25 당시 공군 비행편대장으로 1951년 12월 해인사 일대에서 공비 토벌명령을 받았으나 폭격장소가 해인사 경내임을 알고 폭격을 중단시켰다. 김장군은 54년 준장으로 승진, 34세로 순국했다. 이번 공덕비 건립 추진은 문화재를 수호하려 했던 이들을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뉴스 & 뉴스

종헌위배 심의청구 '기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위원장 정우등 5인)이 법규위원회에 청구한 4개의 안건이 모두 기각됐다.

조계종 법규위(위원장 벽파)는 6월 20일 회의를 갖고 △총무원장과 집행부의 종정예하 예경 종헌위배 △총무원부서 증설과 폐지 종헌위반 △직영사찰예산의 집행 종헌종법 위배 △총무원장의 불교방송 이사직 취임 종헌위배 등에 관한 4개 사항에 대해 법규위원회법 22조에 의거 불이익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포교사연수 전국서 실시

포교사 연수교육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에서 개최됐다.

6월22일 종로구청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 포교사연수에는 종로구청 강당에서 46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도등록과 포교활동 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와 성타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부산·경남지역(동래법륜사) 대구·경북지역(동화사)에서도 각각 4백명과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사연수가 실시되었다.

9일 복지시설 책임자 특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9일 오후 2시 사회복지교양대학 강의실에서 중앙교원 산하 31개 사회복지시설장과 복지재단 산하 12개 시설장을 대상으로 '종사자들의 소진현상과 대처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및 시설장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 목표전달 △종단 소속감 유지 △하반기 연수회실시 등이 논의된다.

어진간병인회 3일 발족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3일 오후1시 종로구청 4층강당에서 어진간병인회를 발족한다. 어진간병인회는 5월 정부위탁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제1기 간병인교육을 수료한 70여명의 모임이며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무료간병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수지침 방송모니터 환경 수화 서예 한글야학 등 자원봉사단도 발족할 예정이다.

여수 향일암 '관람료사찰로'

조계종, 57곳 요금인상

여수 향일암이 관람료사찰로 지정됐다.

조계종 관람료사찰위원회(위원장 설조·불국사 주지)는 6월 2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갖고 화엄사 말사인 향일암을 관람료사찰 지정을 비롯 전국 57곳의 합동·단독 관람료징수사찰에 대해 평균 56%의 관람료 인상을 결의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 관람료사찰위원회측은 "인상된 관람료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달 중순경 관람료회의를 갖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관리국이 요청한 문화재명예관리인 무료입장을 승인했으며 신도증소지자 무료입장에 대해 포교원 차원에서 재측구공문을 발송할 것 등 관람료사찰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교재 CD롬 2종 첫선

나우누리 승가학회 교학등 14개 분야 수록

컴퓨터통신 나우누리의 승가학회 대표시삽 용학스님(조계종 승가대학원생)과 원창스님(법주사 중강)이 개발한 CD롬 2종이 6월 15일 첫선을 보였다.

이 CD롬은 경, 율, 론 삼장을 비롯 강원교재 논문, 법요, 불교사지, 불화 등을 망라해 수록됐다.

7년여 작업끝에 나온 이 CD롬은 2백메가 약 1천4백여파일의 분량으로, 교학을 14개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의 자료를 취합해 한글로 담았다. <관련인터뷰 4면>

목탁소리

불교계의 님비현상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종엔 행자교육장을 설치할 사찰 하나 없는가." 승가교육에 대한 개혁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던 93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행자교육원 상설화가 사찰이기주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이 불교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사찰에서는 안된다는 발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행자교육장이 설치될 경우 '사찰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이다. 행자교육장이 설치되는 말사는 사찰의 모든 인력과 행정력을 행자교육장에 쏟아 부어야 하고, 따라서 자연스레 교육원 직속사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또 본사급 사찰 역시 연간 3백여명 이상의 행자들이 교육장을 차지하면 사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찰이 문중이나 주지의 전권운영이라는 암묵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승가대학원이 은해사에 설치됨으로써 은해사는 하루아침에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교수양성기관으로 떠올랐다. 은해사도 처음엔 승가대학원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듯 결과는 달라졌다.

물론 승가대학원과 행자교육장이 규모나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임엔 분명하다. 불교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운다는데 사찰이기주의에 얽매여 이를 마다한다면 승가가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승단의 진정한 개혁과 발전이 교육에 있음을 두말할나위도 없다. 행자교육장 상설화는 기초교육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물론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본틀 확립을 위한 선결요건이다. 사찰이기주의로 불교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화제의 신간

일주문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싣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 윤지명 지음/256쪽/값 5,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궁금증 뚝!!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0여년

불교를 묻는 이에게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연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가
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활개치는 승려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

신국판/석 원연 지음/374쪽/값 7,000원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국민주방송 '준비중'

8월부터 주주모집 99년 개국
상업성 탈피 국민의식 대변

국민을 주주로 한 시민문화방송을 표방하는 국민주방송이 오는 99년 개국까지의 본격적인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어 상업화·저질화로 비관받고 있는 방송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국민주방송은 7월중 발기인대회를 열고 97년 8월부터 98년 1월까지 주주를 모집, 채널2를 통해 99년 9월 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독립성, 공공성, 평등성, 다양성, 미래지향성 등이 기본이념.

현재 발기인에 동참한 사람은 70여명, 추진회원은 2천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에서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국민주방송발기인대회 준비위원회 고문으로,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정각스님(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공동대표) 효림스님(보광사 주지) 고은 시인 등이 국민주방송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수행자 고뇌 파격 묘사
영화 '유리' 비디오 출시

파격적인 수행자의 기행을 영화화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유리'(감독 양윤호)가 최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비디오로 출시됐다. 연소자관람불가 등급으로 심의 통과된 '유리'는 20년전 발표된 박상륭씨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영상으로 풀어나간 영화다.

'깨침의 소리' 신뢰회복 급선무

횡령사건 이후 불교방송 활로찾기

공금횡령사고와 지방국 문제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불교방송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개국 초기와 같은 불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올 1월말 발생한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은 김선도 前 경리부 차장 송병욱 前 상무의 전격 구속(6월16·19일)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아직까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사의 지방국 운영에 불만을 표시해 오던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지방국 4개사가 6월20일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국 광고 수입액의 지방국 자체 집행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지방국

"다시 태어난다" 초발심 가져야
경영악화·지방국독립 난제
구성원 화합·프로향상 관건

임원의 본사 당연직 이사자격부여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서울본사에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공금횡령사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지방국들의 재정 및 운영 독립요구 등 불교방송은 활로를 찾지 못한채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조계종 중앙종회의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스님·이하 불방특위)는 6월 2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위원장 정대스님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불교방송 경영진과 함께 전문 회계법인을 위촉, 본사 및 지방국을 포함한 불교방송 재무구조 운영방식 등의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보완방법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6월20일 열린 불방특위의 대책회의

또 지방국 문제와 관련 불교방송 권오현 전무는 "금주 안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지방국과 조직개편문제,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고 각 지방국 총괄국장 회의도 자주 열어 의견조정을 가질 계획"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지만 지방국들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다.

개국초기 불자들의 열렬한 사랑과 기대속에 불음전파에 힘찬 첫발을 내디뎠던 불교방송. 불교방송은 공금횡령사건으로 해이해진 구성원간의 결속을 새롭게 다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제작으로 청취자 확보와 불교방송의 위상을 곧추 세워야 한다.

"다시한번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전구성원이 단결해 사랑받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번 불교방송사건을 지켜본 불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 불자들의 무조건 외면보다 애정어린 시선도 BBS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약'으로 풀이된다.

김지연 기자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⑦⓪

♦ Form sound taste smell and touch which intoxicate creatures having subdued the desire for all these things, let him in due time go in for his breakfast.

모든 빛, 소리, 냄새, 맛, 촉감은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밥을 얻으러 마음에 들어가라.

♦ Let him not kill, nor cause to be killed any living being, nor let him approve of others killing, after having refrained from hurting all creatures both those that are strong and those that tremble in the world.

산 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 Let the wise man avoid an unchaste life as a burning heap of coals; not being able to live a life of chastity, let him not transgress with another man's life.

슬기로운 사람은 음행을 회피하라.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 듯, 만일 불음(不淫)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된다.

♦ Let no one speak falsely to another in the hall of justice or in the hall of the assembly, let him not cause any one to speak falsely, nor approve of those that speak falsely, let him avoid all sort of untruth.

집회의 장소에 있든 단체에 있든지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또 남이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된다. 모든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intoxication (n) 취함, 도취, 중독
*subdued (a) 가라앉은, 억제된
*tremble (v) 전전긍긍하다, 몹시 걱정하다
*unchaste (a) 정숙하지 못한, 행실이 나쁜
*transgress (v) 범하다, (한도를)벗어나다, 넘다
*assembly (n) 단체
*stupid (a) 어리석은, 미비된, 무감각한

주부신행담

고난속에 핀 꽃 ①

우연히 스님의 TV설법 듣고
공부 못한 설움·식모살이등
어린시절 원망 사라지고…

나와 내 동생은 부모님 얼굴은 물론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내 나이 2살, 동생은 첫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두고 친정으로 가버리셨다. 울고 있는 우리를 두고 한복차림에 가시던 엄마.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잊을 수 없는 엄마의 뒷모습이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된 우리 남매는 여섯살까지는 남부끄러울 것없이 잘 살았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군에서 제대하고, 노름에 손을 대면서 집안 살림이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쌀가마가 마차에 실려 나가더니 급기야 땅문서 집문서까지.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 집도 허름하기 그지없는 초라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9살에야 겨우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육성회비 8백원을 못 내 집으로 쫓겨가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결국 2학년초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생활고에 못견딘 할머니는 나를 고아원에 보내려 했다. 고아원에 가면 학교도 보내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나는 철없이 친구들에게 고아원에 간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고아원에 가면 매일 일만 시킨다며 불쌍해 했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나는 병이 나 끙끙 앓아 누워야 했다. 결국 작은 아버지가 동네 창피하다며 서류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고아원 얘기는 무산됐다. 그러나 나는 남의 집 아기보는 일, 식모살이를 하면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남의 집살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쯤 쉰 밥을 물에 헹구어 먹어야 했고, 때로는 도둑으로 의심을 받아야 했다. 어린시절 겪어야 했던 일들은 그렇게 가슴 속 한이 되어 응어리로 남았다. 그럴때마다 우리를 버려두고 간 엄마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일새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16살 때 겨우 남의 집에서 벗어나 삼촌이 양장점에 취직시켜 주셨고, 할머니와 큰고모의 말씀대로 기술을 익히고 틈틈히 책을 봤다. 할머니와 고모는 이 다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이런저런 서러움이 다 없어진다며 나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결혼'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25살때, 지금의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다. 한밤 중에 잠을 뚫으려 잠 안오는 약까지 먹어가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결혼 두달만에 조그마한 의류공장을 인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결혼할때 집안이 보잘 것 없다고 탐탁찮게 생각하던 시부모님도 좋아했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았다.

그러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연애시절에는 좋기만 했던 남편과 점차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졌다. 외로움이 커져만 갔다. 삶이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큰아이가 태어난 직후였다. 텔리비젼을 통해 어느 스님의 설법 한 구절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식은 부모에 몸을 빌어 태어났으되 갈길은 따로 있다.' 고생스러울 때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한스러움으로 응어리져 있던 가슴 속 그 무엇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림 · 이준석

공장을 인수해 운영을 하던 나는 양장점을 차려 개업을 했다. 별탈없이 장사가 잘 돼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와 건축업을 해보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그동안 고생만 했으니 이제 아이들 키우며 쉬라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남편이 미덥지 못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업하다보면 원수가 돼 등돌리기 일쑤라는데.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자가 하는 일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는다며 화를 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누구와도 의논할 사람이 없었다. 어수선하다보니 장사도 안 되었고, 점포도 정리가 되질 않았다. 그러다 절에 간다고 나선 집주인 언니를 따라 절에 가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을 보았다. 자애로운 얼굴을 보니 엄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때부터 나는 초하루와 관음재일에는 빼놓지 않고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렸다.

김종희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자연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 하지만 생활은 또 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 면역 피부 미용 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때연, 선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첨단의 생명공학 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발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2-1522(代)
02)737-8881(代)







헬기화물운송전문업체

헬리코리아 HELI KOREA CO LTD 는 항상 스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건강하신 나날과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헬리코리아」는 최신 장비와 20년 이상의 베테랑조종사들이 사찰의 각종불사에 성심히 임하고자 만전의 준비로 스님들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고산지대 사찰불사에 「헬기」 사용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단축·시간절감 불필요한 인력 해소 등으로 불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사고예방 등 더욱더 효율 있는 불사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의 위치 및 「헬기」 이착륙장이 공사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스님께서는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출장 방문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헬기비용 산출, 운항허가 등 헬기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

●●●● 헬 기 사 용 안 내 ●●●●

◈ 문화재 재·개보수 자재운반
◈ 사찰 증·신축시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운송
◈ 동절기 생활용품 및 각종 불교 행사시 필요한 불교용품 운송
◈ 산불방지·환경보호·인명구조 및 긴급인력 수송

▶ 20여 년간 불교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영업담당이사 이주영 합장
☎(02)565-8056(代) FAX565-8059

헬리코리아 HELI KOREA CO LTD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Ⅰ 오피스텔 903호)
☎(02)565-8056(代) FAX 565-8059
대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2-16
☎(042)633-8900 FAX (042)624-8400